

이사야서 강해 ㅁㅁ(The book of Isaiah) 개요

오늘부터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수십 년 동안 성경 번역, 그럼에도 이사야서 이후의 대언의 책들을 읽으면 여러 군데가 막힌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주석을 보고 연구한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의 대언서들을 한 장, 한 장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쉬운 장은 5-10분, 어려운 장은 20-30분, 대상 장의 전체 문맥, 어려운 구절들, 화자가 누구인가?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외우면 좋은 구절 등을 알려주고 성경을 바르게 보도록 하는 일

가능하면 성경 전체를 해 보려 하지만(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 일단 이사야서 이후를 먼저 해 보려 한다.

오늘은 이사야서 개요, 기록자: 이사야, 기록 시기: 주전 70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62년

1절: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쓰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 계시라.

성경을 볼 때 늘 참조하면 좋은 것, 연대기, 킹제임스 성경의 부록에는 연대기가 들어 있다.

연대기는 성경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 준다.

연대기를 보면 웃시야 BC 810년 등극, 아하스가 BC 742 등극, 히스기야 BC 726 등극, 므낫세 BC 697년 등극, 이사야는 므낫세 시절에 죽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웃시야 왕의 통치 끝 부분, BC 740년(사6: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웃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히스기야의 통치 끝까지 BC 697, 약 62-63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 백성, 이름: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를 뜻한다.

주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통해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

목적: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

배경: 주전 8세기 후반에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한 뒤 북 왕국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고 결국 수도 사마리아는 호세아 왕 시대에 아시리아에게 함락당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장기간 통치하고 성경적 신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었다. BC 721년, 당시는 히스기야 통치 시대, 726년 등극, 5년 뒤, 이스라엘 멸망,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 이후 8년 뒤 산헤립의 히스기야 침공

이스라엘 멸망 직전, 유아의 왕은 아하스, 타락한 아하스 왕의 치하에 있던 유다는 언제든지 배교한 이스라엘의 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자신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교도 국가인 아시리아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기대하였다.

이때에 대언자 이사야와 미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 준엄하고 단호하게 책망하였으며 사악한 아하스의 아들로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우상 숭배 산당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성경 교육을 강화하였다.

내용: 이사야 대언자의 메시지는 역사에 관한 것도 있지만 예언을 담은 부분이 많으므로 세 가지 주제 즉 1.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진 것을 보여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2. 바빌론 포로 생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 (약 100년 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는 것과 나중에 땅에서 그분을 통해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것같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나뉘듯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나뉜다. 핵심 장: 53장(고난당하는 메시아)

핵심 절: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53:5)

핵심 단어: 구원(28회), 핵심 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1:4)

이사야서의 그리스도: 1. 임마누엘(7:14; 9:6), 2. 평화의 통치자(9:6), 3. 영존하는 아버지(9:6),

영적 교훈: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서 맥잡기에서는 위어스비의 노트 등을 따라 1-66장 전체를 강해하려고 한다.

이사야서 개요

총 66장, 1-39장은 유다에 대한 정죄, 4-66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특별히 메시아 재림 시 위로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 두 명의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신화가 나오기도 한다.

정죄: 1.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1-12장), 2.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 및 미래(24-27장), 3.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노래(24-27장), 4. 아시리아에서 오는 심판(28-35장), 5. 히스기야 이야기(36-38장)

위로: 1. 위대하신 하나님(40-48장, 특히 하나님과 우상들과 대비되는 아버지 하나님), 2. 은혜로우신 하나님(49-57장, 아들 하나님), 3. 영광스러우신 하나님(58-66장, 성령 하나님과 미래 왕국)

이사야서 포함해서 대언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대언자 당시(현재)와 가까운 미래(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그리고 먼 미래(천년왕국 및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동시에 언급되는 구절들이 매우 많다. 앞뒤 문맥을 통해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해석의 핵심

이사야는 누구인가?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구원에 대한 책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

1. 아시리아로부터 유다가 구원받는 것(37-39장), 2.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40장)
3. 이방인들 가운데 흠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의 구원, 먼 미래(11-12장)
4. 정죄받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사53)
5. 정죄받은 창조 세상이 사람들의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사60, 66)

대언 시작: 웃시야가 죽던 해(사6:1), BC 740년경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대언함(1:1)

전통에 따르면 히스기야 사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 함(히11:37)

1. 하나님과 늘 교감한 사람, 2.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사람,
4. 민족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애쓴 사람, 5. 민족을 사랑한 사람, 내 백성(적어도 26회), 애국자, 나라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경고, 애국심이란 ‘잠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다.’
6.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강조한 사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거룩한 자, Holy One of Israel, 성경 전체 총 31회(이사야서 25회, 다른 데서 6회)
7. 용기 있게 왕들/제사장들도 꾸짖은 사람, 20장을 보면 그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님,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누르고 승리할 것을 대언하기 위해
8. 비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 대언서를 생생하게 묘사한 문학적인 사람

이사야의 메시아

1. 그는 단순히 대언자가 아니다. 복음 전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종의 노래(사52:13-53:12)는 신약에 약 40번 언급됨
2. 주님의 출생(7:14; 마1:18-25), 침례자 요한(40:1-6; 마3), 성령님의 메시아 기름부음(사61:1-2; 눅4:17-19), 이스라엘의 메시아 거부(6:9-11; 요12:38),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8:14; 롬9:32-33), 이방인 사역(49:6, 눅2:32 등), 고난과 죽음과 부활(52, 53장), 왕으로서 메시아의 재림(9:6-7; 계19:13-15), 이 모든 것 노트로 올리니 노트를 받기 바람.
3. 이것은 작은 나라 유다를 향한 메시지만만 전체를 보면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
4.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5.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 한 책, 약 80회 언급
6.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사1:18; 43:25), 이유(사53:5)

이사야서 미(The book of Isaiah) 1장

1장: 남왕국 유다의 처참한 상태: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상태, 총 31절

1장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당시 상황 1차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다.

2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입해 보라. 우리는 어떤가?

아모스의 아들(1:1; 2:1 등), 대언자 아모스(Amos)가 아니라 아모쓰(Amoz)

이사야는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여대언자라 불림(8:3), 남편이 대언자 혹은 그녀도 대언자 성경에는 그의 두 아들이 나온다: 스알야습(7:3), 마헬살랄하스바스(8:1)

이사야의 시대(1)

1.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쇠퇴기
솔로몬 이후 왕국 분열: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유다와 베냐민(다윗 왕조, 제사장 나라)
2. 웃시야는 아사라라고 불림, 아마샤의 아들, 52년 통치
좋은 왕이지만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됨
3. 요담: 선한 왕, 22년 통치, 이때에 아시리아가 새로운 별로 떠오르기 시작함
4. 아하스, 악한 왕, 거의 아시리아의 속국이 됨, 주의 집 폐쇄
5. 히스기야: 선한 왕, 42년 통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림
6. 이사야의 대언 시기는 50년이 넘음, 국제적으로 혼동의 시기, 주변 강대국들
7. 그런데 가장 큰 복병은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백성의 마음, 우상 숭배, 강대국 의존

1. 하나님의 고소(2-4)

짐승만도 못하다(시49:20)

2절의 거역한다(Rebel): 반역한다.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산 언약(출19-20), 불신과 우상숭배로 그 언약을 깬다. 1. 감사가 없다. 2. 당연히 여긴다. 3. 주를 버리고 뒤로 간다(4).

2. 그들은 유죄이다(5-15)

사람의 관점에서는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상처투성이(5-6)

대언자의 지적에 그 당시 특권층, 제사장, 대언자들은 그를 조롱함. 그러나 사실이다.

3. 완전히 초토화된 전쟁터, 폐허 상태(7-9)

아마도 후에 있을 아시리아의 침공(36-37장), 혹은 바빌론 침공, 혹은 재림의 때

이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그분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내주심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니 얼마나 놀랐을까?(9, 창18-19).

이 두 도시는 유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

소수의 남은 자(remnant) 사상(사6:13; 10:20-22; 11:11-13; 렘6:9; 23:3; 31:7; 미2:12; 습8:12), 사도 바울의 언급(롬9:27, 11:5)

4.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종교인으로 여기고 있다(10-15). 10절,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의 백성들 수많은 헌물(11), 주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삼상15:22)과 상한 영(시51:17), 경건하게 사는 것(미 6:6-8)

그 결과 모든 종교 행위가 불법이 됨(13), 주님이 이들의 종교 행위에 피곤하고 지침(14)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손에는 무죄한 피가 있다(15)

오늘날의 우리 교회 사정은 어떤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된다.

30년 전쯤 위어스비의 미국 진단, 바나 리서치 연구 결과, 93% 가정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60%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함(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인구 550명당 교회가 하나,

그런데 미국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진다.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은 동성 결혼 합법화, 극도의 인본주의, 반유대주의

62% 응답자, 교회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말함. 재림을 전하는 데가 거의 없다. 한국의 실정: 약 천 만(인구의 6분의 1), 줄기 시작함, 한 통계, 이중에 이단이 100만 명 이상
현대 교회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음, 포스트모더니즘 영향, 사람을 즐겁게 하려 함
하나님의 두려움과 거룩함을 인지하지 못함

5.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16-31)

문제를 지적한 뒤 해결책을 준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16-17).

6. 함께 변론하자(18).

reason, 법정에서 따져 보자.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주시고자 한다(18). 고후7:1

7. 용서의 조건(19-20)

순종이나, 거부냐?

8. 유다의 또 다른 죄 명단(21, 23, 29)

살인(21), 강도질, 뇌물 수수, 약자들 무시(23), 우상 숭배(29)

그 결과 그들은 창녀가 되고(21) 찌꺼기가 됨(22)

9.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24-26)

죄인들의 멸망(28)

이것들을 치워야 유다는 구속받을 수 있다(25-27).

중요 구절: 2-4절, 18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22(The book of Isaiah) 2장

2장: 주님의 산 예루살렘의 회복, 총 22절

1장 이사야 당시 남 왕국 유다의 상황, 주님의 경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총 31절 이해에 큰 문제 없다.

그런데 2장에서는 갑자기 메시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그래서 2장은 1장보다 짧아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서 이후의 대언서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예레미야, 다니엘 등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대언자는 시공간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먼 앞날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다.

전체적으로 2-4장은 남 왕국 유다(혹은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다룬다.

1. 주의 성전(2:1-5)

1절: 아모쓰의 이사야가 받은 계시, 본 말씀, 1:1 환상 계시

2절: 마지막 날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때, 천년 왕국, 주의 집이 세상의 센터(2-3)

이교도들이 거기로 와서 주님께 경배한다(2-3).

슥14:16-19, 천년왕국의 때 모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함

3절: 거기서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이 나간다(3). 주님이 거기에 계시며 자신의 길들을 가르치시므로 시온: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남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을 뜻한다. 예루살렘, 해발 750미터, 산의 높이는 약 60-90미터. 이 산의 북동쪽 1km쯤에는 모리아 산(그 동쪽 옆으로 500미터 올리브 산)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기혼 골짜기가, 남쪽에는 힌놈의 골짜기가 있었다. 이곳은 다윗에 의해 정복되기까지 여부스 족속들의 강화 도시였고 정복된 이후에는 종종 다윗의 도시라 불렸다(삼하5:7; 왕상8:1). 다윗은 이곳의 아름다움과 튼튼함에 매료된 것 같으며 그래서 시48편에서 시온을 잘 묘사하고 있다. 시온과 시온의 딸들은 종종 모리아 산과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시2:6; 9:11; 74:2; 사1:8; 렘8:19; 율2:23).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주의 말씀, 시온=예루살렘

4절: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judge라는 말, 재판한다는 말, 다스린다는 말, “그들(민족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교도들이 무기를 버린다(4; 율3:10). 사람들이 바라는 유토피아의 때는 이때에만 가능하다.

(*) 뉴욕 유엔 본부의 뜰에 서 있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자”(Let us beat swords into plowshares)는 제목의 조각상, 동으로 제작해서 소련이 1959년 기증

UN 등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토피아 건설 불가능

5절: 주님이 다스리시니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서 걷자(5)

이 5구절은 미가서 4장 1-5에도 동일하게 나온다.

2. 주의 날(2:6-3:26)

2장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주의 날, 12절 군대들의 주의 날

성경에서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욘은 항상 24시간의 날을 말한다.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등

그런데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살후2:2) 같은 용례에 나오는 날은 어떤 기간을 뜻한다.

주의 날: 주님의 모든 성품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연하게 편만히 드러나는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교도들을 징죄하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때

성경의 주의 날: 7년 환난기 + 천년 왕국 + 새 하늘과 새 땅

대개는 두렵고 무서운 7년 환난기를 가리킨다. 사람의 거만함과 오만함이 낮추어짐(2:11-12),
하나님만 우뚝 서신다(17), 슥14:9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6-19장, 예레미야 30장, 에스겔서 30장, 요엘서, 스가랴
12-14장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 날: 사2:17; 20; 3:7, 18; 4:1-2
아시아의 북왕국 이스라엘 멸절, 바빌론의 남왕국 포로 생활은 이런 최종적인 심판의 예표
그래서 이런 예언에는 2중적, 3중적 요소가 있다.

3.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 우상숭배, 탐욕, 교만, 착취(6-22)

6절: 이방인들의 풍습이 가득하다(6). 점쟁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면 안 된다.

동방의 풍습, 특히 바빌론, 인도 중국 등, 이 시대의 뉴에이지 운동: 모두 신이고 신이 될 수 있다.

성불한다. 힌두교 불교 사상, 지금 서구의 지성인들이 뉴에이지에 빠져 성불하려고 함

그리스도가 된다. 요가, 명상, 만트라 기법 같은 영성 훈련(Spiritual exercise)

교회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빈야드 운동, 펜사콜라 부흥, 여러 가지 이름을 사람들을 유혹한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들 난무

7-8절: 물질의 풍요, 동시에 그 물질로 우상들을 만들, 지금 가장 잘 사는 때, 극도로 하나님 대적

9절: 천한 자, 귀한 자 할 것 없이 우상숭배

10절: 주님의 심판, 무서운 날이 닥친다.

11-17절: 교만히 굴던 사람들이 낮추어진다.

18: 그들의 숭배 대상이던 우상들이 파괴된다.

19-21: 주님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바위틈으로 피신한다(계6:15-16).

22절: 주님의 충고

주의 날에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렘17:5-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17:6)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결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 기간: 주의 날, 특별히 7년 환난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서 33(The book of Isaiah) 3장

3장: 유다의 지도자들 심판, 총 26절

1장 이사야 당시 남 왕국 유다의 상황, 주님의 경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총 31절

2장에서는 갑자기 메시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주의 날에 대한 말씀

3장은 바빌론을 통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의 백성의 상태

3장의 상황은 대부분 이사야 당시 남 왕국 유다의 상황,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2,700년 전의 남왕국 유다와 대한민국의 상황을 오버랩해서 보면 좋을 것이다.

롬15:4, 우리의 배움을 위해

1. 주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의 특징: 지도자들의 타락(1-7)

2:22의 경고 이후 사람들 심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음식과 물, 지도자와 군인, 재판관과 대언자 등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심으로 하신다(3:1-3).

그 결과 국가의 모든 지원 시스템이 붕괴되고 구제책이 없을 것이다.

아이들과 아기들이 통치자가 된다(4). 아이들 지혜와 경륜이 없다. 전10:16, 오 땅이여, 네 왕이 아이이며

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네게 화가 있도다! 김정은 같은 자들, 나이가 많아도 경륜이 없는 자들 백성이 압제를 당한다(5). 하극상

파멸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물자가 없다(6-7).

2. 예루살렘 파멸의 원인: 하나님의 심판(8-15)

예루살렘의 파멸(8), 아직 파멸당하지 않았으나 약 100년이 지나면 바빌론에 의해 멸절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자극한다.

노아 당시: 창6:3,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을 참고 기회를 주심, 결국 대홍수,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오래 참으심

심판의 이유(9): 그들의 죄, 소돔과 고모라의 죄

의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10-11).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그러나 유다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10),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11)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12).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공직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남성 중심의 유다 사회에서 이것은 굴욕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극도의 페미니즘, 남자나 여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러나 하는 일에서 동등하지는 않다. 남자의 일이 있고 여자의 일이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꾸려야 한다.

이것은 여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바울의 충고: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비방할 기회를 대적에게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딤후5:14).

다산하고 변성해서 땅을 채우는 것이 가능 큰 의무이다(창1:28)

이사야 시대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재앙을 가져올 길을 가고 있었지만,

소수의 의로운 자들 즉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10).

타락의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다(13)

하나님은 먼저 통치자들을 심판하심(14-15): 이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함,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없게 만들,

여자들에게 심판(3:16-4:1)

대언자는 지도층 남성들을 정죄한 뒤 남편의 범죄로 이득을 취한 교만한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3:16-4:1). 아모스 대언자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다(아모스 4:1-3). 여자들: 바산의 암소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치하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당시 유다 사람들 특히 여인들은 사치와 방탕에 빠졌다.

“대부분의 사치품과 또 우리 삶에 안락을 주는 것들의 대부분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인류를 고상하게 높이는 일에 확실한 장애물이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의 고전 『월든』에서 이렇게 썼다.

사치란 무엇인가? "사치"라는 단어는 "지나친"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원래 이 말은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우리의 영어 단어 "luxurious"를 뜻함)을 의미했지만, 이후에는 돈, 시간, 여유가 풍부하여 목적 없는 여가를 즐기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디럭스 서비스'는 라틴어와 같은 의미로,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자가 되거나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부유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제3세계 사람들의 눈에는, 대부분의 서구 세계 시민들(가난한 사람들을 포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냉난방 시설, 냉장고, 자동차,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전화, 풍부한 전기와 연료 등 서구 세계에서는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는 사치품이다.

사치란 풍요로운 소유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치스럽게 산다는 것은 가진 것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대신 헛된 쾌락을 위해 낭비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의미한다.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인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를 쓰든 상관하지 않는다. 조그만 가죽 백이 천 만 원, 이천 만 원, 참.

시온의 딸들의 오만함(16)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 이 오만한 여인들에게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17)

부끄러움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

그 날에는 아무도 그들의 값비싼 옷, 보석과 향수, 정교한 머리 장식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18-24)

그들의 남편들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25).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밧줄에 이끌려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죽어서 남편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4:1)

결론

국가가 망하는 시대의 특징

질서가 없어진다. 아이들 같이 정신 연령이 낮은 자들이 치리한다(12).

이사야 당시 경제 사정이 좋았으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유다의 붕괴를 예언하심

웃시야와 요담 당시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림, 외세의 침략 대비, 경제생활의 윤택

그 결과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탐욕을 추구함. 어떻게.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3:13-15)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 영혼의 자유, 자유 시장 경제 허락,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써서 약자를 억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특히 1850년대 이후에는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모두가 평등한 사회

양 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성도들이 인식하고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있는 자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공물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당시 유다의 상황

하나님의 면제 규정(신15:1-7, 11),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약2:1-4, 6), 행위와 믿음(2:14-17)

바울 서신(고후9:9; 갈2:10)

다시 강조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특히 공산주의 같은 악한 사상이 활개를 치게 하신다. 이것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때, 양극화(약5:1-6)

예수님 재림 바로 전,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능한 이유

다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경: 먹고살기 어려우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를 악랄하게 착취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황폐화하는 것을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나눌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남은 자로 살고 있는가?

이사야서 44(The book of Isaiah) 4장

4장: 유다의 지도자들 심판, 총 6절

- 1장 이사야 당시 남 왕국 유다의 상황, 주님의 경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총 31절
- 2장에서는 갑자기 메시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주의 날에 대한 말씀
- 3장은 대부분 이사야 당시 남 왕국 유다의 상황, 바빌론을 통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 4장은 다시 천년 왕국 시대
- 4장은 6절, 매우 짧다. 1절과 2-6절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묘사한다.

1. 남자들이 부족한 시대의 특징(1)

- 3장, 유다 왕국의 타락, 특히 남자 지도자들의 부패, 이런 시대에는 좋은 남자들이 통치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 아이들과 여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3:4, 12), 아이, 경륜이 부족한 자들
여자도 여왕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유다에서는 여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은 심히 희귀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결국 여자들이 통치하면서 사치하다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여자들, 결혼할 남자가 없다. 4:1이 이것을 묘사한다.
현시대의 페미니즘, 여자를 위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여자들에게 불리한 일이 생긴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남왕국 유다처럼
현시대에도 유다처럼 믿음을 가지려는 남자들이 많지 않다. 그 결과 목사도 여자들이 할 수 밖에 없는 추세, 미국 장로교 감리교 등 자유주의 교단 심하다. 여자 목사들 등장, 한국도 비슷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딤후2:12-15, 창조의 원리, 교회는 그 원리대로 움직여야 한다. 목사 즉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딤후3:2), 집사도 3:11, 한 아내의 남편
미금도 미국의 침례교회, 여자 목사 집사 불가능하다. 존 맥아더, 존 파이퍼, 웨인 그루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만 직무 혹은 기능상 동등하지 않다.
심지어 대한민국 군대, 남자만 간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남자가 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면 국가나 사회는 망하게 된다. 이것이 극도의 페미니즘의 결과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16절을 편견 없이 읽어 보기 바란다.

2. 천년 왕국의 특징(2-6)

- 예언의 시간표: 교회의 휴거, 7년 환난기, 올리브산 강림, 천년 왕국
대언자는 2장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을 넘어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그 때를 바라본다(4:2-6).
즉 천년 왕국의 때(계20)
주의 가지(메시아)의 등장(4:2)
"주의 가지"는 다윗 왕조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칭호이다(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사53:2; 렘 23:5; 33:15; 스 3:8; 6:12 참조)
시온의 남은 자는 거룩하다(3):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말방울과 솔도 거룩하다(스14:20-21).
주께서 깨끗이 씻음(4)
스12:10-13:1, 삼분의 이가 죽음(13:8-9),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마24:21)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사 4:4; 스 12:10-13:1 참조), 땅의 풍요로움을 회복시키며, 광야를 인도하실 때처럼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사4:5-6; 출13:21-22).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거주지가 주님의 임재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시대와는 달리 "그 날에" 백성들은 거룩해지고(구별되고), 땅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시내 광야에서의 영광이 재현된다(4:5), 구름 기둥과 불기둥, 세카이나 글로리
그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처소가 거룩한 장소가 됨(스14:20-21; 겔48:35)
결론, 사66장

이사야서 5(The book of Isaiah) 5장

1장 이사야 시대, 2장 메시아 왕국, 3장 이사야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의 이유, 4장 천년 왕국

5장: 다시 장면은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상황이 30절에 걸쳐 자세하게 묘사된다.

대언자 이사야는 노래하는 형식으로 유다의 죄를 고발함(1절)

단순히 2,700년 전의 유다 왕국 이야기로 듣지 말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말씀들을 대입해 보자. 그래야 대언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포도원이 하나 있도다.

나: 이사야 대언자,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 사랑하는 자와 관련 있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유래된 노래 이사야의 설교를 무시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노래를 듣고 변하지 않을까?

포도원 노래의 주제(7),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포도원 관련 사실들(1-7)

1. 포도원은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음(1)
2. 주인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최선의 일을 함(2)
3. 그런데 예상과 달리 들포도를 냄(2)
4. 한번 판단해 보라(3).
5. 더 무슨 일을 내가 하랴?(4), 모든 것을 했으나 그럼에도 들포도를 냄
6. 이제 주인에게 남은 일(5-6), 포도원이 멸절되게 하겠다.
7. 모든 것 요약(7), 판단의 공의가 사라지고 압제만 남음, 의가 사라지고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만 남음 즉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

마23: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마21:33-44)

들포도는 무엇인가? 그 뒤에 나오는 유다의 6가지 죄악

1. 탐욕(8-10), 땅에 관한 율법을 어기고(레25:23-28)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속이고 땅을 빼앗음
대표적인 사례: 왕상21:1-3,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죽임

큰 집, 농장, 홀로 거하려 함(8), 주님의 저주(9-10)

십 에이커 포도원, 일 에이커는 1,224평, 10에이커=12,240평, 1바스=7.5겔론, 28리터
1호멜=8부셀=288리터, 1에바=22리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제대로 소출을 내지 않음

2. 술 취함(11-17), 성경은 술에 대해 항상 좋지 않게 말한다(잠20:1; 23:29-31)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롬13:13; 고전6:9-10; 엡5:18).

아침부터 술에 취함(11), 술 연회를 열면서도 주의 일은 하지 않음(12), 그 결과 포로가 되어 갈증을 느낌(13), 갈증의 최고조는 지옥의 갈증, 결국 이들은 지옥으로 내려감(14), 지옥은 땅속에 있다.

지옥은 항상 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위치 땅의 심장부(마12: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장소(마25:41), 계속 확장해서 오는 자들을 맞음(14)

악한 자들은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게 됨(15), 이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심

(16)

그들이 심판을 받으므로 비로소 약자들이 부자들의 땅에서 양식을 얻게 됨(17)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보면 천년 왕국의 화평으로 볼 수도 있음

3. 부주의(18-19), 불법과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며 조롱한다(19). 주의 일을 보여 주소서. 눈으로 보면 믿겠습니다. 정말로 심판하시나요? 그 심판을 보여 주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19), 이사야서에만 25회,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실제로 그분을 그런 식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4. 속임(20), 죄를 달리 정의함, 한 입으로 두 말 함, 인터넷 시대, SNS 폐해
지금 온 세상이 이런 죄로 시달리고 있다. 악이 선이 되고 선이 비방을 받는다.
좌익들의 세상, 거짓말쟁이들, 인간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려 함
부끄러움을 모른다.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20절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특징, 맥아더 목사님 설교 강조

5. 교만(21), 롬1:22,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마귀의 죄, 아담의 죄

6. 불의를 행함(22-25)

술 연회를 좋아함(22)

재판관이 권력을 이용해 가난한 자 착복, 의로운 자를 나쁜 자로 만들어 버림(23)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지푸라기처럼 불에 의해 삼켜짐(24)

주님의 분노(25), 백성의 멸망,

25절 후반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는 계속해서 나옴(9:12, 17, 21; 10:4)

이 모든 죄악의 결말(26-30)

결국 주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불러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음(26-30)

그들은 사납고 모진 백성, 사자와 같은 백성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BC721년)

남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황폐하게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주의 날의 특징(30):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 재림 전의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대환난의 특징

결론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의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과 죄가 넘치면 국가는 멸망한다.

미국, 한국, 유럽,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만이라도 남은 자로 바르게 살자,

이사야서 6장(The book of Isaiah) 6장

이사야의 환상 계시 경험 및 소명(6장)

도대체 대언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6장이 알려준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고 소명을 받음(6장)

13절로 된 6장에는 이사야의 섬김 사역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

성경의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 요3, 롬8, 사6

이사야서의 대부분은 위어스비 목사님의 성경 주석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다른 분들의 주석 참조 아마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설교하는 데 가장 좋은 주석

사랑침례교회 사이트, 상단 구글 검색, '위어스비 성경 주석 PDF 파일'

설명 난에도 링크

핵심: 그는 다른 이들에게 심판을 외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심판을 외쳤다(5).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 주는 최고의 장,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사57:15)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거처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63:15)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성화를 이루며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대다수 유명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의 추악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을 통해 좋은 설교를 하게 됨

6장에는 이사야가 여러 존재를 보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가 본 것들

1. 그는 먼저 주님을 본다(1-4): 웃시야는 선한 왕,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나병 환자가 됨(왕하15:1-7), 그가 죽던 해(BC 740년경)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에 계신 주님을 봄(1), 성경에서 여기에만 스랍들이 나옴(2), '빛나는 자들' 스랍은 여섯 날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3), 삼위일체 하나님(계4:6-9, 네 짐승, 9절) 참고로 성경의 천사들은 날개를 갖지 않았다. 다 짧은 난자들로 나타난다. 여자, 아기 천사 없다. 이사야 대언자의 상황: 별로 좋지 않았다.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불법을 저지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에 그는 위를 보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이 그분의 영광(3)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마6:10).

미국의 바이든, 최악의 대통령, 미국이 부정 선거 같은 문제로 혼돈 속에 있다.

미국, 유럽, 한국 대학들 반 이스라엘 시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한민국, 갈수록 좌경화, 무상 복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사법주의 공의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 생각하면 낙심이 된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2. 그는 다음으로 자기를 본다(5-7):

자기의 비참한 상태(5), 부정한 입술은 부정한 마음 때문에 생긴다(마12:34-35)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주님의 용서와 구원(7).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턴을 보여 준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회개, 구원과 용서, 구원 이후에도

인간의 처지: 렘13:23,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브라함, 야곱, 욥, 다윗, 바울, 베드로, 히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죄를 철저히 고백한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

특별히 사역을 하기 전에, 남을 섬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는 다음으로 필요를 본다(8):

유다 왕국은 주님을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백성을 위해 섬기는 종을 원하였다.

이때에 그는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대답

모세와 예레미야는 "할 수 없다고 함", 이사야는 죄 용서 이후 곧바로 초청을 수용함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를 위해 많이 나와야 한다.

렘5:1-2, 겔22:30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4. 그는 다음으로 백성의 눈 먼 것을 본다(9-10).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까?

주님의 약속은 참으로 이상하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은 더 눈이 멀게 됨(9-10)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마13:13-15; 렘4:12; 눅8:10; 요12:40; 행28:25-28).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들을 강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패턴: 한 사람에게 진리가 왔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점점 더 눈이 멀게 됨

그것이 당시 유다의 상태,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였다.

그럼에도 사역자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이 중요하다.

예레미야 사역, 거의 대다수가 그를 버림

이사야도 마찬가지, 에스겔, 다니엘도, 그럼에도 그들은 큰 대언자

9-10은 사실 예수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

이사야의 질문과 유다의 종말(11-13)

그의 사역의 종말은 국가의 패망과 연결됨(11-12)

11절: 이 백성이 언제까지 불순종할까요?

12절: 유다 패망, 바빌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갈 때까지

13절: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다.

그럼에도 그 땅의 십분의 일이 남은 자가 되어 땅의 본체가 된다(13).

십분의 일, 주님께 거룩한 것, 딱 10분의 이라기보다는 개념, 레27:30, 그 땅의 모든 십일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십일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암5:10,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천 명이 나간 도시가 이스라엘
집을 위해 백 명만 남기고 백 명이 나간 도시가 열 명만 남기리라.

남은 자들이 먹을 것이 된다. 때류 헨리 주석,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먹을 양식인 십일조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말3:10).

말3:10,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사야가 본 주님은 누구인가?

1절의 주(Lord), 3절의 만군의 주(LORD), 요12:37-41,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사야서 7(The book of Isaiah) 7장

위어스비 목사님 강해, Biblehub.com, 매튜 헨리, 존 길 등 참조

이사야서 1-6장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

요지: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요청, 국가와 백성이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특히 6장 대언자 이사야의 부르심, 심판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 주는 최고의 장

7-12장은 백성의 정치적 상태, 지도자들의 무능과 타락

특별히 8:18 중요(이사야와 아이들이 포적이 됨)

네 개의 중요한 이름: 임마누엘, 마헬살랄하스바스, 스알야습, 이사야

7장 임마누엘: 소망의 메시지: 25절

남왕국 유다의 위기의 시대, 북쪽 아시리아의 급성장, 작은 국가들 위협

아시리아: 고대 제국. 이 이름은 이 지역에 정착한 셈의 둘째 아들 앓수르에서 나왔다(창10:22).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아시리아(*)

I. 본래의 아시리아. 지도에서 보듯이(*) 이것은 티그리스 강 동쪽에 놓인 왕국으로 고대에 여섯 개의 지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수도는 매우 비옥하고 좋은 곳에 위치한 니스웨였으며 따라서 아시리아는 좁은 의미에서 니스웨가 속한 지방을 뜻했다.

II. 대개 아시리아는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하고 유프라테스까지 뻗어나간 아시리아 왕국을 의미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 왕국을 사용하여 대언의 말씀을 전하였다(사7:20; 8:7).

고대 아시리아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성경을 통해 이 나라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이 나라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시리아 왕 불은 므나헴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을 침범했고(왕하15)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의 요청으로 그를 도와 북쪽의 열 지파와 연합한 시리아 군대를 치게 하였다(왕하16). 왕하17을 보면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마지막 왕 호세아를 정복하고 그를 봉신으로 삼아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하였지만 호세아는 이 멍에를 벗기 위해 이집트와 연합해서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다. 호세아의 계략을 눈치 챈 살만에셀(최종적으로는 사르곤)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멸하고 왕에게 족쇄를 씌운 뒤 그 땅의 백성을 메대로 이주시키면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막을 내렸다.

그 뒤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공격했지만 기적으로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왕18:17-19:1-37). 19:35, 185,000명 죽임 당함

그의 아들 에살핫돈은 므낫세 왕 시대에 유다를 초토화시켰고 주요 인사들을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이후에 아시리아는 급격하게 세력을 잃게 되어 마지막 황제인 사르단팔루스 시대에 메대 왕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당시 상황

왕하 16장, 시리아(르신)와 북왕국 이스라엘(베가)은 연합하여 아시리아를 대적하려 함

유다에도 동맹 제안, 그러나 유다는 거절

이유: 아하스는 은밀하게 이미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음(왕하16:5-9).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려 하였다.

그러자 르신과 베가가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 함(6).

주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습을 아하스에게 보냄(3), 스알야습의 뜻: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당시 왕과 그의 백성은 두려움 속에 거함(2)

그때에 이사야가 화평의 말을 줌(4).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화평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9),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사 26:3)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두 왕이 나뭇조각 썩지(4)

이 둘은 얼마 있다가 죽음(베가는 5년 쯤 지나서), 그리고 65년이 지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음(8)

이 대언은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인 주전 734년경에 주어짐

이때부터 65년이 지나면 BC 668-669년

이스라엘은 이 예언 후 13년 정도 지나서 BC 721년경(13년 차이)에 살만에셀과 사르곤에 의해 멸망됨. 그 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남
예언 뒤 65년이 지난 BC 668년경에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이주 정책 완료(에스라4:2-3, 10; 왕하 17:24; 대하33:11)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고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사라짐

그러므로 BC 668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음(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원래 기도와 금식 선포 등 필요

그러자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표적을 구하라고 하신다(11).

그러나 아하스는 거부(12), 그는 이미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그곳을 신뢰함

그러자 이사야의 책망(13)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아하스가 아니라 온 유다(너희에게)에게 임마누엘 대언(14)

성경의 임마누엘(총 3회, 사7:14, 8:8, 마1:23)

여기 임마누엘의 최종 성취는 예수님(마1:18-25; 눅1:31-35)

임마누엘 설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요1:14)

이를 위해 처녀 탄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이다.

처녀 탄생을 통해 죄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성령님의 의해 수태된다. 엄마의 피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분은 마리아 전에 존재,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요3:13; 8:58).

어머니의 태를 필요로 하셨으나 아버지는 불필요

근본주의의 5가지 믿음: 1. 성경 무오류, 2. 처녀 탄생, 3.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4. 예수님의 몸의 부활, 5. 문자 그대로 전천년 재림

여기 나오는 대언은 일단 그 당시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해당됨

당시 상황: 처녀가 결혼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

그 아들은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는 표적(8:18)

이 아들은 누구인가? 8장으로 가면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음, 마헬살랄하스바스(1-3)

아마도 이 아들의 이름이 7장에서 말하는 임마누엘(8:8, 10).

매튜 헨리(7:10-16)

여기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은혜로운 제안을 하시며 그가 선택해야 할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 앞서 말한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려 하신다(10-11).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는 본다. 히6:17.

그분은 사람의 연약한 구조를 고려하시고는 표적을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비록 아하스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주 네 하나님'이라고 불렀다.(11) 하나님께서 악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보라,

그런데 아하스는 이 은혜로운 제안을 무례하게 거절하고 예의를 차버리고 그 제안을 가볍게 여긴다(12절):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가 표적을 구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아시리아와 그들의 군대,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믿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표적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이유를 내세운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불만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색채로 위장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도 그분을 시험하지 않는 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자 대언자 이사야는 그와 다윗의 집 즉 왕실 전체가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책망한다(13절). 너희가 너희 말로 주님을 피곤하게 하였느니라(말2:17). 하나님께는 불신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너희가 내 하나님을 지치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피곤해서 너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데 지쳤다고 생각하느냐?"

사40:28-31.

여기서 대언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13) 아하스는 대언자가 그렇게 말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는다(11절):

대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표적을 준다(14): "너희는 표적을 구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람의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14절) 곧 이중 표적을 주실 것이다"

1. 이것은 유다와 다윗의 집에 대한 그분의 선의를 보여 주는 표적이다

그 결과 너희는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공활을 베푸는 분이요 현재의 환난과 위험이 아무리 크더라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너희 민족과 너희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니 그 복이 너희 안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2. 너희는 메시아가 가 너희 가운데서 나실 것이라고 자주 들었으나 나는 이제 더 나아가 그가 처녀에게서 날 것이라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메시아가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순결을 가지고 태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 태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는 인간 본성의 오염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한 자이므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기에 합당할 것이다. 이 예언은 비록 500여 년 후에 성취되기는 했지만, 다윗의 집에게 가장 고무적인 표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17절, 에브라임(북 왕국 이스라엘)은 참으로 유다를 시기하여(사11:13) 유다 왕국의 멸망을 구하였으나 이길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실로가 오기까지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창49:10).

1.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함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성취되었다(마1:21-25). 그분은 하나님 구원자 이시다.

이제 이것은 다윗 집과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징이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시니 유다의 다른 문제들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표가 된다.

고난의 시기에 가장 강력한 위로는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관계에서 온다. 15절에는 이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예언되어 있다(15절). 비록 다른 아이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고 처녀에게서 나지만 그는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이며 다른 아이들처럼 보살핌을 받고 자랄 것이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나 천사의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될 것이다(히2:17). 또한 그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즉시 어른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여러 상태를 거쳐 점차적으로 성인기에 이르러 지혜와 키가 자라서 마침내 영이 강해지고 성숙하여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누가복음 2:40, 52).

2. 유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이 두 명의 강력한 왕들이 빨리 멸망할 것이라는 또 다른 징조가 16절에 나온다. "이사야가 8장에서 낳을 아들, 그 아들이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법을 알기 전에 즉 이 아이가 대역섯 살이 되기 전에, 네가 그토록 적대시하고 두려워하는 두 왕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에서 버림을 받는다. 두 나라는 한 마음. 하나. 그래서 그 땅 하나

3. 이 일은 그 후 5년 쯤 지나서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왕하15:30) 또 그 그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여 르신을 죽임으로써(왕하16:9) 정확하게 성취된다.

유다에 대한 경고(17-25)

유다의 아하스는 여전히 아시리아를 신뢰하였으나 결국 믿었던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범한다(17-20). 이집트도 침범한다(18): 후에 파라오느고가 요시야를 죽임 그 결과 소수만 남고 가축도 별로 없다(21).

농사지을 수 있는 곳은 없어지고 목초지로 변함(22), 소수의 사람들이 가축들이 내는 우유 및 버터, 바위 속의 꿀 등을 먹으면서 연명한다. 정상적으로는 밀과 포도즙음 음식으로 먹어야 한다.

황폐함(23-24);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한 황폐함

잘 가꾸어졌던 좋은 땅이 쥘레와 가시로 뒤덮일 것이며(23절), 포도나무가 천 그루나 심어져 있어 소작인들이 해마다 천 세겔의 소작료를 지불하던 곳이 이제는 쥘레와 가시만 남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목축의 도구는 전쟁의 도구로 변할 것이다(24절).

온 땅이 쥘레와 가시로 덮이고 사람들이 낫과 가지 치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열매를 따먹던 땅에 이제는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와서 덤불 속에서 들짐승을 사냥하거나, 수풀 속에 숨어 먹이를 노리는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거기에 숨은 뱀과 독사들을 죽일 것이다(24절). 25절: 또 쾡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 거기에는 쥘레와 가시를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 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이것은 매우 묘한 말씀,

시80:12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무심으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시나이까? 13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들짐승이 그것을 먹어 치우나이다.

매튜 헨리의 해석: 쥘레와 가시가 없어야 할 곳에는 많이 생기고 있어야 할 곳에는 없을 것이다(25절).

이전에는 쥘레와 가시가 울타리를 형성하면서 포도원이 있는 작은 산들(언덕들)을 보호하였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뽑힐 것이다. 왜? 숲에서 멧돼지 같은 것들이 나와 그런 울타리를 망가뜨릴 것이므로(시 80:12,13).

그러므로 쾡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이 울타리 없이 무방비로 열리고 그 결과 소와 작은 짐승들이 뛰노는 데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죄와 저주의 영향이며 이로 인해 땅은 쥘레와 가시의 숲이 될 것이다.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방치되고 경작되지 않으면,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해지면 곧 무서운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천국은 그런 변화를 겪지 않는 낙원이다.

결론

유다와 유다의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신뢰하다가 결국 100여 년이 지나서 바빌론에 의해 멸망되는 시련을 겪었다.

우리(하나님의 포도원)가 하나님께 마땅히 좋은 포도를 내지 않고 들포도를 내면 그분께서 포도나무를 가시덤불로 바꾸는 일이 생긴다(5:4).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사야서 8장(The book of Isaiah) 8장

위어스비 목사님 강해, Biblehub.com, 매튜 헨리, 존 길 등 참조

이사야서 1-6장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지만 온 나라가 타락해서 결국 망한다.

7-12장은 백성의 정치적 상태, 지도자들의 무능과 타락

특별히 8:18 중요(이사야와 아이들이 포적이 됨)

네 개의 중요한 이름: 임마누엘, 마헬살랄하스바스, 스알야습, 이사야

7장: 아하스 이야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시리아의 르신 연합해서 유다 침략 계획
온 국가가 공포에 잠김, 하나님이 이아야를 보내고 표적을 구하라고 하신다. 큰 은혜
그러나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표적을 주신다. 임마누엘(14)

아이가 조금 자란 뒤에 몇 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망한다. 그대로 성취됨
그리고 결국 유다도 망해서 소수의 남은 자만 있고 그 온 땅이 목초지가 되고 만다.

8장 마헬살랄하스바스: 경고의 메시지(총 22절)

임마누엘 대언: 2중 성취, 이사야 당시와 예수님 이중 성취

이사야 시대의 대언의 성취를 이해 이사야가 처녀와 결혼함(1-4).

아마도 그의 첫째 아내는 죽음

마헬살랄하스바스(신속히 노략한다), 그의 아이들은 표적(18):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

아이가 너댓 살정도 될 때에(4절)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함(왕하15:29).

예언의 진실성을 위해 2명의 증인들을 세움(2), 여기의 우리야는 아마도 대제사장(왕하16:10)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4), 7:15와 매칭

18절에 다시 주목하라.

유다 백성의 타락과 잘못된 선택

1. 백성은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홍수 선택(6)

실로아는 실로암(요9:7), 기혼 샘의 물이 고이는 곳

그 결과 아시리아가 여러 차례 침범(7-8), 나중에 결국 바빌론이 멸망시킴

8절의 '오 임마누엘이여!',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7:14, 8:10도).

물론 나중에 오실 메시아 의미도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지만 이기지 못함

9-10, 이런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은혜, 미래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여전히 이스라엘은 남는다.

2. 그들은 성소(14)가 아니라 울무와 함정을 선택함(11-15)

이 백성의 길(11)은 다수가 원하는 것: 아시리아와의 연합

그 길로 걸으면 안 된다(11-12).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군대들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12-13).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거짓 이방 신들, 천체들, 목석

잘못된 질문: "다수가 지지해, 원해?", 바른 질문: "그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성소로 삼아야 한다(13-14).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벧전3:14-15).

주님은 성소(14): 거룩한 곳, 도피처(왕상1:50의 아도니야, 2:28의 요압)

주님은 반석(14), 믿지 않으면 반석이 걸려 넘어지게 함

주님이 함정과 울무가 됨(14)

3. 그들은 빛 대신 어둠을 택함(16-22)

증언을 싸매라는 말(16), 증언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됨, 두루마리를 싸매라

1절 두루마리가 펼쳐짐,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율법을 봉하라(16). 같은 말 반복

유다는 대언자의 말을 무시하고 버림. 그러나 이사야는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림(16-17).

비록 그들이 그의 말들을 무시해도 그와 그의 두 아들은 산 증인(18)

a. 이사야(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증언함

b. 스알야습(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민족이 멸망해도 소망이 아직 있다.

결국 바빌론에서 돌아왔고 40-66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c. 마헬살랄하스바스: 신속히 노략을 당한다.

이 위기의 때에 백성은 마귀들과 교제하였다(19: 신18:10-12).

그렇게 하는 이유: 빛이 없기 때문이다(20, 고후4:3-4).

말씀(율법과 증언)의 빈곤과 기갈(20)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다. 암8:11-13

시119:105, 130

벧후2:19-21

21절, 이리저리 유다 땅을 지나다닌다. 말씀의 굶주림

그들은 초조해 하면서 위를 쳐다봄: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바라봄(도움을 구함)

왕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돕지 않고 심판하시므로

또 땅을 바라봄(22). 흑암밖에 없다(22). 어둠으로 쫓겨난다.

말씀의 부재, 완악한 마음, 국가 멸망, 지옥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는 “아시리아 같은 외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함.

지금 우리나라는 줄을 잘못 서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친중, 반미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인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한국은 대륙 세력 밑으로 가면 종살이

해양 세력과 함께 해야만 자유/번영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공산주의/사회주의 홍수를 택하면 다 죽는다 (6-8).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지역구나 자기 당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하도록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8:21-22의 악한 상황이 오게 된다.

지금은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할 때이다(좌경화가 된 이유를 알고 회개하기 위해).

전국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가난을 벗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좌익 대통령들을 나라를 살린 사람들 위로 두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회개해야 구원받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산다.

이사야서 44(The book of Isaiah) 4장

위어스비 목사님 강해, Biblehub.com, 매튜 헨리, 존 길 등 참조

이사야서 1-6장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지만 온 나라가 타락해서 결국 망한다.

7장 임마누엘 예언, 8장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 처녀와 결혼, 마헬살랄하스바스 아들

국가 멸망 원인: 백성의 무지, 원인 증언과 율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부재,

그렇게 하는 이유: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20, 고후4:3-4).

말씀(율법과 증언)의 빈곤과 기갈(20)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끈다. 암8:11-13

결국 그들은 어둠으로 쫓겨난다.

이런 때에도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 이사야(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증언함

스알야습(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민족이 멸망해도 소망이 아직 있다. 그 내용이 9-11장

9-11장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BC 721), 다시는 회복되지 않음,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 BC 606-586, 바빌론에 의해 멸망, 그러나 회복됨(BC 536)

이들의 회복을 통해 메시아 출생,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 9장에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총21절

구속자 메시아 약속(9:1-7)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의 인격, 사역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

위대한 장 중 하나

1절: 유다가 고통을 당해도 스블론과 납달리, 갈릴리가 흑암 속에서 고통을 당한 것보다는 덜하다.

북왕국 이스라엘, 므나헴 당시 아시리아의 불(왕하15:19-20)

호세아 당시 살만에셀과 사르곤

지도 (*), 이스라엘 열두 지파, 북쪽 아셀, 납달리, 스블론, 잇사갈, 단, 므낫세(북) 등

여기서는 특별히 스블론과 납달리의 고통

바닷길 옆 갈릴리(1): 지중해 옆, 갈릴리 바다

지도 (*),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벳새다 등이 있는 지역

북쪽이라 이방 민족들과의 접촉이 많은: 북쪽, 외세의 침입, 유대인 + 이방인

갈릴리: 구약 5번, 신약 67회 총 72회, 마4:15, 21, 23-25 그리스도 당시에는 갈릴리가 요르단

서부와 사마리아 북부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했지만 바빌론 포로기 이전에 이 이름은 북부 경계

근처의 작은 지역을 의미했다(왕상9:11).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위와 아래로 나뉘어서 위 갈릴리는

스블론 지파의 영토의 북쪽과 산간 지역을 포함했고, 아래 갈릴리는 비옥하고 좀 더 평평한 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가리켰으므로 전체 갈릴리는 잇사갈, 스블론, 납달리, 아셀을 포함했다.

아래 갈릴리에는 400여 개의 마을이 있었으며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사렛과 가버나움도 이

마을들 가운데 하나였다(막1:9; 눅2:39; 요7:52).

한영대역 큰글자 지도 8과 16, 스터디 바이블 19, 40

‘이방인들의 갈릴리’는 위 갈릴리였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경계가 두로와 시돈이었고 또 거기에 페니키아,

시리아, 아랍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들이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눅13:1; 23:6; 요1:46; 7:52).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는 사투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막14:70).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행1:11; 2:7) 물론 그리스도도 갈릴리 사람이

였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이름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려서부터 서른 살이 되기까지 여기서(나사렛) 살았고 공생애 중에도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다. 그래서 나사렛, 나인,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2절: 메시아가 나타남, 초림(마4:12-16)

그런데 3-7은 재림까지 이어짐, 유대인들의 확장 및 기쁨

3절: 백성의 기쁨,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다. 킹제임스 성경, 1. 이방인들의 회심,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음, 2. 또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다.

4-5절: 사7:22,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을 쳐부숴, 주님께서 유다를 압제하는 자들을 쳐부숴

6절: 메시아 그리스도 출생, 아이와 아들

메시아는 왕국을 세운다: 삼하7:16, 눅1:32-33; 슥9:9, 천년왕국 사11장

그분의 호칭 놀라우신 분: wonderful

조연자: counsellor, 지혜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삼위일체,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분, 원천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요8:44), 영존하는 아버지(Everlasting Father), 영원의 아버지(Father of eternity), 영원을 있게 하신 분

놀라우신 분, 아이인데 모든 것을 창시하시는 아버지가 됨

평화의 통치자: prince of peace(행5:31),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사11:6-9), 천년 왕국

초림 때에 유대인들의 거부로 왕국이 연기됨(마23:37-39)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7절을 보라.

메시아 할렐루야 합창

주께서 북왕국 사마리아를 심판하심(9:8-10:4)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 왕국을 침입하여 행하는 일들이 기록됨

이것은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육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교만하고 완악함(9)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 더 잘될 것이다(10)라고 주장함. 벽돌, 다듬은 돌, 돌무화과나무, 백향목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삼킴(11-12):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

유명한 구절(12 후반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17절에도 반복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14)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을 끊어 버림(14-15)

지도자들이 멸망하는 이유(16):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함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함(17), 그들은 다 위선자, 악을 행하는 자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18-19): 주의 진노로 그 땅이 어두워지고 백성은 떨감이 됨

이스라엘은 기근을 당함(20):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19절 후반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싸움

그러면서 유다를 공격함

그럼에도 주님의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음

결론

유다 백성이 어둠을 쫓겨나지만 어둠 속의 백성에게 큰 빛이 나타난다.

메시아의 탄생, 6-7절, 메시아 왕국, 신구약성경의 핵심 주제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하는 것을 미리 보여

주심, 이스라엘은 결국 기근, 형제들끼리 싸우고, 모두 흩어져서 다시는 한 국가를 이루지 못함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암의 물(8:6),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수 있다. 국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사야서 1^o(The book of Isaiah) 1^o장

9-11장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BC 721), 다시는 회복되지 않음, 사마리아

남왕국 유다, BC 606-586, 바빌론에 의해 멸망, 그러나 회복됨(BC 536)

9장에는 이들의 회복을 통해 메시아 출생,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 9장에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성경의 위대한 장 중 하나

오늘 10장: 총 34절

1-4절: 여전히 유다의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 9장 강해 참조

5-34절: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주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심(10:5-34)

유다의 아하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실 것을 7장에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심(7:17)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타락한 백성을 응징할 하나님의 심판 도구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선택함(5-6), 유다 백성: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심판하시려고(6)

그런데 그는 다름 마음을 품음(7-8)

9절: 여기의 6도시는 아시리아의 사르곤과 그 이후의 왕들이 정복한 도시들

갈노, 갈네와 같은 말(창10:10; 사10:9; 암6:2). 니므롯이 시날 땅에 세운 도시

갈그미스, 유프라테스 강에 세워진 도시

하맛: 아람(시리아) 왕국의 큰 도시(창10:18)

아르밧: 하맛에서 가까운 도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내가 이런 도시들을 다 정복했다.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예외이겠느냐?

내가 내 힘으로 다 이룬다(10-11), 그런 나라들의 우상들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아시리아 왕 심판(12)

아시리아 왕의 자랑(13-14), 내가 내 힘으로 다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15)

아시아 군대에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시며 영광이 사라지게 불을 붙일 것이다(16).

이스라엘의 빛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반복(17)

다 태워버린다(18).

나무도 거의 다 사라진다(19).

유다를 향한 위로(20-22), 이 와중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22절(롬9:27-28)

21절: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스알야술

24-34절: 주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심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이집트를, 삼손 시대의 미디안을 멸하신 것 같이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다.

27절 그의 명에서 유다는 벗어난다.

28-32절은 산헤립의 침공 경로

30, 갈림, 베냐민의 도시,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8킬로 떨어진 베냐민의 도시

라이스, 단 지파가 빼앗은 북쪽의 도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31절, 맛메나, 게빔 어딘지 잘 모름, 도망감

32절: 높은 베냐민의 도시, 제사장들의 도시, 아시리아 군대가 여기에 머물며 예루살렘 공략

33-34, 아시리아의 멸망, 레바논, 아시리아 표현,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군인들, 주님에 의해 멸절된다.

결론

세상 역사, 이방인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단4).

종종 이교도들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런 뒤 그들은 결국 망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외부에 의해 심판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남은 자가 있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져 결국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이사야서 11(The book of Isaiah) 11장

9-11장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

이들의 회복을 통해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 출생

9장에는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메시아가 누구인가?

성경의 위대한 장 중 하나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시리아의 패망

오늘 11장: 재림 시 이루어질 메시아의 천년 왕국: 총 16절

대언자들의 대언: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예수님 재림, 3중적 시간 프레임

11장 역시 성경의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

성경의 총 주제: 메시아와 그의 왕국 확립

창3:15 여자의 씨 메시아, 유대인들에게서 출생한다. 처녀에게서, 임마누엘(7:14)

9장을 보면 어둠 속에 있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와서 빛을 비춤: 이방인들의 갈릴리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초림 시 왕국 제시 거부, 재림 시 메시아 수용, 이 사이에 교회가 있음

성경의 핵심: 에덴동산처럼 하나님의 왕국 설립, 평화의 왕국, 9:6-7 살렘(평화)

대언서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나옴. 24쪽 예언의 산봉우리 선도, 74쪽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함(11:1-16)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교만한 이방 민족들은 나무와 가지로 표현됨(10:33-34)

이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

11장은 이것들과 대비되는 연한 가지 메시아를 보여 준다(1절)

가지(branch): 메시아 호칭, 상징적 차원에서 나무는 위대한 통치자나 인물을 나타내며 가지는

그들의 후손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막대기', '그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등으로 표현되었는데(사11:1; 53:2; 슥3:8; 6:12) 이것은 그분이 다윗 왕의 집에서

나온 왕가의 후손임을 보여 준다(렘23:5; 33:15).

이새, 롯기, 보아스와 롯, 오벳, 이새, 다윗(룻4:21-22), 베들레헬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2-5). 기존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2절: 메시아의 특출한 성품, 거룩함, 순수함, 지혜로움 등

여기의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심(마3: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요3:34: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서는 창조물이 복원된다(6-9).

롬8:18-25, 사65:17-25

처음의 에덴동산과 같음(9절, 합2:14; 슥13:1-4)

여기의 모든 짐승은 실제 짐승이지 상징이 아니다. 그림

메시아 왕국의 이방인들(10), 천년왕국에는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이 들어간다.

기(ensign), 깃발을 들고 행군하는 군대처럼 메시아에게 모일 것이다. 슥14장

유다의 남은 자들(11-12)

11절의 두 번째 드신다. 두 번째 출애굽(렘31:31-34) 사건이다.

13절(겔37:15-19, 스가랴서 11장도 참조),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의 갈등이 사라진다.

민족들의 으뜸이 된다(14-15). 이스라엘 주변의 원수들 모두 제압

15: 이집트 바다의 혀 같은 것, 홍해 상부가 둘로 나뉜 것(지도 참조)

철저히 멸하신다: 물이 마르게 하신다.

강(the river)을 치신다. 여기의 강은 유프라테스, 앞뒤 문맥상

16절의 아시리아로부터 큰길이 나오려면 유프라테스가 갈라져야 한다. 계16:12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더라. 동방의 왕들도 오고 아마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일

큰길(highway): 35:1, 8, 역시 메시아 시대

이집트 탈출과 같이 아시리아 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올 것이다.

결론

이사야의 대언 요약: 이사야서 1장의 죄 많은 백성과 거룩한 백성, 고난당하는 백성이 궁극적으로 평화의
왕국을 차지함

초림 시 주님의 기도 요청(마6:9-1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재림 부활 휴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자.

이사야서 12장: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노래

9-11장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내용

이들의 회복을 통해 인류의 구속자 메시아 출생

9장에는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9:6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9:7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시리아의 패망

11장: 재림 시 이루어질 메시아의 천년 왕국

모세 당시 이집트 탈출과 같은 형태의 이스라엘 탈출이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결국 모든 이방인들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특별 백성이 된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총 6절

구원의 노래(12:1-6)

아시아 당시, 또는 모세의 이집트 탈출 이후, 이스라엘 백성 줄곧 타락, 배도, 결국 아시리아, 바빌론 포로, 그 뒤 메시아 초림, 메시아 핍박, 거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나라, 민족

그런데 이런 민족, 나라를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셔서 결국 메시아 왕국의 으뜸가는 나라, 민족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의 탄성과 찬양이 올려온다. 이게 12장의 핵심

그 날(1):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진노: 큰 환난, 후반부 3년 반, 렘30:7, 야곱의 고난(30:5-7) (*)

슌13:8-9(*)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 형상

BC 606년부터 재림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0-28), 20, 24, 27절 참조, AD 70년을 말하지 않는다.

그 날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날이다. 너희(유대인들)의 구속

여호와와 구원이시다(2): 이사야의 이름, 이것은 출15:2

구원의 우물들(3), 요4:14

천년왕국의 노래 주제(4-6)

여호와만 높여지신다(4: 시83:18)

알리라(5), 에스겔서 등, 반복, 너희가 알리라(25번). 겔37:13-14

그들이 알리라(26회). 『또 맹렬히 책망함으로 그들에게 크게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겔25:17)』

6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겔48:35, 그것은 돌아가며 치수가 만 팔천 갈대더라. 그 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가 되리라.

슌14장도 보라.

이스라엘을 결국 구출해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자.

이사야서 13장: 이스라엘의 원수 바빌론의 완전한 소멸

1-12장은 이사야 당시 유다의 상태, 메시아 출생 예고,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 즉 이사야 당시인 BC 700년경부터 신약시대, 천년왕국까지 적어도 3,700년 이상의 유대인 역사를 기술함

13-23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13-23장)

하나님께서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유다뿐만 아니라 10개의 관련 국가들

느부갓네살의 교훈(단4:25), 심지어 거주지 경계와 시간(행17:26)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 1절에는 burden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기에 힘든 무거운 짐, 엄중한 부담(13:1; 14:28; 15:1 등)

대언자가 질 무거운 짐, 당사자들이 질 무거운 짐

바빌론(13:1-14:23; 21:1-10)

성경 초반부, 대홍수 이후, 바벨탑의 바벨, 혼동(창10:8-10; 11:1-9)

성경의 바빌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세상 시스템, 구 바빌론의 뒤를 이은 이집트와 비슷함 (사탄과 더 밀접함)

예루살렘(811회)과 바빌론(286회)의 대비: 하나님의 도시, 사람의 도시, 이집트 611회

창10-11장 바빌론 시작, 성경의 맨 마지막(계14:8, 16:19, 17-18장),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계14:8).

실제 바빌론과 영적인 바빌론: 바빌론의 창시자는 니므롯(창10:8-10)

구 바빌론(BC 2000년경, BC 1800년경 6대 함무라비 왕 BC 1600년경 멸망)

신 바빌론(BC 626년경, 나보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 유다 폐망 지금의 이라크, 후세인 바빌론의 영광

- 바빌론(Babylon) I.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원래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고대의 전설은 이것을 지지한다. 자세한 것은 다니엘서 강해 1번 참조, <다니엘서 개요: 구약 연대기와 바빌론 국가>

느부갓네살의 통치 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기에 적합했고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라 불렸다(사43:14; 겔17:4).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이 거기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대언자들은 그것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야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사13:19; 47:5; 렘51:41; 단4:20)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부패와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행하게 되었고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다, 속곳브눗 같은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러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바빌론은 영원히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했으며 느부갓네살의 손자 즉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하였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통치 밑에서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바빌론은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약 3세기 전의 일이다.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은 구체적으로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3장을 읽으면 이해에 큰 문제가 없다.

1-5절, 주님께서서 바빌론을 대적할 군대를 소집하심

2절: 너희, 여러 민족들, 그들, 17절의 메대 사람들, 바빌론의 고귀한 자들의 문들

바빌론 지도(*)

3절: 거룩히 구별된 자들, 역시 메데 사람들, 그들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

6-10: 구체적인 바빌론 심판, 9-10절 읽고

11: 파멸의 원인

12: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음, 오빌 금 산지로 유명한 곳, 금췌기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13-16: 남녀노소 모두 멸망함

14절의 그것은 바빌론

14절의 그들, 바빌론에는 여러 민족들이 거주함.

17-18: 구체적으로 메대 사람들이 사용됨,

성경의 메대: 메디아 왕국, 바빌론 동쪽

이란 페르시아의 원조 국가, 얼마 뒤 고레스가 일어나 메대/페르시아가 합병되어 페르시아 제국이 됨

19: 바빌론은 소돔과 고모라같이 폐허로 남게 됨

20: 완전히 황폐하게 됨

21-22: 들짐승, 날짐승들의 거처가 됨

바빌론의 멸망은 10장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멸망과 비슷함

배도한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러나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이 도로 심판하심

결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롬3:29-30,

그분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3:30) 할례자를 믿음에 의해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서 이방인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대한민국의 미래, 간절히 기도하자.

이사야서 14장: 루시퍼의 타락과 사탄의 등장, 바빌론의 영구한 멸망

1-12장은 이사야 당시 유다의 상태, 메시아 출생 예고,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

13-23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10여 개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심판

13-14장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

13장 유다를 멸절시킨 바빌론, 결국 황폐하게 된다(13:19-22).

14장은 실제 바빌론의 멸망과 함께 바빌론의 뒤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루시퍼의 타락과 멸망의 일대기

특별히 4-20절, 바빌론 왕에 대한 묘사, 이것은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바빌론 멸망(13, 14, 21장, 렘50-51장) 총 32절

1-2절: 바빌론이 멸망하는 이유, 이스라엘의 회복, 악한 자들 처벌받음

4-20절, 루시퍼의 타락 특별히 12-15절

3-4절의 너, 유다 혹은 이스라엘

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뒤편 뒤에 숨어 있는 영이 있다. 성경은 그자를 바빌론 왕으로 부르고 있다(4).

4-11은 바빌론 왕,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루시퍼가 등장함

2-15절의 바빌론 왕은 존재한 적이 없다.

4-5절: 바빌론의 멸망, 5절의 홀, 권위의 지팡이, 이것이 꺾이면 국가가 망한다.

6절: 그자가 뒤편을 받음

7-8절: 온 땅이 평화를 누림

9-11절: 그 왕이 지옥으로 내려가 다른 왕들의 영접을 받음, 성경의 지옥: 땅 밑(마12:40), 땅의 심장부,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지옥 그림(*), 에스라 성경 사전 등을 보라. 에베소서 4장 강해(23번), 내 이름 지옥, 지하 세계

12-15절에는 루시퍼가 등장한다.

루시퍼의 타락(사14장)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 과거의 영원, 시간, 미래의 영원

루시퍼, 겔28의 두로의 왕(12), 11-19절

14-15, 덮는 그릇, 기름 부음 받음(어느 면에서 메시아), 17절 타락의 원인

루시퍼의 타락(사14:12-15): 죄의 핵심 교만, 창조물이 창조자처럼 되려고 함(내가, 내가, 내가 5번, 13-14)

개역성경 포함 '계명성'(새벽별, 계22:16)은 예수님의 타이틀, morning star, "예수님이 타락한 것이다."라는 뉴에이저들의 주장 No!!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 중 '지극히 높으신 분'(14)과 같이 되려고 한다.

계12:4, 루시퍼는 별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함, 이 천사들이 악한 영, 마귀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시려고 영존하는 불 마련(마25:41)

인류 역사: 우주와 땅,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과 우주 창조, 미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지금 시간 안에서 마귀에게 마음껏 해 보라고 하심

- 사탄(Satan) 대적하는 자(왕상11:14; 시109:6). 사탄은 사람의 혼의 가장 큰 대적자 즉 마귀이다. 그는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를 가리킨다(욥1:7, 12; 욥 3:1-2; 계12:10). 그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한다(대상21:1; 눅22:31). 그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도덕적 죄의 창시자이며 특히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성향을

만드는 장본인이다(눅13:16; 히2:14). 사탄은 기독교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의 근원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방해 요소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삶을 개혁하려는 것을 크게 저지하고 있다(마4:10; 요13:27; 롬16:20; 엡2:2).

- 마귀(Devil)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12:31),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 '용, 저 옛 뱀, 마귀'(계20:2), '저 사악한 자'(요일5:18), '울부짖는 사자'(벧전5:8),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8:44), '바알세불'(마12:24), '벨리알'(고후6:15),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계12:10) 등으로 불린다.

마귀들(devils)은 마귀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한 사탄 마귀에게 정관사 the를 붙이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단수인 경우 부정관사 a를 붙이고 복수인 경우 devils라 표기한다.

16-20절: 다시 바빌론 왕에 대한 이야기

21-23절: 바빌론이 들짐승, 날짐승들의 거처가 됨

24-27절: 다시 10장의 아시리아 멸망으로 돌아감

여기의 그 아시리아 사람(사10:5)은 히스기야 시대의 산헤립으로 보는 견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

블레셋 멸망

28-32절: 팔레스타인의 멸망, 팔레스티나, 기존 성경의 블레셋

28절은 29-32절에 대한 것이다.

블레셋(사14:29-32, 렘47), 가나안 땅의 서남부 차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지도(*)

블레셋 사람들: 크레타 섬 출신의 해양 민족들, 사사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 골리앗 등

지금은 엄격한 의미의 블레셋은 없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문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블레셋은 아시리아 혹은 바빌론이 망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29), 30-31, 더 나쁜 것이 온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큰 고통, 지금도 가자 지구 하마스, 블레셋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결론

바빌론의 멸망

그 뒤에서 바빌론을 조종하는 사탄 마귀 루시퍼의 일대기, 그도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간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멸망

이사야서 15-16장: 교만한 모압의 멸망

1-12장은 이사야 당시 유다의 상태, 메시아 출생 예고, 메시아 재림 시 천년 왕국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메시아의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

13-23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10여 개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심판

15-16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렘48), 모압은 롯과 그의 만팔 사이의 근친상간에 의해 태어난 롯의 맏아들(창19:37). 둘째딸은 벤암미를 낳음, 암몬 족속의 조상

● 모압 족속(Moabites, 모아바이츠) 롯의 아들인 모압의 후손들(창19:30-38). 모압 땅은 사해의 동쪽과 남동쪽에, 주로 아르논 강의 남부에 위치하였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이스라엘 주변의 몇 나라, 빨간색

1. 시리아, 므낫세와 단 북쪽의 국가(아람)
2. 암몬, 갓 지파의 동쪽
3. 모압, 유다의 동쪽, 르우벤 지파 남쪽, 사해의 남동쪽
4. 에돔. 모압 밑, 네 나라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 오늘 모압

한때 모압의 경계는 북쪽의 압복까지 확장되기도 하였고 오랫동안 요르단 강 너머 여리고 앞부분은 모압 평야라고 불렸다(민22:1; 신1:5; 29:1; 수13:32).

파란색(*)

넓은 의미에서 이곳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전체 땅을 포함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리고 맞은편의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쳤다(민22:1; 26:63; 수13:32). 그 당시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소유였다(민21:22).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느보 산에 이르러 모압 땅에서 죽었다(신34:5-6).

처음에 모압 사람들은 엠 족속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을 몰아내었으나(신2:11) 아모리 족속은 아르논 강 북쪽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었다(민21:13, 26; 삿11:13-18). 그 뒤 이 북부 지역은 모세에 의해 정복되어 르우벤 지파에게 배정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모압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민22:1-41; 23:1-30; 24:1-25; 신2:8-9). 모압 왕 발락은 대언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다 실패했지만(민22-24) 결국 그들을 음행의 자리로 이끌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민25:1-5).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과 그들의 씨는 1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다(신23:3-6). 그들은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하고 역겨운 방법으로 그모스와 바알 브올에게 경배하였다(민25:1-18; 왕하3:27). 몰렉 참조(*). 혹은 몰록

후에 왕정 시대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모압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모압 사람들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섬겼으며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다(왕상11:1, 7).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던 때도 있었으나 에글론과 사울과 다윗과 요람과 여로보암의 시대처럼 서로 적개심을 품은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삿3:12-30; 삼상14:47; 삼하8:2, 12; 왕하3:13:20; 14:25). 그들은 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도와 유대인들을 대적하였고(왕하24:2; 겔 25:6-11)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으며 그 뒤에는 아르논 강의 북쪽 지역을 되찾은 듯하다(사 15:1-9; 16:1-14). 대언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유전적으로 적개심을 품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민24:17; 시60:12; 83:6; 렘 25:9-21; 48:1-47; 암2:1-3).

15장: 모압에 대한 부담의 말씀, 총 9절, 15장은 모압의 곤경

1-4절: 모압의 주요 도시들의 멸망, 아르, 기르(1), 느보, 메드바(2), 헤스본 엘르알레(4)

5-9절: 역시 비슷한 상황 설명

5절: 렘48:3, 29:교만이 문제다.

6절은 렘48:34

모압에 대한 이 예언은 3년 안에(16:14) 엄청난 국가적 애痛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 장에는 통곡, 통곡, 대머리, 굵은 베옷, 부르짖음 등 애도 및 애곡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14가지 이상 등장한다.

모압 백성은 산당들로 피하여 자기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15:2). 그 어떤 것도 아시리아가 모압을 침략하고 그 땅을 황폐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 진격하는 군대는 종종 샘과 수로를 막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6-7절). 모압에 물이 있는 곳은 모두 피로 물들었고 살육이 극심했다(9절). 나약한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아시리아 사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사야서 16장: 교만한 모압의 멸망

1-3절: 모압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남, 모압의 탄원과 호소, 1절, 그 땅의 치리자는 유다의 왕 아시리아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10:24-34).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 왕국에 쳐들어와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다(36-37장). 그러나 모압의 도망자들은 시온 산으로 도망치는 대신 아르논 강변과 에돔의 '바위 도시'인 셀라로, 남쪽으로 도망쳤다. 도망자들은 셀라에서부터 유다 왕에게 적에게서 도망하기 위해 망명을 허락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사야는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유다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은 유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에는 통치자에게 어린양 같은 짐승을 보내는 것(1절)은 공물을 바치는 행위의 한 형태였다(왕하3:4). 2절: 모압의 패망, 3절: 모압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더운 날의 보호 바위처럼 적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달라고 간청한다(16:3-4; 32:1-2 참조).

4-5절:

이사야는 모압 사람들의 호소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모압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 노략하는 자, 압제자라고 부르며 그 나라가 멸망할 운명이라고 선언하였다(16:4). 왜 그랬을까? 그들은 유다의 도움을 원했지만 유다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절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서 의와 공홀로 통치할 날을 가리키는 메시아 약속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압은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원했다.

6-14절: 모압 패망의 원인, 교만과 오만

바빌론(14:12-14)과 같은 도시의 교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작은 나라 모압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였을까? 그들은 교만 때문에 유다에 복종하지 않았고 결국 패망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자랑은 통곡으로 바뀌고 노래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으로 바뀌었다. 모압은 짓밟힌 포도밭과 추수하지 않은 채 방치된 결실 맺는 밭처럼 될 것이다. 특별히 16:9-11에는 모압의 멸망에 대한 대언자의 슬픔과 주님의 슬픔이 묘사되어 있다.

"1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겔33:11). 이사야는 오랜 원수가 멸망한 것을 기뻐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울었다(잠24:17-18). 하나님의 마음

13-14, 모압의 멸망 시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바빌론에 의해서 여기의 3년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름

결론

나라든 개인이든 교만과 오만이 패망의 근본 원리이다. 교만은 마귀의 죄, 아담의 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구원받고 보상을 받은 우리가 되자.

이사야서 17장: 시리아의 멸망과 에브라임의 황폐함

13-23장은 유다 주변의 10여 개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심판

1. 바빌론(13-14장), 2. 아시리아(사14:24-27), 3. 블레셋(사14:28-32), 4. 모압(15-16장)
오늘 5-6. 시리아와 에브라임. 17장은 총 14절, 시리아의 멸망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폐함
이 두 나라는 사7:1-2에서 보듯이(시리아의 르신, 이스라엘의 베가) 연합하여 유다와 아시리아를 대적하려 하였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옴.

1. 시리아(다마스쿠스 수도): 1-3절(렘49:23-27)

이곳은 히브리말로 아람. 아람은 썸의 아들(창10:22). 이곳은 지중해와 타우르스 산과 티그리스 사이의 지역을 포함하므로 히브리말로 '두 강의 시리아'를 뜻하는 메소포타미아도 포함한다.

이스라엘 주변의 몇 나라, 빨간색

1. 시리아, 므낫세와 단 북쪽의 국가(아람)
2. 암몬, 갓 지파의 동쪽
3. 모압, 유다의 동쪽, 르우벤 지파 남쪽, 사해의 남동쪽
4. 에돔. 모압 밑, 네 나라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 오늘 시리아

서부의 레바논 산지를 제외하면 시리아는 평지이다. 시리아는 로마 제국에 넘어간 후에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고 유대 땅은 비록 다른 총독이 있었지만 시리아에 부속된 상태였다. 그래서 시리아의 총독은 유대 땅의 총독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1.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는 반드시 파괴될 것이며, 집들은 불타고, 적어도 성벽과 성문과 요새는 허물어지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1). 그리고 큰 도시가 아니라 한 마을에 불과한 폐허로 전락할 것이다. 시리아의 도시들 같은 운명: 다마스쿠스, 하맛, 안디옥
다마스쿠스는 BC 73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된다.
2. 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17:3). 시리아는 유다를 대적하는 동맹의 선봉장이었으므로 가장 먼저 가장 큰 벌을 받게 되며,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자랑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으므로 결국 꾸짖음을 받게 된다.
3. 그 결과 시리아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
현재의 시리아 난민 사태가 말세의 징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4-14절)

다마스쿠스의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대언자는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하여 에브라임의 황폐함을 묘사한다. 요새 도시들의 멸망(3), 해가 지는 것(4, 영광이 떠나는 것), 야위게 되는 것(4), 수확하지 못하는 것(5-6), 동산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9-11), 홍수가 닥치는 것(12-13), 바람 앞에 겨가 날리는 것(13)

4-5절: 야곱의 영광, 여기의 야곱은 북왕국 이스라엘

6절: 여전히 남은 자가 있지만 극히 소수이다. 거의 완전한 패망이다.

7-8절: 고통의 때에(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음

9-10절: 그날, 야곱이 고통을 당하는 때(17:4), 그의 견고한 도시들, 야곱의 견고한 도시들은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둔 황폐한 도시들처럼 된다. 그 이유: 10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

11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12-14절: 여러 민족들의 이스라엘 공략

14절의 그는 원수,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모두 패망한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결론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자 이스라엘이 깨닫지만 이미 때가 늦음.

그 결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됨(BC 721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과 반석이시다(17:3).

이사야는 히스기야 당시 대언자,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봄

여기서 강조점,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17:3),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컨트롤하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우상들을 섬김

우리는 어떤가?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사야서 16장: 에티오피아의 위기와 심판의 반전

13-23장은 유다 주변의 10여 개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심판

1. 바빌론(13-14장), 2. 아시리아(사14:24-27), 3. 블레셋(사14:28-32), 4. 모압(15-16장) 오늘 5. 시리아(17장), 다음에 나오는 이교도 국가는 18장의 에티오피아이다. 18장은 총 7절

1.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18장): 아프리카의 큰 왕국 중 하나. 에티오피아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자주 나온다.

민족들 지도 참조. (*)

에티오피아는 나일 강을 따라 이집트 남부에 위치하였다(사18:1-7; 습3:10).

스바라는 이름은 에티오피아의 북부 지역을 가리키며 구스의 만아들이 정착한 곳으로 판단된다(창10:7).

참고로 세바의 여왕, 역시 같은 절에 나오는데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

스바/에티오피아 이 지역은 산과 모래가 많으나 대개는 물이 많고 비옥한 곳이었으며 흑단, 상아, 향료, 금, 각종 보석이 많이 났다. 이곳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이 두 곳은 종종 함께 성경에 등장한다(사20:3-6; 43:3; 45:14; 겔30:1-26; 단11:43).

대하14:9-15에는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의 아사 왕을 공격하는 대목이 나온다.

신약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기사가 나온다(행8:27-40).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이 많았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수용했다. 그래서 4세기 초에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에서 고대 에티오피아말로 번역되었다.

현재 1.3억, 에티오피아 정교 44%, 기독교 19%, 기독교 계열의 인구가 63%, 8,300만

이 지역은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18장은 대언자 이사야의 위기 예언과 심판의 반전

이사야는 이 땅을 "날개들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땅"(1절, KJV)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 땅에 창궐한 벌레들뿐만 아니라 아시리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을 모색하는 광란의 외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절에서 이사야 대언자는 가볍고 빠른 배를 타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절, 7절에는 "너희는 흠어지고 벗겨진 민족 곧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움을 주는 백성에게로 가라."

도움을 청하러 가는데 이런 민족에게로 갈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 사신들이 답을 가지고 자기들의 땅(에티오피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 준다.

답: 군대의 도움과는 별개로 내가 아시리아를 직접 처리하실 것이니 너희는 도로 집으로 돌아가라(2절).

하나님의 심판(3), 세상은 조용히 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땅에서의 인간의 광란적인 활동과는 대조적으로 하늘에서는 심판의 수확을 거둘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차분한 인내가 있다(4절).

5절에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잘라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살아남지 못할 익은 포도나무로 묘사된다.

6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의 시체를 위해 펼치시는 잔치를 묘사한다(사37:36).

계시록 14:14-20과 19:17-21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종말의 심판에 사용된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외교적 계획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서두르는 대신 주님과 유다 왕을 위한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사17장, 대하 32:20-23).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이방 나라들은 시온 산으로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사2, 습14).

현대 에티오피아에는 많은 팔라샤 유대인들,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예수님 재림의 한 징조, 천년왕국의 때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사야서 19-20장: 이집트의 위기와 천년왕국에서의 영광

13-23장은 유다 주변의 10여 개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심판

1. 바빌론(13-14장), 2. 아시리아(사14:24-27), 3. 블레셋(사14:28-32), 4. 모압(15-16장)
5. 시리아(사17), 6. 에티오피아(18)

오늘은 19장 이집트, 총 25절, 또 이 기간에 이루어진 이사야의 대언 20장, 6절

1. 이집트

이집트(19장, 렘46),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유명한 나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라임이라 불렀다(창10:6). 민족들 지도(*), 밑에 구스

노아의 손자인 미스라임,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고향, 에티오피아와 함께 함의 후손들의 땅

이집트 지도, 이집트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대개 큰 평야로서 나일 강이 여기를 통과하며 물을 제공하고 남북을 일자로 연결하고 있다. 나일 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므로 상부 이집트(Upper Egypt)는 북쪽 지역이 아니라 남쪽 지역이며 하부 이집트는 카이로와 고센 지방 등이 있는 북쪽 지역이다.

13절에는 주요 도시 소안과 놉이 나온다. 둘 다 하부(북부)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

소안(민13:22, 시78:12; 사19:11,13; 30:4; 겔30:14)L 그리스말 타니스, 이집트 북부 도시
놉은 멤피스로 알려져 있다.

이집트는 파라오 왕정 체제,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고 다시 그리스에 의해 정복됨.

그리스 왕국의 4분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클레오파트라)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국의 대명사

애굽과 바로는 중국식 표현, 이집트와 파라오가 맞는 말이다.

출애굽, 이집트 탈출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를 숭배하였다. 출애굽기의 열 가지 심판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사19장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집트에 관한 가장 중요한 대언을 담고 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집트, 아시리아(현대 이라크)'가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복을 나눌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보여 준다. 물론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먼저 1-15.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을 보여 준다.

이 예언은 아마도 주전 710년경 이집트가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사20:1, BC 721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킨 살만에셀의 후계자)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성취되었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정복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도와줄 힘이 없음을 증명했고(19:1), 영매들과 마법사들도 조언을 줄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3절).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출12:12, 민33:4)과 이집트 지도자들의 지혜를 이기셨고, 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니다. 이집트의 마흔두 개 지방은 혼란에 빠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할 것이다(사 19:2). 이집트 경제의 원천인 나일강과 그 땅의 하천과 운하가 모두 말라버려서 농부, 어부, 옷감 제조업자들이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5-10절). 수세기 동안 이집트인들은 지혜로 존경받았지만 이제 통치자들과 참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11~13절). 곧은 길을 걷는 대신, 술 취한 사람이 구토를 하며 비틀거리는 것처럼 어지러운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길을 잃었다(14~15절).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신뢰했던 정치적 통일성, 경제, 종교, 지혜 등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쉬운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20장은 이집트가 수치당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언의 각주

이사야 20장은 이 예언의 각주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몇 가지 독특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절: 사르곤의 아집트 침략,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

결국 아시리아가 블레셋을 넘어 남부 이집트로 쳐들어감

유다의 한 세력이 이집트 및 에티오피와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이사야는 그러한 동맹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언자는 3년 동안 전쟁 포로처럼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3절, 이사야가 맨 몸과 맨 발로 3년 동안 다님(2-3),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4)

역사를 보면 유다의 친 이집트파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유랑하던 친 이집트파 사람들만큼이나 대언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30:1-7; 31:1-3; 민11; 14).

유다의 친 이집트 파는 수치를 당한다(5-6).

6절: 유다 백성의 탄식: 이 섬의 거주민, 섬은 바다와 접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심판의 반전(16-25)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집트를 구원하실 것이다(사19:16-25). 이 구절에서 "그 날에"라는 구절은 다섯 번 사용되었으며(18, 19, 21, 23, 24),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마지막 날을 가리킨다.

몇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집트는 유다 왕국을 두려워하고(16-17절) 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회심할 것이다(18-22절). 그들은 우상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그분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큰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현대 이라크)가 협력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23-25절).

다시 한 번 이사야는 이 세 나라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 "큰길"이라는 주제를 선택한다(11:16 참조).

큰길(사11:16; 19:23; 35:8; 40:6; 62:10)

이방 민족들이 만왕의 왕 앞에 무릎을 꿇어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는 날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될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이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서: 당시뿐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의 일을 보여 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아시리아, 이집트 모두 무슬림들, 천년왕국에서는 변한다.

1: 주님의 이집트 심판, 2: 이집트 사람들끼리 싸움

3: 이집트의 영이 쇠진하고 그들은 우상들에게 돌아섬

4: 아마도 아시리아에게 패배함, 5-10: 이집트 땅의 가문과 기근

11-12: 이집트 지혜자들이 어리석게 됨, 14: 이집트가 비틀거리며 어려움을 당함

15: 아무도 막지 못한다.

16: 이집트는 여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17: 유다가 그들에게 공포가 된다.

18: 이집트의 반전, 가나안 말을 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며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린다.

19: 이집트 땅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일

20: 이집트 사람들이 한 구원자로 인해 구원을 받음

21: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함

22: 주님께서 그들을 치신 뒤에 그들을 고쳐 주심

23: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잇는 큰길, 서로 왕래

24: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 세 나라가 복이 됨, 이스라엘이 3등 국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연합 동맹의 한 나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복을 받는다(슥14).

25: 하나님이 세 나라에게 복을 주심

이사야서 긴장: 바빌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13-23장은 유다 주변의 10여 개 이교도 민족들에 대한 심판

1. 바빌론(13-14장), 2. 아시리아(사14:24-27), 3. 블레셋(사14:28-32), 4. 모압(15-16장)
5. 시리아(사17), 6. 에티오피아(18), 7. 이집트(19-20)

오늘은 21장 < >, 총 17절, 세 나라 이야기

바빌론(21:1-10)

하나님께서 13-14장에 이어 다시 한 번 바빌론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신다(사21:1-10).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바빌론의 특사들이 유다를 방문한다.

이사야 당시 바빌론은 아직 아시리아를 능가하지 못함.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강한 나라가 됨
이런 시점에 대언자는 바빌론에 영원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줌.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빌론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다.

1-10절은 위대한 예언의 말씀, 바빌론 도시가 단5장의 벨사살 왕의 통치 때에 다리오의 메대 사람들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묘사함

1절: '바닷가 사막', 일단 이 부담의 말씀은 바빌론에 대한 것이다(9절). 이런 맥락에서 바다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큰물은 바다이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도시
그것은 아마도 메대의 군대,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땅은 메대, 지도 설명(*)

2절: 배신하는 자는 배신하고 노략하는 자는 노략하는도다.

1. 바빌론에 대한 언급 혹은 바빌론이 그렇게 하다가 엘람 메대에 의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2. 엘람과 메대, 이 둘은 페르시아, 바빌론을 멸함

3-4절: 바빌론의 멸망을 깨달은 대언자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3-4절).

어쩌면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5절: 바빌론의 벨사살 왕의 잔치(단5), 바로 그 밤에 바빌론이 멸망을 당함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

6절: 이사야가 마치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표현함, 5절에 대한 부가적 말씀

7절: 파수꾼이 신실하게 살펴봄

8절: 사자다, 무서운 심판이 바빌론에 닥칠 것이다. "파수를 보라고 했으니 나는 신실하게 보았습니다."

9절: 파수꾼의 보고 내용 요약: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이 온다.

그 다음의 그는 이사야 대언자 혹은 하나님의 선포 "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레미야와 사도 요한(렘51:8; 계14:8; 18:2). 이사야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는 말을 채택했다.

10절: 1. 유대인들 타작마당에서 곡식처럼 으스러지는 경험, 바빌론에 의해

2. 바빌론이 이런 식으로 으깨어지면서 멸망당함

고대의 대제국 바빌론은 메대와 엘람에 의해서 망한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죽음, 바빌론 도시의 멸망

BC 539년,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 BC 606, 즉 68년이 되는 해

단5:31에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친척(삼촌)이다.

이 두 사람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림.

다리오는 바빌론 도시를 정복하고 바빌론의 왕으로 임명되었다(단9:1). 그는 2-3년 정도 통치하였고

결국 메대/엘람(페르시아)은 페르시아로 합병되어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면서 그는 BC 536년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였다(70년 포로 생활, 통합 왕국의 고레스 1년).

도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짐.

메대/페르시아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강의 수위를 낮추고 강바닥을 걸어서 성을 공략함.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은 이미 이사야(사13-14; 21; 47)와 예레미야(50-51)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다.

바빌론은 유대인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함(렘 50:33-34).

바빌론은 사13:19-20 말씀대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에돔(21:11-12)

두마(창25:14; 대상1:30),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 중 하나

이 열둘은 아라비아에 거주함. 그러므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

두마는 유랑하던 이스마엘의 후손 중 한 부류

그런데 이 부분의 두마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에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1절의 세일

왜? 아라비아에 대한 것은 13-17절에 따로 기록이 되어 있다.

11절: 그는 어떤 사람, 세일에서 대언자를 부름

대언자를 파수꾼으로 부름, 파수꾼은 유다에 닥치는 재앙들을 미리 보고 알려 주는 자

12절: 낮과 밤은 번영과 쇠락, 너희 에돔 사람들은 쇠락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반드시 쇠락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에돔은 에서의 이름(창25:30; 36:8), 에돔은 이두매아(사34:5)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에돔 땅 혹은 세일 산에 붙여 준 이름. 지도(*)

이곳은 원래 사해에서부터 홍해의 엘라니틱 만까지 이르는 땅이었으며 길이는 160킬로미터, 너비는 23-30킬로미터였다. 후에 이곳은 유다의 남부까지 확장되어 헤브론에까지 다다랐다. 동부 이두매아의 수도는 보스라였으나 에돔의 원래 수도는 페트라 혹은 셀라였다.

원래 이곳에는 호리 족속이 살았으나 후에 에돔 족속이 그들을 점령하였다(창14:6; 36:21; 신2:12).

진짜 이두매아 사람 즉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다(창36:6-9). 에돔 땅은 처음에 에돔의 족장들이 그들을 다스렸고(창36:15) 후에는 왕들이 다스렸다(창36:31; 출15:15; 민20:14 비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이들의 서쪽 경계에 다다랐을 때 에돔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히 거기를 통과하여 모압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형제 에서와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당부하셨지만(민20:14-21; 신2:4-7; 23:7) 그럼에도 서로 간의 적대 관계는 불가피하였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에돔 사람들은 그와 연합하여 예루살렘의 기초 자체를 없애려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함은 결국 형벌로 이어졌고 대언자들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였다(읍1-21; 렘49:7; 겔25; 35; 말1:3-4).

예루살렘을 정복한 지 5년 뒤에 느부갓네살은 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특히 이두매아를 정복하였다. 그 후에도 마카비 시대에 에돔 사람들은 유다 왕들의 지배를 받았고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받았으며 이 일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후에 에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아들 나바웃의 후손들인 나바티안 사람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흥왕할 때에는 에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고 작물과 가축도 많이 키웠지만(민20:17) 그들의 바위 요새들과(렘49:16) 신들(대하25:20)은 그들의 재물을 지켜 주지 못하였고 결국 그곳은 예언의 말씀대로 사막이 되고 말았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 대왕은 에돔의 핏줄을 지닌 사람이었다.

9. 아라비아(21:13-17)

아시리아 지도, (*) 이곳은 유대의 동남쪽에 있었으며 남북으로 2,300킬로미터, 동서로 1,900킬로미터로 뻗어 있었다. 이곳의 북쪽 경계는 시리아, 동쪽 경계는 페르시아 만과 유프라테스 강, 남쪽 경계는 아라비아 해, 서쪽 경계는 홍해와 팔레스타인이었다. 아라비아는 보통 아라비아 페트라야, 데제르타, 펠릭스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미디안,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13절: 드단, 아라비아 북부 사람들

14절: 데마 땅의 사람들은 드단의 친족 사람들

15절: 도망치는 드단 사람들

16절: 계달 사람들, 아라비아를 대표하는 사람들

17절: 소수가 되어 미약하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면서 동시에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다.

21장에서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에돔과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혼동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자.

이사야서 22장: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구조: 메시아의 평화의 왕국(11), 이스라엘의 구원(12)

13-23장, 10여 개 국가에 대한 심판

바빌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

놀라운 일: 아시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연결 큰길(19:18-25), 천년 왕국의 평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북 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사17장 1-3절은 시리아, 4-14는 이스라엘, 상태 4-6을 보라. 고난을 당하여 얼마 남지 않음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난과 심판(22)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22장 내용이다. 22장은 총 25절

특별히 22장은 히스기야 당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침공에 대한 것이다.

(*) 어떤 부분은 바빌론에 의한 완전 패망에 대한 것으로도 보인다.

아시리아의 왕들: 블,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 예살핫돈, 오스납발(이집트 침공, 에스라4:10)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1191>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의 경고(1-14)

1절: 환상 골짜기, 예루살렘, 환상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혹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셨다(계시해 주셨다)는 의미, 성경에서 환상(vision)은 거의 다 환상 계시를 의미한다.

골짜기, 작은 산들 사이에 위치한 곳, 예루살렘, 올리브 산 등 작은 산들이 도시 자체보다 조금 높다.

그래서 골짜기, 렘21:13, 주가 말하노라. 오 골짜기와 평야의 바위에 사는 거주민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러 내려오리오? 누가 우리 거처로

들어오리오? 하지만

고통과 고난 소동,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2절: 소동, 기쁨의 도시였으나 기근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음(2)

3절: 거주민들이 도망하다가 결박됨

4절: 대언자의 간청, 나를 보지 말라. 유다의 고난

5절: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는 날

6-7절: 엘람, 페르시아 남부

이사야 당시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를 다스림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유다 침공 당시 엘람도 아시리아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침공, 여기의 기르 역시

아시리아에 속한 지역, 어떤 사람들은 모압이라고 보기도 한다.

8절: 유다의 덮은 것, 원래 휘장 덮개 등을 뜻한다. 여기서는 유다의 수치를 덮은 것, 이것이 다 드러난다.

혹은 휘장처럼 유다를 보호하던 요새 도시들

숲의 나무로 만든 집, 왕궁

9-11절: 너희는 앞뒤 문턱상 예루살렘 거주민들, 도시가 여러 군데에서 무너짐, 보시를 복원하고 고침,

그러나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음. 방벽을 쌓으면서도 주님은 신뢰하지 않음(11)

12-13절: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

14절: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

리더들의 불충(15-25): 국가의 고난의 원인

15절: 션나(36-37장), 히스기야 당시 국고를 맡은 사람, 히스기야 왕 다음가는 사람

16절: 권력을 이용해 큰 무덤을 만들(16)

17-19절: 결국 포로로 잡혀감

20절: 엘리야김의 등장, 좋은 종, 내 종(20)

21-22절: 그가 션나를 대신해서 권력을 차지함

23절: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예표(22; 계3:7),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24절: 못은 중요한 도구, 의미: 기대는 것, 의지하는 것

25절: 여기의 그는 엘리야김이 아니라 셉나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가 엘리야김이 되면 22-24절이 의미를 잃는다.

결론

한 국가의 흥망성쇠,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달렸다.

한편 유다의 지도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침공을 막아냈다.

그러나 셉나와 같이 악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한다.

이사야서 23장: 두로와 시돈(레바논)에 대한 심판

메시아의 평화의 왕국(11), 이스라엘의 구원(12), 13-23장, 10여 개 주변 이교도 국가에 대한 심판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등, 오늘 23장은 두로와 시돈(레바논)에 대한 심판, 총18절

두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지도, (*), 레바논,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상업, 재물, 권력의 중심지. 이곳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으므로 성경에 많이 나온다.

두로 37회(25, 12), 시돈(창10:15), 시돈은 가나안의 딸 아들 두로는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준 지역의 경계 안에 있었으나(수19:29) 이스라엘은 이곳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다. 두로는 시돈의 누이뻘 되는 도시였으나 곧 시돈을 누르고 페니키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었다. (*) 두로와 시돈 지도, 약 40km 떨어짐

모세는 이 도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윗 이후로 이곳은 구약에 많이 나온다. 다윗과 두로 왕 히람 그리고 후에 솔로몬 사이에는 동맹 관계가 있었다. 두로의 왕과 백성들은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삼하5:11; 왕상5:1-18; 대상14:1-17; 대하2:3; 9:10). 한편 왕상16:29-33을 보면 아합은 페니키아의 공주(아버지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북 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저주와 재난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두로/시돈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이교주의의 모든 악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역사는 두로가 해양 제국을 만들고 식민지를 개척하여 지중해와 대서양의 많은 지역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페니키아 왕국, 개역성경에는 베니게로 되어 있다. 고쳐야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로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치하며 이로 인한 죄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느부갓네살에 의해 두로가 파괴되는 것은 이미 사23:13; 겔26:7; 27:1-36; 28:1-19; 29:18 등에 예언되어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친히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으며(마15:21) 여기에는 주후 58년경에 기독교회가 세워졌다(행21:3-7; 비교 마11:21-22).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늘날 레바논 땅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 민족이었다. 그들의 배는 지중해 연안을 누비며 수많은 식민지를 통해 전 세계의 부를 풍성하게 공급했다. 두로와 시돈은 이들의 주요 도시였다.

심판 선언(사23:1-7)

1절: 대언자 이사야는 키프로스(키템)에 정착해 있던 스페인(다시스)에서 온 배들에게 두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선원들에게 울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6절). 스페인과 해안 지방, 심지어 이집트의 상인들도 두로의 위대한 해운 산업이 사라지고 지중해 경제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통곡했을 것이다. 유사 사례는 계 17-18장을 참고하기 바라고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바빌론과 두로는 모두 창녀에 비유된다(사 23:16-17).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절한 뒤 곧바로 이어서 13년 동안의 공세 끝에 주전 573년경에 페니키아를 정복할 때 두로의 시민들은 슬퍼하는 난민이 될 것이다(7절).

느부갓네살의 공격 기간에 두로 사람들은 해안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섬을 요새화했고 점차 도시의 자원과 재산을 요새화된 섬으로 옮겼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도시로 옮겼다.

두로의 새 섬은 크게 요새화되고 성벽이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 해안까지 뻗어나감으로써 계속해서 번성했다.

그러나 화려하게 떠올랐던 섬 위의 도시 두로는 대언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뒤에 13년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고 유린당한다.

이와 같은 장기전은 결국 두로의 힘을 약화시킨다.

마침내 옛 도시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붕괴되었고 도시의 성벽은 완전히 파괴된다.

에스겔서는 두로의 멸망의 원인이 교만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겔28:2-8절).

느부갓네살은 섬으로 되어 있는 두로를 BC 586년부터 약 13년 간 포위하였으나 결코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

참고로 그는 두로의 섬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32년에 이곳을 정복했다(겔 26, 29장 참조).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한 두로는 협상을 체결하고 반 자치제의 왕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빌론은 이 도시에 지방 행정 장관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두로의 본토는 당시에 재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섬에 위치한 도시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까지 존속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두로의 옛 도시를 파괴한 지 241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BC 333년 이수스 전투(Battle of Issus)에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하자 시돈과 페니키아의 다른 도시들은 즉각 항복한다. 시돈은 싸우기도 전에 항복해 왔다.

B.C. 332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격퇴하고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 페르시아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두로 사람들은 새로운 지배자 알렉산더를 환영했지만 알렉산더가 섬 도시의 성지로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표명했다.

두로는 섬이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불리했다.

알렉산더는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 시도를 했으나 인근 항구로부터 모인 배들이 바다로부터 습격해 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의 기술 장관 디아데스(Diades)와 함께 대담한 독길 작전을 계획하고 옛 도시 두로에서 목재와 암석들을 가져다가 육지에서 섬까지 길이 700m 폭 60m의 방축을 쌓고 키프로스 섬과 페니키아 전역에서 기술자들을 모아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제작하게 하여 일부는 방파제 위에, 일부는 기마부대의 수송선 위에 배치시켜 놓는다.

두로 사람들은 적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다 동원하여 악착같이 방어했다.

그들은 불화살을 쏘아 적의 선박을 불사르기도 하고 성벽 위에서 거대한 돌덩어리를 굴러 떨어뜨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닻줄을 자르는 임무를 띤 잠수부를 비밀리 침투시키기까지 했다.

두로 사람들은 계속되는 공세에도 오랫동안 버티었지만 마침내 독길이 다 만들어지고 알렉산더 대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성벽을 넘어 진군하여 도성을 점령한다.

알렉산더는 요새 도시의 두터운 성벽을 마침내 허물어뜨릴 수 있었는데, 이로써 에스겔 26장 12절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다.

이 때 두로 사람 8,000명이 살육을 당하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

두로의 함락은 포위 공성전에 난공불락이었던 성채 도시 국가의 조종(吊鐘)을 울렸다.

고대 옛 두로는 도시의 위치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훼파됐다.

<https://j.breaknews.com/13413>

심판에 대한 설명(8-14)

“누가 두로를 대적하여 이 계획을 세웠느냐?” (8절 전능하신 주님! 이집트(19:23)와 바빌론(14:27)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두로를 심판하려고 계획하셨다. 주전 689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도시 바빌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새롭게 부활한 바빌론에 의해 주전 573년경에 정복을 당할 것이다.

13절: 여기의 아시리아 사람은 최초로 지 이역을 건설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니므롯(창10:10), 바벨탑, 여기서 앗수르가 나가서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 등을 세운다. 여기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거하는 곳, 그래서 원래 아시리아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시조이다.

두로의 교만(9절)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는 죄였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전망(15-18).

15절: 결국 멸망하기 전에도 두로와 시돈은 70년 동안 무역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역사에 따르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700년에서 기원전 630년까지 페니키아 무역을 제한했지만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자 두로와 시돈은 사업을 되살렸다고 한다. 대언자는 부활한 도시를, 관심을 끌기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하는 늙은 창녀에 비유했다. 해운업이 예전처럼 쉽거나 수익성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18절에서 이사야는 두로의 재물이 그들을 위해 쌓이지 않고(슥 9:3 참조)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았다.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 구분되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암몬(렘49)에 대한 심판, 페르시아(이란) 엘람에 대한 심판도 기록되어 있다(렘 49:34-39).

이 13-23장(열한 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맺들은 비록 느리게 같지라도 아주 작게 간다"(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번역).

둘째, 하나님은 특히 교만의 죄를 미워하신다. (사 13:11, 16:6, 23:9, 잠 8:13 참조) 민족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부와 군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분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라는 것을 보여 주신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민족들도 심판하신다. 당시에는 유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 개의 이방 나라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도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롬2:12).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과 희망의 말씀을 주신다. 바빌론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돌보실 것이다(사14:1-3, 32).

모압은 예루살렘의 성소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그곳에 메시아의 왕좌를 세우실 것이다(16:5).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유대인의 원수이지만 언젠가는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19:23-25). 두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국내 또는 국제 정세가 아무리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왕좌에 계심을 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민족들은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하늘에 앉으신 분은 웃으실 것이다"(시2:4). 하늘과 땅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마 11:25-30). 그러므로 위로를 받기 바란다.

이사야서 24장: 온 땅과 예루살렘에 대한 7년 환난기 심판

온 땅에 대한 심판(24-27장)

13-23장, 유다 주변 10여 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4-27장은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를 통해 주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멸절시킴(계6-19장)

이사야의 대언 내용의 일부: 북 왕국에게는 아시리아의 침공, 남왕국에게는 바빌론의 침공

이런 모든 것은 국지적 침공으로서 전 세계적인 심판의 예표, 주의 날, 7년 환난기, 특히 후반부 3년

반의 대환난(마24; 막13, 계6-19, 요엘서 1-3장, 스가라서 12-14장)에 대한 예표

대언서의 특징: 3중적 성취, 이사야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멀리 재림 때의 일

24-27장은 7년 환난기 천년왕국 땅의 일 묘사, 마귀와 유대인들의 운명

오늘 < > 24장 온 땅에 대한 7년 환난기 심판, 총 23절,

마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온 땅에 대한 심판(1-5)

1절: 심판의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땅을 만드신 뒤 땅에 모든 것을 채워 넣기 전의 모습(창1:2)

(렘4:23),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재창조 아니다!

여기의 땅은 지구이지만(4절의 세상), 이런 심판이 집중적으로 떨어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기도 한다(13절의 land)

아무도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한다(2-4).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5),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땅과 다른 창조물이 신음하고 있음(롬8)

이미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음; 노아의 대홍수(창6:5)

영존하는 언약(5): 아마도 노아 언약(창8:20-9:17)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신한다(16절)

환난기 심판의 상황(6-13)

6-9절: 환난기 심판의 결과, 기쁨이 사라진다.

10절의 혼돈의 도시, 여러 의미, 1. 세상의 도시들을 대표하는 한 도시, 2. 예루살렘, 혹은 2. 바빌론

10-11절: 어디가 되었든지 7년 환난기에 세상과 이스라엘 모두 심판을 받는다.

13절 그럼에도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14절: 여기의 그들, 소수의 남은 자들

15절: 1. 소수의 남은 자들의 말, 2. 대언자 이사야가 백성에게 하는 말

그들은 불 속에서 즉 불 같은 고통을 겪으며 그 결과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15).

16절: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유대인들 혹은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여기의 나는 이사야 대언자, 환난기 고통을 바라보고 탄식함(유다와 예루살렘의 쇠약함)

17-18절: 7년 환난기, 17절 땅의 거주민, 땅에 대한 심판,

18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린다(18). 노아의 대홍수(창7:11-12)

주님의 말씀: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7-42). 차이: 마지막 때에는 불이 쏟아진다(벧후3:5-7)

19-20절: 땅이 흔들리고 해체된다(19-20). 21-22절: 교만한 자들 심판

23절: 천체들의 변화(마24:29; 계6:12-17; 율2:30-31),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며(마24:29)

최종 결과: 주님의 승리와 시온 산 통치(23; 슥14:4, 9, 20)

결론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죄, 타락한 역사 드디어 종말을 고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이사야서 25장: 7년 환난기 심판 때에 이스라엘이 보존됨

24장, 온 땅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혹독한 환난기, 마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25-26장은 큰 환난에서 보존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노래(12장 참조)

오늘 < > 25장, 총12구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보호(1-5)

1절: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2-3절: 결국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4-5절: 주님의 이스라엘 보호: 노아, 이집트의 이스라엘, 라합과 그녀의 집안, 바빌론 포로 생활 당시
소수의 유대인 귀환,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교회 보호(마16:18), 심판에서 교회 보호: 휴거
큰 환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심(26:20-21)

승리의 잔치(6-12)

6절: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심, 구약에서 잔치는 늘 왕국의 도래 상징

7절: 주님께서 덮개와 베일을 제거하심: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뒤덮은 암막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 준다(고후3:14-18; 고후4:3-4).

환난기 뒤에 마귀의 무저갱 행(계20:1-3), 그 결과 그들이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된다(슥12:10).

8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신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없애신다. 눈물을 없애신다.

고전15:54, 계7:17; 21:4

9절: 이때에 이스라엘의 찬양

모압의 수치(10-12)

맨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침입, 이 국가 중 하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국가
중 하나가 당할 수치의 예를 들(10)

결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다.

롬11:1, 11-12, 25-29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런 것 버리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God be with you, God bless you

이사야서 26장: 재림 전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

미래 일들의 개요

교회 시대, 휴거, 7년 환난기, 천년왕국(마귀 무저갱), 새 하늘과 새 땅(*)

재림 전의 7년 환난기, 극심한 고통(사24장)

땅이 흔들리고 해체된다(19-20). 천체들의 변화(23)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린다(18): 노아의 대홍수 때처럼(창7:11-12)

최종 결과: 주님의 승리와 시온 산 통치(23; 슥14:4, 9, 20)

이스라엘의 감사 찬양(25장)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신다(8).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없애신다(8). 눈물을 없애신다(8)

오늘 < > 26장 총 21절

구원의 노래(26장)

1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노래(1), 의와 화평(평화)의 노래(32:17)

peace 26:3, 12; 27:5(2번, 화친)

화평(평화)은 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롬5:1). 의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가능하다(롬3:21-31).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의 왕, 평화의 왕(히7:1-3)

이 부분에는 '그 날에'가 여러 차례 나온다(26:1; 27:1-2, 12-13 등).

모두 주의 날, 특히 천년왕국 시대

이때에 주 여호와만 높여지신다(시83:18).

모든 도시는 낮추어지고 시온만 솟아오른다(사2:1-5).

2-3절: 예수님을 신뢰한 자들만 여기로 들어온다. 의, 화평, 완전한 화평

3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 외우면 좋다.

4절: 권면의 말씀, Very good

5-7절: 주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신다.

8절: 믿음을 가지고 환난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9절: 결국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통해 의를 배운다.

그러나 환난기 때 사람들의 다수는 회개하지 않는다(계9:20-21).

10절: 사악한 자는 의를 배우지 않는다.

11절: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자들, 불 심판

12절: 오직 주님을 신뢰한 자들만 평화를 얻는다(12). 평화의 천년왕국

13절: 이스라엘 역사 요약(13), 다른 자들이 무려 2,600년 이상 이스라엘 지배, 이방인들의 때

눅21:24,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14절: 그러나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자들은 심판을 당해 죽고 만다.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심

16절: 환난기 때 이스라엘의 회개(16), 슥12-13장

17절: 환난기 고통

18절: 이때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마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환난기 끝에 이스라엘 성도들의 부활(19)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첫 열매(그리스도), 수확(휴거 시점의 신약 성도), 이삭줍기(천년왕국 전의 구약 성도, 아마도 환난기 성도), 단12:1 환난, 2절 부활, 13절 다니엘 부활, 환난기 끝

둘째 부활: 1000년 왕국 이후, 악한 자들의 부활(계21:12-15), 크고 흰 왕좌 심판

20-21절: 흑독한 7년 환난기, 주의 격노가 부어지는 때
27장에는 드디어 마귀의 패망,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의 도래 등

결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완전한 화평,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에게 온다.

26:3-4절은 늘 외우면 좋은 구절,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한다.

이사야서 27장: 사탄 마귀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24-27장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7년 환난기 심판

24장 심판 상황, 25-26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받음, 하나님 찬양

오늘 27장: < >, 인류를 기만하던 자 마귀의 패망,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의 도래

27장은 총 13구절로 되어 있다.

마귀의 패망과 이스라엘 회복(27장)

1절: 마귀가 죽는다(용 죽음). 죽음의 의미: 임재에서 분리되어 떠나는 것

리위야단(시74:13-14), 용(계12:9), 1000년 동안 무저갱(계20:1-3),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남

2절: 이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원(2-11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번영

과거에는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함(사5:1-7). 사5장과 비교해 보라.

3절: 주님의 약속

4절: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불태우리라.

5절: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나와 화친해야 한다.

일단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함(4-5), 슥13:8-9, 사27:9

6절: 이스라엘의 번영

7-8절: 이스라엘의 보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멸절하지는 않으신다.

9절: 이것은 8절의 징계 혹은 9절 끝의 우상들 멸절

10절: 요새 도시, 25:2의 이방 도시들 혹은 예루살렘 혹은 마지막 도시 바빌론

11절: 그곳의 가지들이 부러지고 떨감이 된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12-13절: 이스라엘의 회복

12절: 유프라테스 강, 이집트까지 천년왕국 사19:24-25

13절: 아시리아 북왕국 멸절, 이스라엘의 열 지파 유대인들 아시리아로 끌려감, 이집트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

사66:19-24, 드디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한다.

결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귀,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이루어진다.

미래 일들의 개요. 7년 환난기 전 교회 성도들 휴거, 7년 환난기, 환난기 성도들, 예수님의 지상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 뜻에 따라 우리에게는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식이 있다.

살전4:16-18,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18)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사야서 28장: 남왕국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경고

13-23장, 유다 주변의 10개 이교도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4-27장, 7년 환난기, 천년왕국, 마귀와 유대인들의 운명

28-31장, 다시 이사야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대언서: 삼중 예언, 대언자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재림

오늘 < > 총 29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평화보다는 분쟁과 더 많이 연관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중동 지역에서 우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시122:6)고 권고했다. 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사52:7, 66:12). 따라서 시편 기자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28-31장에는 주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춘 다섯 번의 "화가 있을지어다"(28:1; 29:1,15; 30:1; 31:1)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섯 번째 '화가 있을지어다'는 33:1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심판의 '화' 사이에는 회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이 산재되어 있다. 이사야는 유다의 통치자들이 '권력 정치'와 국제 조약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한다.

1.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1-6)

모든 독실한 유대인처럼, 이사야는 거룩한 도시, 다윗의 도시, 하나님의 거처인 예루살렘을 사랑했다(시 122편과 137편). 하지만 이사야는 그 도시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다.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였다.

그는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시작했다(사28:1-6).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핵심: 에브라임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절될 것이다. 그 다음은 유다이다.

1-2절: 에브라임 특히 그 수도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도시요, 국가지만(1) 교만으로 인해 멸절된다(1). 이들의 상태는 술 취함으로 표현된다(1, 3).

이웃 나라의 몰락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는 유다가 그 다음 차례였다. 북왕국은 풍요로운 골짜기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여기서는 교만의 왕관, 1절)처럼 자리 잡은 수도 사마리아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들이 요새 도시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웠다. 사마리아는 사치와 쾌락을 즐기며 통치했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도 대언자도 그들의 술 취한 모습에 놀랐다(1절).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기쁨의 원천이었다(삿9:13, 시 104:15). 율법은 술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신21:18-21, 잠 20:1, 23:20-21, 29-35). 대언자 아모스는 유다와 사마리아 백성들의 사치스러운 방종을 비난했고(아모스 6:1-7), 이사야도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해 호통을 쳤다(사 5:11-12, 22).

3-4절: 사마리아는 아름다움을 자랑했지만, 그 아름다움은 다가오는 폭풍우 앞에서 결코 견딜 수 없는 시든 꽃(28:1, 4)처럼 사라지고 있었다(4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폭풍을 보내실 것이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는 바람과 비와 우박과 홍수로 인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것은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만큼이나 쉬울 것이다!

5-6절: 심판의 날에,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관"과 "아름다움의 왕관"(5절) 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5-6절).

2.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7-29)

7-8절: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아니다. 유다도 이들과 같은 운명이다(7-8).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가 라이벌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대언자는 유다가

사마리아와 같은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의 축하는 오래가지 못했다(28:7-8).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도시를 돌아다니고 토사물로 뒤덮인 식탁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7). 백성을 향한 그들의 충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술에 취한 망상에서 나온 것이었다(엡 5:18 참조). 그들은 포도주를 삼켰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정복당했다"(사 28:7).

9-13절: 그러나 교만과 술 취함만이 유다의 모든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9~13절). 9-10절은 술에 취한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사야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다. "그분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은 대언자를 통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린아이의 어휘를 사용한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를 아이들로 아느냐? 왜 아이들의 단순한 어휘로 같은 말을 반복하느냐?(10절, 14절 참조)

10절: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것들을 반복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6:9-10, 그들이 깨닫지 못하므로 오늘날 사회는 종종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사람들은 지적 교만에 취해 겸손한 증인들이 전하는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비웃는다(고전1:18~31). 대언자 아모스가 왕의 예배처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종교 엘리트가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농부였기 때문이다(아모스 7:10-17).

11절: 극도로 비판적이며 종교적으로 술에 취한 군중에게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너희가 너희의 언어로 하는 나의 간단한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아시리아 군대(11절)를 보내실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수모를 당함

이런 일은 에브라임과 유다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주전 721년에 남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주전 709년에는 유다 땅을 황폐화시킨 후 예루살렘 성문까지 쳐들어왔다.

고전14:20-22의 타언어 쓰임

12-20절: 이것은 이사야의 세 번째 선언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만(사 7:4, 8:6-8),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들으려)하지 않는다(28:12-20). 대언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13절: 그들은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외국으로 쫓겨남. 그리고 거기서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아이들처럼 더듬거리며 교훈을 받기 시작함(13).

또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에 있었다(15, 18절). 유다는 아하스 왕 시대에 아시리아와 비밀 조약을 맺었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집트에 도움을 청했다(30:1-5, 31:1).

그러나 "사망과 지옥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패할 운명이었다.

여기서 지옥과 사망과의 합의란 자기들이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뜻함(15, 18) 적들은 홍수, 폭풍, 채찍(재앙)처럼 다가올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멸망하고 유다는 살얼음판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15절: 그들의 피난처는 거짓이다(15).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 선을 악, 악을 선(사5:20-21)

그들이 만든 침대(동맹)는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었고(20), 그들이 만든 덮개(이불, 조약)는 그들을 덮지 못했다(31:1 참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만세 반석"(26:4; 8:14; 17:10)인 검증되고 참된 기초석(28:16)에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며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석된다(벧전2:4-7, 롬9:33, 막12:10, 시118:22 참조).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저기로 서둘러 다니며 동맹을 맺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시도는 수치와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롬10:11). 어설픈 거짓으로 덮는 것보다 견고한 바위가 더 나은 보호책이다!

21-29절: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것이다(사 28:21-29).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라

고 그들은 주장했다. 21절: "다윗이 브라십 산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한 것(삼하 5:17-21, 바알 브라십)이나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을 상대로 승리한 것(요 10장)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다윗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경건한 지도자였다.

이사야를 비웃던 반대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분은 적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과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다(21).

이전에는 원수들 격파, 이번에는 반대로 유대와 이스라엘 격파
그러므로 주의해야 한다(22).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구상하고 행한다: 쟁기질, 파종, 하나님도 마찬가지(24-25). 하나님도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 그분은 어떤 도구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26).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신다(27-28).

그 결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된다(29).

롬11:33-36

이사야서 29장: 주께서 예루살렘을 낮추시고 복된 미래를 보여 주심

지난 몇 장: 이스라엘에 있을 미래 일들, 7년 환난기(26:20-21), 구약 성도들의 부활(26:19), 리워야단의 죽음(27:1), 이스라엘의 회복: 좋은 포도원(27:2)

28장: 그 당시 유다의 상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술 취한 상태(7), 단순한 것을 일일이 가르쳐도 깨닫지 못함(10), 주님의 말씀: 그들의 말로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교도들의 땅에 잡혀가서 교훈을 받게 된다(11).

고전14:21-22의 타 언어 쓰인,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시온의 모퉁잇돌이신 메시아, 주님을 신뢰해야만 한다(16).

오늘 < > 29장 총 24절

주께서 예루살렘을 낮추심(1-14)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암호명이며 "하나님의 사자"(Lion)라는 뜻이다. 원래 사자는 아시리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대언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이고, 예루살렘은 이름만 하나님의 사자이다." 그러나 히브리 주석가들은 이 단어가 번제물이 희생되던 '제단'을 의미한다고 한다(겔43:15). "그것[예루살렘]이 내게 아리엘[제단]과 같으리라"(사29:2). 다시 말해, 그곳은 살육의 장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 도시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사자는 포효하여 적을 놀라게 하는 대신 흙 속에서 속삭일 뿐이었다(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아들이는 대신(1절), 도시 전체가 제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제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을까? 주전 721년 아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멸절, 주전 709년, 아시리아가 승승장구하며 유다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의 점령할 뻔했을 때 하나님은 제단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지나 겨를 날리듯(6절) "갑자기"(29:5) 순식간에(37:36) 아시리아를 물리치셨다.

1-5절의 너는 유다

6절의 너는 아시리아.

이 징계가 유다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야 했지만,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들은 다시 동일한 죄로 돌아갔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사람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멸망시켜 수천 명의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일"을 하셨고 자신의 백성이 적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도시는 참으로 제단과 같았고 수천 명이 적의 진노에 희생되었다.

7-8절: 그러나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세상의 군대에 의해 공격받을 마지막 때를 역사의 고속도로 아래에서 멀리 내다보았다(7-8절, 슄 14:1-3). 어떻게 아는가? 한 민족이나 국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침입하므로, 7-8절은 다시 7년 환난기의 끝 부분, 아마겟돈 전쟁(계14:14-20; 16:13-21). 도시가 곧 함락될 것 같고 적군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19:11-21). 적의 승리는 사라질 것이다.

9-12절: 유다가 몰락하는 이유

술 취함(9), 대언자들과 선견자들의 무기력과 무능력(10),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없다(11-12)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동일하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사 29:13). 그들은 외형적인 예배 형식을 따르고 매년 절기를 충실히 지켰지만(1절, 1:10절 이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마15:1-9).

성전에 가는 것이 늘 하는 일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율법을 이해할 수 없도록 "영적 실명"을 보내셨다(10-11절). 이러한 실명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롬11:8, 고후 3:13-18).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눈이 멀어 거짓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요한복음 9:39-41 및 살후 2:1-12)

참조).

또 다른 이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본질의 이해와 실천이 없음(13)

마음이 멀어짐(사1:1, 10),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마15:1-9, 우리는 어떤가?)

그 결과 주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심(10절, 롬11:8; 고후3:13-18)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사라진다(14). 단순한 것들도 이해하지 못함

이들이 하는 일: 1.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음(15)

2. 일들을 뒤집는다(16).

3. 창조자에게 대툼(16)

주께서 복된 미래를 보여 주심(17-24)

사29:17-24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정치 전략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실 것이다. 황폐한 땅은 낙원이 되고, 장애인은 치유되며, 버림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법정에서 불의를 행하는 비웃는 자나 무자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창시자인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들의 수많은 후손들이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유다가 이집트와 같은 연약한 민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시고 그들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다가 곤경에 처했고(창12:10-20), 이삭은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저지당했다(26:1-6). 하나님은 야곱이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곱을 돌보셨고, 야곱의 자녀들도 돌보실 수 있으시다. 한 민족이 위대한 영적 유산을 잇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천년왕국의 일들

1. 레바논의 변화(17; 사40:4), 레바논 산, 2500-3000미터(사40:4,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2. 지혜의 회복(18)

3.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19-20)

4. 악한 자들 궤멸(20-21)

5. 야곱의 강건함(22-24), 회복(롬11:25-27), 33-34

6.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의 확립으로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30장: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음

지난 시간,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음.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은 면했지만 그 뒤 바빌론에 의해 정복됨. 이런 와중에 주님은 천년왕국의 복된 미래를 보여 주심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책망을 받음(30:1-17)

이런 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신뢰함(2)

오늘 < >, 구체적인 사례, 총33절

이 네 번째 '화가 있을지어다'는 유다 민족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된다(1-17절). 이사야는 민족에 대한 이 고발로 대언을 시작했고(1:2, 20, 23), 같은 말로 대언을 마친다(63:10; 65:2).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연약한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다. 옛 지도자들인 모세(민27:21), 여호수아(수 9:14), 다윗(삼상 30:7-8), 여호사밧(왕상 22:7)과는 달리 말이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이런 그림자가 거대한 아시리아 군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1).

결국은 그것이 그들을 망칠 것이다(3, 5).

이집트의 도움은 허사이다(7).

아브라함 이집트로 갔다가 아내를 잃고 죽을 뻔함(창12:10-20).

성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곳, 마귀의 국가

그런데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의 문화와 금송아지 숭배를 그리워한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이집트로 가려고 한다. 유대인들의 DNA 문제

6-7절: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보물을 사들고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이동하던 짐승의 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다(사 30:6~7). 짐을 짊어진 짐승들이 네게브(남쪽)의 험난하고 위험한 지형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집트인들이 헛되이 도울 것이다!"라고 외쳤다.

주님의 판단: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다(8-9).

이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에게 압력을 넣는다(10). 심지어 악한 말을 하게 한다(11).

8-11절: 유다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8~11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이다"라고 서판에 적으라고 하셨다(9절). 이사야가 이 서판을 들고 예루살렘을 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거짓 대언자들의 "듣기 좋은 말", 즉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설교를 원했다. 오늘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렐6:14, 8:11, 왕상 22:1-28 참조).

이로 인한 주님의 심판(12-13). 철저한 심판(14)

12-14절: 이사야는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했다: 그들의 보호벽(담)이 갑자기 무너지고 토기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사 30:12-14). 아시리아가 그 땅을 침공했을 때 이집트는 그 별명에 걸맞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 주셨고, 그 이유는 오직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다(37:35-36).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말을 타고 도망칠 수 없었고(30:16-17, 신 17:16), 적군 한 명이 유대인 천 명을 겁에 질리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17절)!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가! (신32:30 참조)

하나님의 권고(15)

5절: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는 것이었지만(사 30:15; 8:6-7; 26:3; 28:12), 그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고 하고는 뒤로 빠져 반역함(16)

그 결과 급속한 패망(17)

반역에서 회복으로(18-26)

18-26절: 이제 대언자는 반역의 주제에서 회복의 주제로 전환한다(30:18-26).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갈망하신다."라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다(18절).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기다리시는 하나님(18), 눅15장의 탕자의 아버지

19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회복되어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될 미래의 날을 묘사했다. 그들은 해방된 전쟁 포로와 같을 것이다(19절). 그들은 비웃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우상을 버릴 것이다. 땅이 회복되고 다시 번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한 것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실 것이다(26절, 1:5-6 참조). 25절의 '큰 살륙의 날'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이다(계19:11-21).

다시는 울지 않는다(19), 역경 이후 다시 살려주신다(20). 올바른 길로 다닌다(21). 우상 멸절(22) 주님의 축복(23-25) 궁극적인 축복(26), 해와 달의 변화(26절, 사60:19-20), 다시는 해가 낮에 네 광체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밝게 하는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체가 되고 네 하나님께서 네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고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체가 되고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사30:27-33)

30장의 마지막 주제는 아시리아에 대한 보복(사 30:27-33)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선포이다(31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사용하셨지만, 다윗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사야는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30절에서 보듯이 자신의 분노의 격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과 흠어지게 하는 것과 폭풍우와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고 하신다.

지옥이 바빌론 왕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사14:9절 이하), 도벳은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되었다(33).

도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곳으로 몰락 승배자들이 자녀를 제물로 바친 장소였다(왕하16:3; 21:6; 렘 7:31-32; 19:6; 11:1-14:22). 이것은 요시야에 의해 더럽혀져(왕하 23:10)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뜻의 게벳힌놈에서 유래한 "게헨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곳이 바로 도벳의 위치였다. "게헨나"는 신약성경에서 "불 지옥"을 뜻하는 단어이다.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을 위한 장례식 장작더미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가!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의 패배에 크게 기뻐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패배를 기념하는 유월절에 기뻐하는 것과 비슷했다(29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32절의 "작은북과 하프"는 홍해에서 미리암과 유대 여인들의 노래(출15:20-21)를 떠올리게 한다.

이사야서 31장: 유다여, 이집트와 아시리아 등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28-31장에는 주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춘 다섯 번의 "화가 있을지어다"(28:1; 29:1,15; 30:1; 31:1)가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섯 번째 '화가 있을지어다'는 33:1에서 발견되며, 이러한 심판의 '선포, 화가 있을지어다' 사이에는 회복과 영광에 대한 약속이 산재되어 있다. 이사야는 유다의 통치자들이 '권력 정치'와 국제 조약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한다.

오늘 < > 31장은 총 9절

31장의 이 다섯 번째 '화가 있을지어다'는 이사야가 이미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백성들에게 쉬운 말로 "반드시 혼계 위에 혼계가 있어야 하고 혼계 위에 혼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한다"고 (28:10)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하듯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

이집트로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1-3)

1-3절: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말의 다리와 병거의 바퀴를 믿었지 주님의 손길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신17:14-16) 솔로몬은 이 경고를 무시했다(왕상10:28-29).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유혹이었다(출13:17; 14:11-12; 민11:5,18; 14:3).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3).

우리가 의지하려는 사람의 모든 것, 대부분의 경우 헛되다. 신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4-8)

4-5절: 대체 왜 주님께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자가 양 떼와 그 목자를 두려워하는가? 주께서 아시리아 사람들과 싸우신다(4). 독수리가 동지의 새끼들 위를 맴돌 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아시리아를 덮치시고 독수리처럼 내려치실 것이며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는 전멸했다(사37:36).

6-7절: 주님의 회개 촉구

8-9절: 아시리아는 나에 의해 멸망한다. 주님에 대한 묘사 9절 끝 부분

결론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면 절약할 수 있었던 돈과 피할 수 있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들의 모든 정치적 협상은 헛된 것이었고 그들의 조약은 무가치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말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적들의 도전에 직면할 때 세상이나 육신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고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만 순복해야 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사26:3

어떤 사람의 말: 믿음은 머리 굴리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한 말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이다.

이사야서 32장: 메시아 왕의 통치와 천년왕국

이사야서는 여러 주제를 다룬다.

13-23장, 유다 주변의 10개 이교도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4-27장, 7년 환난기, 천년왕국, 마귀와 유대인들의 운명

28-31장, 다시 이사야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이사야서는 66장, 1부(1-39장)와 2부(40-66장), 1부에서 앞날의 예언을 다루는 부분은 35장까지이다. 36-39장은 히스기야 당시 아시리아의 산헤립 침공, 히스기야의 치유 등을 다룬다.

32-3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의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볼수록 우리를 초대한다. 이 네 장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신성한 영감을 받은 계시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위어스비 목사님의 강해, 너무 훌륭하다.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 오늘 < > 32장 총 20절

1. 왕이 통치할 것이다(사32장)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초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국가였지, 인간 통치자가 이끄는 군주국이 아니었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은 왕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삼상 8장, 신 17:14~20 참조). 사울이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왕조를 세우지 않으셨다(창49:10). 실로가 오실 때까지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이스라엘의 왕좌를 위한 왕조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위한 혈통을 모두 세운 사람은 다윗이었다(삼하7장).

모든 독실한 유대인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마22:41-46).

1절: 사32:1에서 이사야는 '왕'에 대해 기록하며 33:17에서는 그를 '왕'이라고 부른다. 33:22절에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 또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확신 있게 말해야 한다. 나다나 엘처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요1:49)

이사야 시대의 악한 통치자(사1:21-23)와는 달리 메시아는 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32:1, 16; 33:5; 9:7; 11:1-5 참조).

2절: 또한 왕은 백성을 위한 피난처 바위와 같고(8:14; 17:10; 26:4; 28:16) 사막의 시원한 강과 같을 것이다(8:5-8; 33:21; 41:18; 48:18; 66:12).

다윗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삼하 23:3-4).

3-4절: 사32:3-4은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묘사한다. 이사야는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했지만(6:9-10, 29:10-12), 왕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들을 뿐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29:18 및 42:7 참조). 이는 민족이 새 마음을 품고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렘31:31-34).

렘36:26,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5-6절: '비열한 자'(사32:5-8)는 백성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간신 또는 악당을 말한다. 이사야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은 '부자와 유명인'을 존경했다. 이러한 '유명인'의 인격과 행동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들은 돈과 명성,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눈에는 중요한 존재로 보였다. 그러나 왕국에서는 그런 속임수가 없을 것이다. "부유한 사기꾼을 두고 관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누구나 그를 보면 알아볼 것이고 위선자는 아무도 속이지 못할 것이다."(5-6절).

7-8절: 그들의 성격과 동기가 드러나고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경건한 방법도 드러날 것이다(7절).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

는 지도자들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는 고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9-14절: 유다의 이기적인 통치자들 뒤에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안일하고 자만했던 예루살렘의 '귀족 여인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다(9-14절; 3:16-26; 아모스 4:1-3; 6:1-6 참조). 이사야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땅과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14).

그 일은 주전 710년경 산헤립의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여 땅을 황폐화시켰을 때 일어났다. 지난 두 시간(701년경이 아니라 710년경이다). 예루살렘에 갇힌 유대인들은 미래의 수확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이사야는 그들을 위한 말씀을 전했다(사37:30-31). 그러나 포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세속적인 여인들은 사치품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희생해야 했다.

15-20절: 또 다시 메시아 왕국 설명, 32:15-20에서 대언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평화와 번영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원전 710년경 예루살렘이 구출된 이후나 남은 자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예언을 미래의 왕국에 적용해야 한다.

대언서: 삼중 예언, 대언자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재림

15절: 성령님이 그 땅에 부어짐으로 인해 그 땅에는 의가 있어서 평화와 풍요가 있을 것이다(을2:28-32, 슄12:10, 겔 36:26-27). 땅은 매우 생산적이어서 광야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밭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숲처럼 될 것이다. 유다는 번영하고 원수들은 황폐하게 된다.

16-17절: 메시아 왕국은 의화 평화가 지배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없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7절의 핵심 단어는 의이다(롬5:1, 약 3:13~17).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의 선물을 받으면 마음에 평화를 누리며 서로 화평할 수 있다.

당시 유다의 경우에도 유다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안전과 평안, 확신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사 30:15-18, 32:17-18).

18절: 백성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 적군의 도시, 아시리아의 니느웨, 후대의 음녀 바빌론

20절: 메시아 왕국 백성의 복

결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 메시아 왕국

현시대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며 기대하는 것, 메시아의 천년왕국

롬8:19-22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20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세상이 이사야서 9장, 11장에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천년왕국 이전에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에 따라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자.

이사야서 33장: 아시리아 왕과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출됨

32-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의 네 가지 사건이 있다. 이 네 장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신성한 영감을 받은 계시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32장: 의로 다스리는 왕(1), 자연계의 변화(15), 판단의 공의 집행(16), 의와 화평(17)

오늘 < >, 33장, 총 24절, 이것은 미래 적그리스도의 파멸과 메시아의 승리를 보여 준다.

1절: 이것은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화가 있을지어다"이며(28:1; 29:1,15; 30:1; 31:1), 유다에 대한 산헤립의 배반으로 인해 산헤립에게 내려진 심판을 다룬다.

여기의 너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 아시리아의 산헤립(사36-37장)

장기적으로는 환난기의 적그리스도, 대환난기에서의 구출

히스기야 왕은 불신앙으로 아시리아 사람들을 주의 집과 왕의 집의 보물로 "매수"하려고 했지만(왕하 18:13-15), 산헤립은 합의를 깨고 유다를 침공했다.

그는 도둑이자 배신자이자 폭군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그는 민족들을 배신했으므로 그들도 그를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죄인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갈6:7).

2절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경건한 남은 자들의 기도이다. 이사야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했고(30:18-19), 몇몇 경건한 사람들은 그 약속을 기도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37:35) 그리고 믿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살려 주셨다. 기도하는 소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3절: 주님의 개입

4절: 아시리아는 자신의 힘과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랑스러워했다. 아시리아 군대는 때때로 때처럼 온 땅을 휩쓸었지만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유다는 죽은 아시리아 군인들, 185,000명의 옷을 벗길 것이고 산헤립은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주장한 자기 신의 신전에서 암살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36-38장).

5절: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리아의 패배로 높임을 받으셨다(33:5).

6절: 우리는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구할 때만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의 너는 유다 혹은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 성전 보물을 가져가 산헤립에게 뇌물을 주려고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왕하18:13-16),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배"(사33:6)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불신은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7-9절: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 당시 유다의 상황은 암울했다(7-9절). 유다의 용감한 군사들은 도시들이 차례로 적에게 함락되는 것을 보고 울었다. 유다의 공식 사절단도 협상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울었다. 길은 위험했고, 밭과 과수원은 폐허가 되었으며, 탈출할 방법도 없었다.

10절: 그러나 이때에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라'(10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1-12절: 이사야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몇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온갖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겨와 짚을 낳을 것이고, 그들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군대는 공격하기 위해 혈떡였지만 그들의 뜨거운 입김은 불이 되어 죽은 뼈나 잘린 덩불처럼 그들을 파괴할 뿐이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 곧바로 철저히 심판하신다.

13절: 예루살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고,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와 위대함을 인정해야 했다. 일부 학자들은 시편 126편(총6절)이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히스기야가 쓴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게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 14-16절: 예루살렘의 기적적인 구출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두려움과 확신을 가져다주었다(사 33:14-16).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14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185,000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사 10:17, 히12:29), 14절의 '그 삼키는 불'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 15-16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고 복을 주실지 묘사한다. (시15편과 24편도 참조하라) 이러한 품성은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예루살렘의 많은 종교인들은 그들의 종교가 외형적인 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사29:13). 이사야는 기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출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만 진정한 안전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17-24절: 다시 메시아 왕에게 초점이 옮겨진다. 대언자는 종말에 대한 환상을 들어 메시아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언젠가 거룩한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모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리허설'에 불과했다(슥14:1-9).
- 17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에게 없다"(사53:2)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보고 믿으면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슥 12:3-13:1, 시 45:1).
- 18-19절, 아시리아에게 포위를 당하는 시련과는 대조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유대인들은 공포를 경험하지 않고 오만한 군사들을 보지 않으며 이방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사33:18-19).
- 20절: 예루살렘은 움직이지 않는 장막과 같을 것이다(54:1-3 참조).
- 21절: 노 젓는 큰 배는 침략 군대의 배를 말한다. 다시는 이런 배가 예루살렘 근방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강 근처에 지어지지 않은 고대의 몇 안 되는 대도시 중 하나이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달라질 것이다(겔 47장). 물론 강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를 상징한다(사 48:18, 66:12, 시 46:4).
- 22절: "사법, 입법, 행정 등 정부의 모든 기능이 메시아 왕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때에 그분의 백성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 23절: "네 밧줄들이 풀렸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돛대를 충분히 강하게 할 수도 없었고 돛을 펼 수도 없었도다", 예루살렘은 거의 침몰할 뻔한 배(사33:23)였지만 주님께서 폭풍우를 헤쳐 나가게 하였고(시107:23-32), 유대인 중 가장 약한 자들이 죽은 군대에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었다.
- 24절: 질병과 죄가 이 도시에서 사라질 것이다. 메시아는 그들의 구속자이자 구원자가 되실 것이며, 백성들은 "그들의 불법들을 용서받을 것"(24절)이다.
-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잃어버린 죄인들처럼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짚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1:4)이었지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들의 죄가 씻길 것이다.

결론

이스라엘의 미래:

7년 환난기, 후반부 3년 반 대환난(렘30:7), 회복(렘31:31-34), 그리고 이스라엘의 확고함(31:35-37)

이사야 1:18의 은혜로운 초대,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유대인들의 회복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

이 초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그렇게 하기 바란다.

이사야서 34장: 메시아 왕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에돔을 심판하심

32-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미래의 네 가지 사건이 있다. 이 네 장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신성한 영감을 받은 계시이므로 성취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 시간: 33장 아시리아의 산헤립 침략, 하나님의 승리, 이것은 미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예표

34장은 메시아의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

특히 여기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오늘 < >, 총17절

(*) 미래 일들의 개요

7년 환난기의 끝에 민족들 심판이 필요하다.

1-3절: 민족들 심판(1-3), 앞뒤 문맥상 환난기 끝의 아마겟돈 전쟁(계19:11-21)

4절: 천체의 변화(4), 마24:29, 율1:10,30-31; 3:15; 계6:12-14

대언자 이사야는 1-4절을 지상의 군대와 하늘에 있는 군대(사34:2-3)의 군사적 그림으로 시작한다(4절).

2-3절, 지상의 적군은 학살당하고 땅은 피로 흠뻑 젖는 것이며, 죽은 자의 시신은 묻히지 않고 썩어 냄새가 나도록 방치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투(계 19:11-21)에 대한 생생한 묘사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세상 군대의 굴욕적인 패배와 멸망을 말한다.

4절: 또한 하늘의 군대도 광대한 우주의 교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사34:4, 마 24:29, 율 2:10,30-31, 3:15, 계 6:13-14 참조).

5-8절: 큰 그림, 여기서 대언자는 전쟁터에서 성전으로 이동하여 전 세계의 심판을 하나님이 제공하는 큰 희생으로 그린다(렘46:10, 50:27, 겔39:17-19 참조). 예전에는 백성들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희생물로 삼는다.

5-6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고대 원수인 에돔(이두매아)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신성한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에돔의 사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로 인해,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예로 주어진다.

에돔(5)은 에서, 야곱과 형제,

오바다, OT에서 가장 짧은 책(21절), 11-12 등 에돔의 악행 참조

말1:1-4

헤롯 에돔 사람

6절의 보스라: 에돔의 중요 도시(창36:33, 사34:6; 63:1)와 그것의 주변 지역(렘49:13, 22). 사해 밑으로 50킬로미터 지점, 이곳은 홍해와 관련이 있다(렘49:20-22; 암1:12).

보스라라는 이름은 "포도 수확"을 의미한다(사63:1-8 참조).

피를 많이 흘리는 곳,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계14:17-20).

계14장, 예루살렘 근방에서 포도즙 틀 심판, 피가 나와 말 글레에까지 닿고 그 피는 1600스타디온(300km)을 흘러 홍해로 간다. 가는 도중 보스라에서 흘린 피 역시 홍해로 흘러들어간다. Red sea가 빨간색으로 변한 날이 있을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 때,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소책자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원수들을 짐승으로 보시고 숫양, 염소, 양, 소, 황소를 기름과 함께 희생 제물로 바친다(레 3:9-11). 이 민족들이 유대인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신다.

7절: 유니콘(7):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렵다. "유니콘, 그들, 내려오다 등", 해석이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땅이 피로 흠뻑 젖는 일이 생긴다. 엄청난 규모의 살육이 있다.

성경의 유니콘: 뿔이 하나 달린 말 비슷한 짐승. 단수 6회, 복수 3회. 이것은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23:22; 욥39:9-12; 시22:21). 어떤 이들은 유니콘이 코뿔소라고 주장하며 욥39:10의 짐승이 어떤 큰 짐승이라고 말하지만 유니콘이 지녔다는 큰 힘을 고려해 볼 때 민23:22;



24:8의 짐승은 분명히 뿔이 하나 달린 유니콘임이 분명하다. 또 코뿔소가 경동경동 뿔 수 없으므로 시편 29편 6절에 나오는 짐승은 결코 코뿔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 그대로 유니콘은 뿔이 하나 달린, 코뿔소와는 다른 강한 짐승으로 믿는 것이 가장 좋다.

8절: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대갚음하시는 해니라((8절). 크고 무서운 주의 날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땅을 착취한 것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을3:1-17).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시온의 주장"(팔레스타인 땅 상속 등)은 오늘날 민족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주장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

9-10절: 상황이 다시 바뀌면서 이사야는 주의 날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비교한다(사 34:9-10, 창18:1-19:38).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사회는 "롯의 때와 같을 것"(눅17:28)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비교이다. 역청(타르)이 강물처럼 흐르고 유황이 먼지처럼 타오르며 심판의 불이 계속 타오를 것이다(창14:10, 19:24). 사34:10의 묘사는 바빌론의 멸망을 연상시킨다(계 14:8-11, 19:3). 또한 영원한 지옥, 즉 불 호수의 불, 즉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연상시킨다(막 9:43-48).

여기의 그곳은 1차적으로 에돔 땅이다.

다만 그 교만한 나라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행하실 일의 예로 사용되고 있다.

11-17절 역시 1차적으로 에돔 즉 이두매아 땅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하는 일을 마치시면 그 땅은 가시덤불과 가시덤불, 들짐승과 들새가 가득한 광야가 될 것이다(11~17절).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새에게 번식할 짝을 주셔서 그 땅을 채우실 것이다 (15-16),

여기의 작은 들짐승과 들새들의 짝을 말한다.

17절의 그것들 역시 그 땅을 차지하는 짐승들과 날짐승들이다.

사실 16절은 다수가 크게 오해하는 구절(16),

개역성경, 여호와의 책, '말씀마다 짝이 있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 사실 이것은 자의적 해석, 이단/사이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교리 뒷받침
그러나 앞뒤 문맥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주의 책은 아마도 모세의 율법 책 혹은 대언자들의 책

여기의 짝은 성경 말씀의 짝이 아니다. 짐승의 짝이다. 17절을 보라.

매튜 헨리, “그분께서 이 새들과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셨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기 자기 자리를 줄로 표시한 것처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대열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도 아니할 것이다.”

14절의 사티로스: 숲 속에 사는 괴물. 이것은 뿔이 있고 염소의 발과 꼬리와 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통 음탕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또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채 조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이것은 주로 바빌론의 황폐함과 연관되어 있다(사13:21; 34:14). 보통 마귀의 상징으로 쓰인다.

결론

천년왕국 이전에 7년 환난기, 이 기간의 끝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 아마겟돈 전쟁 혹은 7년 환난기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양광 염소 민족들의 심판(마25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인 예로 제시가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변영하리로다(시122:6).

이사야서 35장: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시온의 영광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1-39장, 2부: 40-66장

이제 이사야서의 1부 중 이사야 당시 사람들을 위한 대언과 미래에 대한 예언은 35장에서 끝난다.

이사야서 36-39장은 이사야 시대의 왕 히스기야 이야기, 왕하18-20, 대하32장

오늘 < > 총 10절, 메시아 왕국에서의 변화들이 요약되어 있다.

1절: 천년왕국의 때에 광야는 광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에덴동산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창조 세계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55:12-13, 롬8:19, 시 96:11-13, 98:7-9). 왜냐하면 창조 세계가 드디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창3:17-19) 왕국의 영광을 공유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저주가 사라진다(창3:17-19). 특히 18절 '그것들로 인해', 여기의 그것들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1차적으로는 34절 끝의 그 짐승들/날짐승들로 볼 수 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들 등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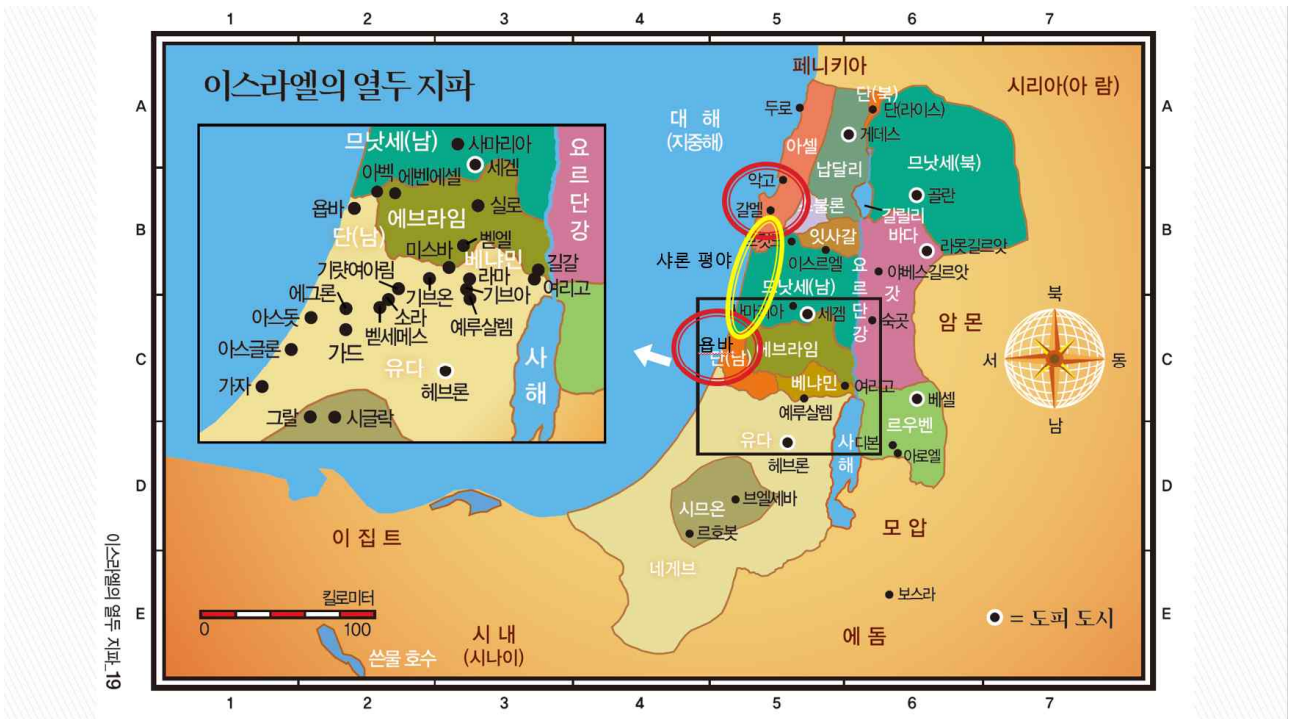
2절: 레바논, 갈멜, 사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광야와 사막은 세 곳을 합친 것보다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 땅이 영광의 동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마른 땅"(사15:7)이 없을 것이다.

갈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8, 19쪽) (*), 지중해, 가나안 땅의 북서쪽 산지. 이곳의 정상은 450미터 정도이다. 이곳의 북동쪽에는 기손 시내가 있다. 갈멜 산 밑으로는 넓은 광야가 있고 거기에는 밭과 올리브나무가 많았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을 자주 방문했으며(왕하2:25; 4:25) 이곳은 특별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의 대언자들을 멸한 것으로 유명하다(왕상18:1-46).

사론: 팔레스타인의 해변 지역인 갈멜과 읍바(텔아비브) 사이의 100킬로미터 정도 길이의 평야. 여기에는 모래 지역도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이곳은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였다(아2:1; 사33:9; 35:2; 65:10).

아2:1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니라.

신약성경을 보면 여기에는 사론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다(행9:35). 이 평야 안에서 곡식을 재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만발하였다.



주의 영광(사60:1-2), 성경에 총 36회

세카이나 글로리: 구약에서 하나님은 시내 산을 덮는 구름,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머문 구름 등에 의해 친히 자신의 임재를 보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는데(출24:16; 40:35)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을 계시하신 것이다.

겔10:18, 영광이 떠남, 성전에 가득함, 43:4-5, 44:4

3-4절: 이사야는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약속을 사용하여 다시 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한다(3-4절).

메시아의 구원(3-4), 아마겟돈 전쟁에서, 약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상의 적

5-6절: 그 왕국에서는 다시는 눈먼 자나 귀머거리, 절름발이나 병어리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영광스러운 새 세상을 누리기 위해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32:3-4에서 대언자는 영적 결핍에 대해 썼지만 여기서는 신체적 장애를 묘사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구절을 언급하셨다(눅7:18~23). 왕 메시아 그리스도는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의 복을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셨다.

예수님 초림 사역에서도 (마9:27; 12:22 등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치유 사역, 메시아 표적이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7절: 지형의 변화(사40:3-4)

8절: 이사야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큰길을 말한다(11:16; 19:23; 40:3; 62:10).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략하는 동안에는 큰길이 안전하지 않았지만(33:8), 왕국 시대에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큰 길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룩함의 길"이다.

거룩함의 길: 거룩한 자들, 거룩한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구분된 자들

구속받은 자들만 다닌다(8, 9), 악한 짐승이 없다(9)

속량받은 자들만 다닌다(10). 슬픔이 없다(10; 계7:17).

redeemed(9), ransomed, 몸값이 지불되어 자유를 얻은 자들

우리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일

1. 황무지(1절)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8절) 다니리

2.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2절) 볼 때에 모든 괴롭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3.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6절)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4.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9절)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5.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8절) 거룩한 자 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후렴>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9절: 고대 도시에는 왕과 제사장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도로가 있었지만, 메시아가 통치할 때는 모든 백성이 이 큰길을 이용하도록 초대받을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을 받고 기뻐하는 유대인 가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 낸다.

결론

이사야가 이 말씀을 말하고 썼을 때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농작물을 파괴하고 큰길을 여행하기에 안전하지 않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갇혀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었다. 남아 있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셨다면,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택한 백성을 위해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천년 왕국)을 세우시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시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다.

휴거와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자.

이사야서 36장: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위기

지난 두 시간: 34장, 7년 환난기,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 특별히 예돔에 대한 심판

35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메시아 왕국, 자연계의 변화. 병자들의 치유, 거룩한 길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1-39장, 2부: 40-66장

이사야서의 1부 중 이사야 당시 사람들을 위한 대언과 미래에 대한 예언은 35장에서 끝난다.

오늘 < > 36장, 총 22절

막간: 히스기야 왕 이야기(사36-39장)

이사야서 36-39장은 이사야 시대의 왕 히스기야 이야기, 왕하18-20, 대하32장에도 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 29년 통치(왕하18:2), 54세에 사망

히스기야 시대에 BC 72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왕하18:7-12)

그는 호세아의 제3년에 왕이 됨, 호세아의 9년에 이스라엘 멸망, 즉 히스기야의 제6년(31세)

왕하18:9, 히스기야 왕의 제사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칠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이 사마리아를 대적하러 올라와 그곳을 에워싸고』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최종적으로는 사르곤에 의해 이스라엘 멸망함

아시리아의 왕들: 불, 살만에셀, 사르곤, 산헤립, 에살하돈, 오스납발(이집트 침공, 에스라4:10)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보다 더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은 유다의 왕은 없다.

열왕기하 18-20장, 역대기하 29:1-32:33, 사36-39장 등 총 11개 장이 히스기야에게 할애되어 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왕하18:5).

그는 주전 726년경에 통치를 시작했고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 놓은 성전 시설과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과 산당들(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으로 숭배하던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했다.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2주간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기념하였고 북왕국의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참여하게 했다.

"그가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과 율법과 명령들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행하고 성공적으로 끝냈더라."(대하31:21).

주전 721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유다는 아시리아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을 배반했고(왕하18:7), 산헤립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조공으로 그를 매수하려 했다(13-16절).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다. 산헤립은 보물을 받았지만 조약을 파기하고(사33:1) 주전 713년경에 유다를 1차 침공(이때는 사르곤의 아들, 총사령관), 709년에 2차 침공했다(이때는 아마도 아버지와 공동 왕). 2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사36-37장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히스기야의 병 이야기(사38장)와 바빌론 사절단을 어리석게 영접한 이야기(사39장)가 36장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즉 그의 병은 BC 713년에 생기고 그는 기도로 15년간 생명을 연장 받음

바빌론 사절단은 BC 712년에 방문하고 아시리아 군사 185,000명 사망은 BC709년에 발생함 그렇다면 왜 이 장들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까?

대언자 이사야는 이 기록을 이사야서 두 부분 사이의 '다리'로 배치했다. 즉 36장과 37장은 아시리아에 중점을 둔 채로 이사야서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고, 38장과 39장은 바빌론에 중점을 둔 채로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한다.

이사야는 이 책의 앞부분 즉 1-39장에서 바빌론을 언급하지만(13:1절, 31:1절)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명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다(사39:6-7).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세 번의 큰 위기를 맞는다: 1. 아시리아의 침공, 2. 병, 3. 바빌론 특사들

1과 2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넘겼지만 그는 3번에서 걸려 넘어진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는 어떤가?

36-39장은 믿음과 기도,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히스기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배경이 그때와 다를지 몰라도 문제와 유혹은 여전히 동일하다.

1. 아시리아의 침공(사36-37; 왕하18-19; 대하32)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사악한 자, 성전 문 폐쇄 등, 이방 신 섬김

히스기야는 곧바로 개혁 시작, 대하 29-31까지 3장 할애

백성이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복을 구함

그런데 복이 아니라 전쟁이 옴(대하32:1), 그 이유,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아주 선한 왕)은 짧은 시간에 국제적 위기(아시리아 군대의 침공), 개인적 위기(질병과 죽음 직전), 국가적 위기(바벨론 사신의 방문)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했다. 히스기야는 처음 두 번의 위기는 승리로 넘겼지만 세 번째 위기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히스기야는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잘못을 찾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시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처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산헤립의 위협과 히스기야의 위기(36장)

위기는 종종 상황이 가장 좋아 보일 때 찾아온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개혁으로 민족을 이끌었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 하지만 복은커녕 오히려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일들이 굳게 세워진 뒤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와서 유다로 들어와 요새 도시들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자기를 위해 그 도시들을 얻으려고 생각하니라"(대하32:1).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물론 아니었다! 아시리아의 침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계획의 일부였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조약과 보물을 신뢰했지만(왕하18:13~16), 적군이 재물만 취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다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협상을 했는데, 이는 이사야가 심하게 책망한 불신앙의 행위였다(사30:1-7, 31:1-3).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경건한 성품을 세우는 것이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은 잔머리 굴리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다.

1-3절, 아시리아 왕의 침략

아시리아 사람들은 유다를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라기스에 있었다. 왕하18:17에 따르면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항복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장교를 보냈다: 다르단("최고 사령관"), 랍사리스("최고 장교"), 랍사게("야전 사령관")였다. 이것들은 개인 이름이 아닌 군대의 직책으로 앵각됨. 이 세 사람은 유다의 주요 관리 세 명과 만났다: 엘리야김, 쉘나, 요아(왕상18:18), 사22:15-25 참조).

그들이 만난 장소는 약 30년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대면했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사7:3).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신 아시리아와 조약을 맺었고(왕하16:5-9)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시리아가 무슨 일을 할지 경고했고(사7:17-25), 이제 그의 말이 성취되었다.

4-21절, 아시리아 왕의 책망

4-5절, 야전 사령관 랍사게의 연설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말 중 하나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난했다(37:4, 17, 23-24). 그는 아시리아 왕의 "위대함"을 강조했는데(36:4,13), 이는 일반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겁주고 싶었기 때문이다(11-12절). 그의 연설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탁월한 심리전이었다. 핵심 단어는 신뢰이며 여러 번 사용되었다(4-7, 9, 15절). "네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나?"(4절) 현장 지휘관 랍사게가 물었다. "네가 신뢰하는 모든 것이 실패했으니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5절)

6-7절, 그는 그들의 전략부터 비웃기 시작했다. 6절, 그들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집트는 상한 갈대에 불과했다(이사야도 같은 말을 했다! 30:1-7, 31:1-3 참조). 7절, 또 주를 신뢰하는 것도 실패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주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다. 이방 군인인 그는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무데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될 줄로 생각함. 그래서 현장 지휘관에 따르면 유다는 땅(이집트)에서도 하늘(주님)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이미 패배한 상태였다!

8-9절, 그들의 군사적 자원은 어떤가?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지만(대하32:2-8), 야전 사령관은 유다의 군사력을 비웃었다. 유다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공격할 병사도, 말도, 병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설사 아시리아가 장비를 제공한다고 해도 유대 병사들은 적의 최소한의 장교도 물리치기에 너무 약했다.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기병들은 산헤립의 대군을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이사야도 이에 동의한다. 사 30:15-17 참조).

10절, 야전 사령관은 아시리아가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었다(36:10). 그러나 산헤립과 그의 군대가 곧 알게 되겠지만,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11-12절 또 다른 모욕

현장 지휘관에 따르면 유다는 전략도, 군사력도, 신도 믿을 수 없었다. 백성들도 왕을 믿을 수 없었다(사 36:13~20).

14-17절, 아시리아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한심한 왕이었다. 백성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히스기야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산헤립이 아시리아에 편안한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했다. 백성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농장과 과수원, 포도원이 폐허가 되었고 유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 행복하고 자신과 가족을 살려야 할지도 모른다.

18-19절,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지만, 현장 지휘관은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보호하거나 구원하지 못했음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히스기야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37:18-19 참조) 19절, 사마리아도 패배했는데 그들은 유다가 섬기는 같은 하나님을 숭배했다. 20절, 야전 사령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신에 불과했고 산헤립은 그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21절,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침묵, 22절: 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말을 고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견으라고 말씀하신다(고후5:7). 불신앙 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시리아 현장 지휘관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그의 증거가 설득력 있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

이사야서 37장: 히스기야의 기도와 산헤립의 패망

36-39장, 이사야 당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세 번의 큰 위기를 맞는다: 1. 아시리아의 침공, 2. 죽을병, 3. 바빌론 특사들
1과 2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넘겼지만 그는 3번에서 걸려 넘어진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
우리는 어떤가?

36-39장까지 말씀은 믿음과 기도,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히스기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배경이 그때와 다를지
몰라도 문제와 유혹은 여전히 동일하다.

지난 시간: 36장, 이사야 당시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침공, 그는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보냄. 라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백성을 심하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함.

오늘 37장, < > 총 38절, 인생의 큰 위기,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위어스비의 이사야서 강해 참조

유다의 회개(1-20)

왕의 명령에 따라 아무도 현장 지휘관 랍사게의 연설에 대답하지 않았다(36:21).

무례함은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적과의 협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1절,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주의 집 곧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렸는지 모른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대하7:14).

주님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데려오셨지만(사7:17-25),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점령당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하셨다(10:5-34). 아시리아의 침략 이전에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히스기야에게 주었다(38:4-6).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2-4절, 그래서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말을 전했고 직접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

6-7절, 이사야는 왕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격려의 말씀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었다.

(1) 두려워하지 말라(6절),

(2) 아시리아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7).

(3) "그 왕"이 아시리아에서 죽을 것이다(7).

8-9절, 세 명의 아시리아 대표가 본부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집트 군대(에티오피아 군대)가 히스기야를
방어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여기에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나올까?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일시적으로 두 나라를 통일시킴.

라기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곳

립나는 라기스에서 북쪽으로 10킬로미터 떨어진 곳,

10절, 산헤립은 두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자들을 보내어 즉시 항복하라
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시리아 왕이 편지를 보냄(9)

내용: 1. 하나님을 믿지 말라(10). 내 조상들이 여러 나라의 신들, 민족들을 정복하였다(11-13).

10-14절, 이 위협적인 메시지는 편지의 형태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성전(주의
집)으로 가져가 "주님 앞에 " 퍼 놓고 기도하였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은 뒤 주 앞에 퍼 놓고 기도한 내용(14-20)

내용: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16), 참 신의 특징, 땅과 하늘의 창조자(렘10:11-13), 산헤립의

말을 들으소서(17), 다른 나라 신들은 가짜,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지 못함(18-20). 15-20절,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경적 신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도행전 4:24-31에 나오는 교회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 그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그분께 경배했다. 여호와와는 "군대들의 주"이시다(시46:7,11).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며(96:5), 그분의 창조물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의 눈은 우리의 곤경을 보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의 탄원을 들으신다(시115편 참조). 20절,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백성이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사 37:20, 시 46:1-10).

응답(21-35절).

이 기도에 대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세 가지 확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1. 예루살렘은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22, 31-35절). 2. 아시리아 사람들은 떠날 것이다(23-29절). 3. 유대인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30절).

1. 예루살렘이 구출될 것이다(22, 31-35절). "시온의 딸"(예루살렘의 딸, 이런 것은 유다에 대한 또다른 표현)은 아직 적에게 유린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며 경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살려서 다시 한 번 그 땅에 확고하게 심으실 것이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a. 첫째,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대로 (20절)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23, 35절). 산헤립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을 지키셨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신들보다 자신을 높였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수는 없었다!

b.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35절, 삼하 7장).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영원히 왕좌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눅1:32-33)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다윗의 등불을 예루살렘에서 계속 켜두셨다(왕상11:13,36).

c. 유다 민족은 구원자를 세상에 데려오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인간 군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 비록 유대인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만 있을지라도(32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창12:1-3).

2. 아시리아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23-29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시리아 왕에게 말씀하시며 그와 그의 신하들이 했던 모든 자랑스러운 말을 상기시켜 주셨다. 이 구절에는 아시리아 왕이 인용하는 '나'와 '나의'가 여러 번 등장한다. 이는 14:12-17에 나오는 루시퍼의 말과 매우 비슷하다(누가복음 12:13-21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도 마찬가지).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잠16:18).

산헤립은 자신의 군사력과 위대한 정복을 자랑했는데, 이는 그 어떤 장애물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절, 그는 마음만 먹으면 신처럼 강을 마르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는 창조자를 대적하며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었다(사10:5-19). 26절을 보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산헤립과 그의 군대를 짐승처럼 여기시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보내심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37:7,29).

3. 유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30절). 이 사건이 일어난 달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롭게 작물을 파종할 시기가 지났을 것이다. 백성들이 땅을 정상적인 생산력을 내는 상태로 되돌리려면 이전 농작물에서 자란 것을 먹어야 했고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피해를 입은 농장을 다시 복구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희년(레25:8-24)을 전후한 해와 같았다. 그래서 이대가 희년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보복(사37:36-38).

현장 지휘관 랍사게는 아시리아의 하급 장교 한 명이 유대인 기병 2천 명보다 강하다고 농담했지만 (36:8-9),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 (출12:12, 삼하 24:15-17 참조) 사실 이사야는 아시리아 군대의 멸망을 이미 예언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숲처럼 깎아내리고(사 10:33-34), 폭풍우로 황폐화시키며(30:27-30), 도시의 쓰레기처럼 불 속에 던져 버리실 것이다(30-33절).

36-38절,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산헤립은 패배한 뒤 유다를 떠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의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후계자 문제)으로 인해 산헤립은 이사야의 예언(37:7) 대로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 암살당했는데(38절), 그 일은 바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일어났다! 랍사게는 여러 민족들의 신, 심지어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을 조롱했지만 산헤립의 신은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결론

히스기야와 백성이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천사 하나, 185,000명, 원수들이 쫓겨나고 주변인 산헤립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 자기 신의 신전에서 암살당함.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 이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자.

이사야서 36장: 히스기야의 죽을병과 하나님의 치유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세 번의 큰 위기를 맞는다: 1. 아시리아의 침공, 2. 죽을병, 3. 바빌론 특사들
1과 2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넘겼지만 그는 3번에서 걸려 넘어진다.

36-39장까지 말씀은 믿음과 기도,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 36장, 이사야 당시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침공, 그는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보냄. 라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백성을 심하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함.

37장, 인생의 큰 위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심. 천사 하나가 185,000명을
죽임, 산헤립은 니스웨로 패퇴한 뒤 후에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됨

오늘 < > 38장은 총 22절, 참으로 경건한 왕인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병 문제

기도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는 것인 아니지만 병에 걸리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

위어스비 강해 참조

위험(사38:1)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주석가들은 히스기야의 이 병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이 있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6절 참조). 여하튼 아시리아의 침략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주식 시장부터 뉴스 보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왕이 죽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라! 경건한 지도자가 죽으면 누가 그들을
통치할까?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을 다윗의 왕좌에 앉혀야
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을까? (삼하7:16,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그리고 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그 약속이 실패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

1절: 이사야의 대언: 참으로 대언은 어려운 일

기도(사38:2-3)

히스기야의 기도(2-3): 통곡하며 기도,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한다.

먼저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 있는 사적 시간/공간을 얻기 위해 벽을 향했다.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한 것을 두고 이기적인 기도라고 비판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다 같은
방식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왕좌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히스기야는 당시 39세, 그는 구약식으로 기도하였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는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민족의 영적 회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더욱이 아들도 없지 않은가? 물론 그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 자신의 목숨을 염려했지만
백성을 위한 부담감도 있었다.

약속(사38:4-8)

주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해 신속하게 응답을 주셨다. 대언자는 왕의 의사가 되어 시종들에게 어떤 약을
바를지 알려주었다(사38:21).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치유하실 수 있다.
이사야는 또한 왕에게 그의 수명이 15년 동안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5). 왕은 그 약속의 확인을
요청했고(22절),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주셨다. 해시계는 그림자가 시간을 표시하는 어떤 장치
아하스의 해 시계, 해가 지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는데 그림자가 줄어들음

길게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임, 줄어들게 함은 청년 시절로 돌아감을 뜻함

해가 움직인 것임, 바빌론 사람들도 알고 물음(대하32:31),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
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 해와 달을 하루 동안 세우기도 하심(수10:12-13), 기브온, 아얄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히12:1-11).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의 앞날을 위해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
아들이면 징계, 사생아는 징계 없음
또 다른 약속에서 이사야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왕에게 확신시켜 주었다(6절).

깊이 생각하다(사38:9-20)

히스기야는 시편의 저자이며(20절),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학자 그룹을 감독했다(잠25:1,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들이니라.)

이 아름다운 묵상에서 왕은 질병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느낀 감정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킨 몇 가지 새로운 경험을 했다.

히스기야의 묵상의 시(9-20): 참으로 아름다운 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 직감(11-15)

주님의 은혜(16-20)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셨다(사 38:9-12).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능한 한 오래 붙잡으려고 한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여행의 끝(11-12절), 장막이 무너지는 것(12절 a; 고후 5:1-8 참조), 베들에서 베를 끊는 것(사38:12)으로 묘사했다. 삶은 실타래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또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13-14절). 기도가 아니었다면 히스기야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왕은 밤에는 사나운 사자의 공격을 받는 연약한 짐승처럼 느껴졌고, 낮에는 힘없는 새처럼 느껴졌다. 이 고통의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다(17절). "나를 위해 이 일을 떠맡아 주소서"라는 말(14절)은 "나의 보증인이 되라. 나와 함께 서십시오!"라는 뜻이다.

왕은 봉사의 기회에 대한 새로운 감사로 끝을 맺었다(15-20절). 그의 걸음걸이에 새로운 겸손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새로운 찬양의 노래가 있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날들이 그에게 매우 중요해졌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시90:12).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3년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고(왕하21:1), 그는 왕조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55년 동안 통치했다! 히스기야가 후계자 없이 죽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후계자가 더 나았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므낫세의 손자는 경건한 요시아 왕으로,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많은 일을 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회개했고, 주님을 섬기며 여생을 마감했다(대하33:11~20). 우리가 하나님이나 역사를 추측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결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죽음에 대한 그의 묵상
기도에 대한 깊은 생각

이사야서 39장: 바빌론 사신단과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세 번의 큰 위기를 맞는다: 1. 아시리아의 침공, 2. 죽을병, 3. 바빌론 특사들
1과 2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넘겼지만 그는 3번에서 걸려 넘어진다.

36-39장까지 말씀은 믿음과 기도, 교만의 위험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특히 오늘 39장은 아무리 사람이 경건해도 교만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 < > 39장은 총 8절, 왕하20:12-19, 오늘 1부의 끝

바빌론 사신단(사39; 왕하20:12-19)

아시리아의 침공, 개인의 병은 해결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히스기야는 걸려 넘어짐
그 당시 바빌론은 아직 크지 않음, 아무도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누르리라고 생각하지 못함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 큰 뉴스, 유명 인물이 됨

(*) 참고로 이 사건도 36-37장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1절: 바빌론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므로다발라단이 예루살렘에 사신단을 보냄

바빌론 사신단의 두 가지 의도: 1. 위로(1), 2. 정보 탐색

히스기야가 다 공개함(2)

이사야의 질문과 왕의 대답(3-4),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5-7)

아마도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 대비하려고 바빌론에게 호의를 베풀

4. 인생의 교훈

고전10:11-13

마귀의 강은 전략: 사자로 나타남(벧전5:8-9), 안 되면 교활한 뱀으로 나타남(고후11:3)

아시리아는 무력으로 못했으나 바빌론은 선물로 함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시려 함(대하32:31),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다윗의 패배, 솔로몬의 패배

우리 각 사람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한다.

히스기야가 자랑으로 삼던 재물(39:2): 사실은 하나님의 것, 그는 청지기

청지기 역할을 못하면 없어진다. 고전4:7,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더욱이 내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바빌론이 유다를 포로로 데려갈 것이다(7). 결국 100년 쯤 뒤에 BC 586년에 바빌론 포로

단순히 히스기야의 죄 때문이 아니다. 유다의 죄들(대하36:13-16)

8절을 오해하면 안 됨: 이기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순복하겠다는 뜻이다.

결론

위대한 성도들인 히스기야도 다윗도 다 실수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누구나 실수한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시51:17).

구약의 대언서는 모두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이다.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을 때 국가는 무너진다.

미국의 도덕적 타락, 동성 결혼

한국의 영적, 도덕적 타락,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이로써 이사야서 1부 1-39장 마무리, 다음 시간부터 2부 40-66장

성경 말씀 열공하자. 나도 많이 배웠다.

이사야서 40장: 메시아 약속의 위로와 천지창조 하나님의 권능

사40:1-31

올해 갑자기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강해하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부하여 이해하려고

이왕이면 20-30분이라도 모든 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작, 39장까지 마무리하였다. 공부가 쉽지 않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평균 5,000명 정도는 보니 끝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사야서 강해 댓글, 장로교 다니지만 이런 성경 강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강해 듣고 성경책을 읽으니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도움이 된다니 일단 목사의 임무를 하고 있다는 안도의 생각

목사, 시간이 있어야 공부하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다.

후에 가능하면 에스겔서, 미가서 등도 해 보려고 한다.

이사야서 66장,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1-39장, 2부: 40-66장,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앞부분 39장은 구약, 뒷부분 27장은 신약

신약에 해당하는 뒷부분의 27장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막1:1-4)부터 새 하늘과 새 땅(65:17; 66:22)

특히 40-66장에는 주님에 대한 언급이 심히 많다.

첫 부분 39장은 이사야 당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교차

주로 아시리아의 침략에서 보호해 준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마지막 27장은 주로 먼 미래, 초림과 재림, 바빌론 포로 생활, 귀환, 느부갓네살, 고레스

마지막 27장은 세 부분(40-48장, 49-57장, 58-66장)

40-48장: 하나님의 위대하심(특히 우상과 비교해서)

49-57장: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주)의 종 메시아 찬양

58-66장: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2부의 27장 중에서는 특히 둘째 부분(49-57장)이 핵심, 메시아, 특히 고난받는 메시아

2부에는 유명한 종(메시아)의 노래가 들어 있다(42:1-7; 49:1-6; 50장, 53장)

구약성경의 복음서(이사야서 53장): 52:13-53:12, 세상 죄들로 인한 메시아의 대신 속죄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함

이스라엘 랍비들: 이사야서 40-66장은 위로의 책

특히 바빌론 포로들, 모든 인류, 신약 시대 인류

바빌론 포로 생활 귀환, 마지막 때(재림 시)의 이스라엘 귀환의 예표(계17-19장)

원래 이 27장의 대상: 바빌론 귀환을 앞둔 유대인들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43:1-2 등), 너무 귀중한 위로

오늘 < >, 성경의 위대한 장 중 하나(총31절), 메시아 약속 및 위로

우상숭배 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어스비 목사님의 강해

메시아 약속 및 위로(1-11절)

예루살렘(유다)의 상태: 바빌론 포로, 성전 파괴, 왕도 군대도 없다. 연약한 나라

이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 그 결과 징계, 포로 생활

1. 용서의 음성(1-2), 2절의 두 배: 충분히 징벌을 받았다는 의미

백성의 죄, 하나님 무시, 말씀 무시(렘7)

렘7: 행위를 고쳐야 한다(2-3)

주의 성전(4), 악한 일들(8-10), 성전이 강도의 소굴(11),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17-18)

백성이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25-27),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

그 결과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함(32-33)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의 선민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심(히12), 요일1:5-2:2 참조

롬11:28-29

2. 섭리의 음성(3-5), 포로들이 귀환하는 길은 거칠다. 전령이 먼저 가서 예비함

큰길(사11:16; 19:23; 35:8; 40:6; 62:10), highway

침례자 요한(마3:1-6), 말3:1, 4:5

초림의 전령, 눅1:13-17, 마11:14

주의 영광(요1:14),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수난을 담았다. 1741년 8월 22일 시작, 24일 후에 완성, 1742년 4월 13일 더블린 초연(국왕 조지 2세 할렐루야 기립 박수)

1부: 예언과 탄생(21곡), 2부: 수난과 속죄(23곡), 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10곡)

전체 곡 중에서 '주의 영광' '할렐루야' 등이 가장 유명하다.

전체가 킹제임스 성경, 1부 서곡 이후 세 번째 곡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나타나라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나타나라

만민들(모든 육체가)이 다 함께 보리라 주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만민들이 다 함께 보리라

주의 영광

당연히 여기는 재림의 문맥, 지형의 변형(4), 모든 육체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5).

유의해야 할 것: 3절 침례자 요한, 그러나 4-5절은 초림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

왜?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임(*)

3. 약속의 음성(6-8), 여기의 그 소리는 하나님의 1-2절의 음성일 가능성이 크다.

위대한 국가들, 아시리아, 바빌론, 영국, 미국, 한국 포함해서 사람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신4:1-2; 시12:6-7; 잠30:5-6; 마24:35; 뱀전1:24-25, 계22:18-19)

어쩌면 대하6:36-39를 믿음

4. 화평의 음성(9-11), 좋은 소식 그 당시는 바빌론 폐망, 유다 귀환(52:7-9)

지금은 그리스도에 의해 마귀가 폐망함,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61:1-3; 눅4:18-19)

그분의 팔(arm, 10절), 팔은 무기, 안위하는 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40:12-26)

이사야 당시 유다 주변 상황: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의 융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폐망

의심: 이들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이사야의 확증: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야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다.

12-19절: 땅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20-26: 하늘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12절: 땅 창조

13-14절: 그분을 가르친 교사가 없다(롬11:33-36)

15, 17절: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통의 물 한 방울

16절: 레바논 산 아무것도 아니다.

18-20: 다른 신들은 모두 우상, 가짜, 사람이 만든 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형상이 없다(출20:1-4).

21-22절: 땅 위의 원 위에 앉으신다(22).

circle of the earth, 땅은 둥글다. 편평 지구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애용 구절

천체와 관련된 circle

OED: 4. formerly, The sphere or 'heaven' in which a heavenly body was

supposed to revolve. now, The orbit of a planet or other body. (*)
이전의 용례: 회전하는 천체가 들어 있는 구 또 하늘, 둥근 천장 같은 하늘
현시대의 용례: 유성의 회전 궤도

5. The orb of a heavenly body. 구, 궤도

동그란 구 모양의 땅, 구 모양의 땅 주변을 덮고 있는 구 같은 영역(*)

대기권(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 둥근 천장 같은 하늘

땅 위의 원, 당연히 땅은 구, 지구 위의 대기권 같은 부분

이것을 2차원의 원이라고 하며 지구가 편평하다고 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도 그분들의 자유

그 서클(원) 위에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은 개미, 메뚜기와 같다.

시19:1-4

롬1:18-20

이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다. 사람은 세포 하나와 같다.

23-24절: 땅의 통치자들, 진시 황제, 나폴레옹, 트럼프, 바이든, 푸틴 누구도 비교 불가

25절: 그분과 동등한 존재는 없다. I AM THAT I AM.

26절: 하늘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시147:3-4).

모든 별들이 할 일을 한다.

군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창2:1), 군대들의 주

힘을 주시는 하나님(40:27-31)

이사야 당시 유다 주변 상황: 아시리아의 침공

그 뒤 바빌론 포로 생활

27-31절: 유다의 상태(귀환 전 유다의 상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27).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다. 재림의 때: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28절: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의 안식: 사람을 위한 것(2-3)

29절: 힘을 주신다, 모세와 엘리야

30-31절: 이런 자들의 변화, 엘리야를 보라(왕상19:4, 8), 15-16 새 임무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목상하고 신뢰해야 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여정도 한 걸음을 떼면서 시작된다. 승승장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국가의 위기; 하나님, 우상숭배,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창18), 기드온의 300 용사(삿6).

기도하고 교육하고 계몽해야 한다.

이사야서 41장: 법정에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41:1-29

이사야서 66장, 1-39장, 40-66장,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앞부분 39장은 구약, 뒷부분 27장은 신약

지난주부터 신약에 해당하는 뒷부분 시작하며 40장 강해, <메시아 약속의 위로와 천지창조 하나님의 권능>

이사야서 등 대언서는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

배경 설명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내용상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40장 전까지는 아시리아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그 중심 무대에 서 있었다. 1-39장에서는 이사야(히스기야) 당대에 임할 심판과 미래로 연기된 소망이 주요 주제였다. 40장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바빌론이 유다(이스라엘)를 지배하고 있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소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 당시(아시리아의 산헤립 등)에서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로 넘어와 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이스라엘)는 모든 소망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존재들처럼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40-41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열거한 다음, 바빌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통과하는 대로를 지나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 여행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신들을 재판하는 법정 공판을 열고, 그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며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없으며 또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거짓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고레스의 출현을 알리셨다.

40장, 메시아 약속 및 위로, 오늘은 41장 < >, 총 29절

두려워하지 말라(41-44)

두려워하지 말라(7차례, 41:10, 13, 14; 43:1, 5; 44:2, 8)

바빌론 포로들, 고향 이주, 성전 건축 등 책무,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간다. 너희를 대신해서 일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인, 교회, 국가

하나님의 뜻 성취 세 가지 도구: 고레스(41:1-7), 메시아(42), 이스라엘 백성(43-44)

오늘 41장은 고레스와 이스라엘 이야기

법정에 소환된 세상의 정복자들(41:1-7)

1-4절은 법정으로 민족들을 소환하는 모습

1절: 민족들을 법정으로 모음(41:1), 섬들(1), 이사야서에만 17번 정도, 멀리 떨어진 나라들, 이교도 국가들

소송을 제기하라(21)

2-3절: 고레스를 일으켜 세상을 정복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묻는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4절: 2-3절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신다.

그 세대들(generations)은 모든 민족들, 처음부터 모든 민족들을 생성해 낸 자가 누구냐?

첫 세대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영어 generation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 출생한 자들을 뜻한다.

창5:1,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마1:1,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답은 명백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40:12-17).

5-7절은 초청받은 섬들이 한 마디 말도 못하는 것을 기록한다.

그들은 자기 옆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사실 이교도 민족들 혹은 그들의 신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종 유다(이스라엘)를 위로하는 하나님(8-20)

8절 이하에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8절: 나의 종 이스라엘, 이교도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나와 특별한 관계이다.

이사야서에는 두 종이 나온다: 하나는 이스라엘(41:8), 메시아(42:1), 잘 구분해야 한다.

원래 종은 귀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호칭: 내종 모세(민12:7); 다윗(삼하3:18), 대언자들(렘7:25)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자꾸 말하면 안 된다.

9-16절,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

14절: 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벌레이다(41:14-16).

벌레: 원래 상태, 종: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

17-20절: 귀환 여행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17절은 광야 생활 연상, 특별히 18절

사막이 동산이 된다(41:17-20), 궁극적으로 재림 이후의 천년 왕국 묘사(사35장)

마지막으로 재판정의 모습(21-29)

21절: 민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라(21). 바빌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야곰(이스라엘)의 왕이 초청을 함(21)

22-23절: 성경의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 과거의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24절: 사실상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25절: 내가 고레스를 세운다.

26절: 나는 그 일을 오래 전에 구상하였다. 그것도 처음부터(26)

27절: 처음이신 분이 이스라엘에게 화평의 사자를 줄 것이다(27)

28-29절: 이교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28-29).

이교도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레스

고레스의 등장(41:2), 총 23번(대하36:22, 단10:1), 페르시아(이란)의 왕. 그는 자기 친족(삼촌)인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와 소아시아를 정복했고 후에는 바빌론을 점령하고 이전의 아시리아 왕국이
다스리던 곳을 초토화시켰다. 그는 자기의 사촌 누이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페르시아와 메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통치하였다. 이시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출현하기 150여 년 전에 그가 유다 백성을
구출하고 회복시킬 것을 대언했으며(사44:28; 45:1-7) 고레스는 실제로 이것을 성취했고(대하
36:22-23; 스1:1-4) 다니엘은 그의 신하 중 하나였다(단6:28).

그는 목자(44:28), 기름 부음 받은 자(45:1),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육식성 굶주린 새(46:11), 그는
마음대로 행한다(41:25)

동방의 독수리(46:11, 내가 동쪽에서부터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기존 성경), 동방을 우리나라로 이해한 사람이 많다. 부흥사들/이단들의
레퍼토리, 다행히도 개정개역: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한국의 소종파 사이비들의 특징은 일단 한국 민족을 특별히 선택받은 동방의 독수리로 보며 그중에서도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만 계시록의 14만 4천으로 규정하여 성도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요구한다. 전도관(감람나무, 14만 4천), 신천지(한류, 한국인의 우수성, 14만 4천), 안상홍 증인회(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때 동방의 구원자로 등장하신 안상홍님을 믿고 있습니다. 동방의 구원자이신 안상홍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 P목사, 동방의 독수리는 본인

성경의 예언에는 미국, 영국, 한국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동쪽과 북쪽 같은 방향(41:25), 북쪽, 해 뜨는 곳

이사야는 고레스의 출생이 있기 150여 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기록함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 부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 하나님이 그의 정복을 도움(45:1-4)

고레스의 등장, 정복(41:25), 그러자 민족들은 자기 신들에게 도움을 구함, 허사(44:9-20)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함(44:28). 기쁨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회복(28)

하나님은 심지어 불신자 왕들을 사용하신다: 고레스, 느부갓네살, 파라오(롬9:17), 헤롯, 빌라도(행 4:24-28), 잠21:1

결론

유다(이스라엘)의 상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유대인들 대다수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빌론 군대와 그 신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을 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이 든 대언자를 통해 전해줄 메시지가 있었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바빌론의 우상들이 맞대결을 벌이는 법정의 모습으로 전달되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께서는 그 우상들을 향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역사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보라고 주문하셨다. 그들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증명해보라고 주문하셨다. 바빌론의 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역사를 주관할 능력과는 감히 견줄 수도 없는 말하는 능력조차 없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과 우리의 삶을 시들게 하는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사야서 40-41장의 교훈은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둠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든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는 무관한 아주 먼 판 세상에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우리를 위해 대언자 이사야가 해주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분 그 이상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다. 우리는 해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위로자를 신뢰해야 한다. 단, 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한 일을 하다 지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라.

샬롬

이사야서 42장: 하나님의 종 메시아와 유대인들의 바빌론 탈출
사42:1-25

배경 설명

지난 두 시간 40-41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열거한 다음, 바빌론에서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통과하는 대로를 지나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 여행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신들을 재판하는 법정 공판을 열고, 그들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며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없으며 또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거짓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고레스의 출현을 알리셨다.

오늘은 42장 < >, 총 25절

이사야서 42-44장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역사를 망각하고 현실에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바빌론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고, 그곳으로 돌아갈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외국 땅에서 그곳을 고향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착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빌론을 잊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셨다. 그들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놀랍고 새로운 구원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redemption)이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실 것이다(43: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으로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 좋았던 시절의 허무한 공상이라 생각해버리고 말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바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도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대언자를 통해 알려주신 일을 친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

이사야서에는 4번의 종의 노래(42:1-7; 49:1-6; 50장, 53장), 42장은 처음 것

1절: 우상들과 종의 비교(41:29; 42:1)

1-2절: 종의 특징(하나님의 영), 그의 일,

마12:14-21, 예수님이 바로 그 종이다. 17-21절은 이사야서 그분은 참고 참으신다(3).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의 실행은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재림, 통치

4절: 이방인들(섬들)까지 통치한다. 천년 왕국

5절: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6-7절: 메시아가 하는 일

8절: 나는 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출3:14)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9절: 이미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예: 창15장, 이집트 탈출은 이미 이루어진 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심, 이집트 노예 살이, 구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10-13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10-13),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13)

11절의 계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14-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중에서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도우신다.

17-20절: 이스라엘의 불순종(17-20), 우상숭배 사6:9-10, 여기의 종은 다시 이스라엘이다.

21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신다(21). 말씀으로 판단하신다.

22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22)

23절: 이런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24-25절: 이것은 주의 심판, 그러나 이스라엘(유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슬프다(25).

적용: 바빌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세계, 즉 출애굽을 이루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믿는 옛 세계와 새 세계, 즉 새로운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그들에게 옛 세계에 대한 꿈을 버리라고 말하는 바빌론의 포로로 생활해야 하는 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주일에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월요일부터 6일 동안에는 사회 경제적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흡사했다. 주일 설교를 통해 들은 메시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거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사야서 42-44장을 통해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론

과거의 유다 사람들, 지금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5-6, 8절 귀한 말씀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두려워하고 찬양해야 한다.

이사야서 43장: 여호와와 증인인 유대인들의 구속

사43:1-28

배경 설명

시대적 배경: 1-39장, 주로 아시리아, 40-66장 이후, 주로 바빌론 포로 생활과 귀환, 이런 일이 생기기 15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심지어 유다의 귀환을 선포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출현도 알림

오늘은 43장 < >, 총 28절

대언서 이후의 대언, 3가지 의미, 1. 당대에 대한 경고, 2. 바빌론 포로 생활 및 귀환, 3.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귀환

여기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대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베냐민 지파의 유대인들 그리고 재림 때의 12지파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절망하며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빌론을 잊고 예루살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놀랍고 새로운 구원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redemption)이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실 것이다(43:1).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1-7)

1절: 구속자 하나님

구속의 개념: redemption, 구속이라는 이사야서에만 적어도 27번, 매우 많이 나온다.

(사29: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께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게 되지도 아니하리라.

(사 63:16) 틀림없이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구속자, redeemer 총 18번(구약에만), 그중 이사야서에만 13번(41:14; 43:14; 44:6; 44:24; 47:4; 48:17; 49:7; 49:26; 54:5; 54:8; 59:20; 60:16; 63:16)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구속, 재림의 때 이스라엘 구속

특히 친족 구속자(레25:23-28)

친족 구속자(기업 무를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goel :redeemer)이다. 구약의 율법(레위기)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 상속 유산을 주셨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 자신의 땅이나 사람을 팔 수 있지만 희년 제도를 통하여 50년까지만 팔 수 있다. 유대인은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50년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친족 중에 팔린 사람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친족 구속자라고 한다. 즉 어떤 사람의 상속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친족이 상속 유업을 무를 자(친족 구속자)이다.

룻기의 친족 구속자 보아스를 보라.

룻기에서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로 나온다.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룻을 구속한다. 죽은 남편의 모든 권리를 사면서 룻의 남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룻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족 구속자로 오셨다.

구속은 물려서 구원해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무르기 위해서는 대속 값이 필요하다. 구속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로 노예시장에 팔려나갔다.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롬3:23-24).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물러주셨다는 것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속죄 값을 치르고 바빌론에서 유다(이스라엘)를 구속하는 분이시다.

2절: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로 돌아감.

3-4절: 그런데 구속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가 이교도 국가(43:3)

이것은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과 상관이 있다.

의역을 하자면 페르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세바 사람들을 대신 희생물로 내주었다.

고레스의 아들은 후에 이런 나라들을 침략해서 획득함

5-6절: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부른다. 원래는 재림의 때

7절: 이스라엘 창조의 목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43:8-13)

8절: 눈이 먼, 귀가 먼 이스라엘을 부른다(8).

9절: 이교도들을 다시 재판정으로 부른다. 41장처럼

10절: 이스라엘은 주님의 증인, 여기서 여호와와 증인 출현,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의 자기들로 오인함.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증인들: 나무위키

여호와와 증인(Jehovah's Witnesses, JW)은 1870년대 초 미국의 성경학자 찰스 테이즈 러셀(Charles Taze Russell, 1852~1916)이 조직한 소규모 성서 연구 집단에서 발전하여 1884년에 사업가 윌리엄 H. 콘리 등과 함께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Zion's Watch Tower)를 설립하면서 조직된 기독교 계열의 신흥 종교이다. 다수의 개신교 교파는 이를 이단으로 간주한다.

현재의 명칭인 '여호와와 증인'은 러셀이 죽은 지 15년이 지난 1931년에 이르러서 러셀의 후계자 러더퍼드에 의해 채택된 명칭이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등에 근거함

특징: 19세기 미국 재림파의 시조로 여겨지는 윌리엄 밀러의 세상종말 예언이 대실패(1844년 대실패 사건)로 돌아간 후 분열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던 재림파 잔존 분파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종교이다. 일각에선 여호와와 증인이 안식교에서 나온 종교라고 말하지만, 둘 다 밀러의 재림교파 잔존세력들이 훗날 이합집산하고 교리적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후계 교파들일 뿐이다.

그들은 서기 2세기 이래로 여러 이교의 철학이나 관습들이 급속도로 기독교 내로 스며들어 참 믿음을 급속히 오염시켰기에 현재의 기독교는 상당한 부분에서 타락한 것이며 올바른 신앙을 위해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교적 모습으로 회귀하자는 소위 회복주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서기 2세기 이후로 참 기독교는 오염된 교리의 가라지에 급속히 덮여버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는 영적 어둠에 쌓여 있었다가 19세기 후반 러셀과 여호와와 증인의 등장으로 비로소 참 기독교가 세상에 재등장했고 1919년에 이르러서는 (1914년에 보이지 않게 임재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일한 참 그리스도교 조직으로 선택받았다고 믿는다.

주류 기독교와는 다르게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롯한 주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며 종말론 해석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내세우는 등)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가톨릭,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파와 같은 주류 기독교에서는 이 종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호와와 증인 본인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지만 개신교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개신교와 정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압적인 종교 교칙과 수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 단체를 사이비 종교로 보는 시선도 높아졌다.

전 세계에는 약 850만 명, 한국에는 약 10만 명의 신도가 있고 집회 장소는 왕국 회관이다.
집총 거부, 수혈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생일 축하 거부 등의 교리, 14만 4천 명
여호와와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 천주교 소수 사본,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창조된 신, 미가엘 천사장
한국에는 여증 딸고도 유월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10-12절: 특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의 증인

13-18절: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자 하나님의 행적

특히 과거의 이집트 탈출(16-17)

바빌론에서도 끌어낸다(14)

하나님의 존재 증거는 유대인이다. 1948년 5월 국가를 세움

이스라엘의 탈출(18-21)

이집트 탈출이 아닌 새 탈출, 특히 재림의 때에

렘31:31-34

19-20절은 천년 왕국, 이사야서 35장을 비교해 보라.

21절: 이스라엘은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할 자로 내가 지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22-28)

22-24절: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

주님의 용서(25)

26절: 변론하자(사1:18)

27-28절: 주님의 심판

27절: 네 첫 조상은 아담, 그러나 아담은 유대인들은 아담에 대해 자랑한 적은 없다. 아마도 야곱으로
보는 견해가 옳을 것이다(28절의 야곱 참조). 혹은 그냥 처음의 조상들을 대표한다고 봄.

28절: 성소의 통치자들은 제사장들, 바빌론에 의한 심판, 평민이 되고 말았다.

결론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상속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롬3:23-24).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1:18-19).

확신하는가?

이사야서 44장: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구속 계획과 유다의 회복
사44:1-28

배경 설명

시대적 배경: 1-39장, 아시리아, 40장 이후, 바빌론 포로 생활과 귀환, 이런 일이 생기기 15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출현도 알림
오늘은 44장 < >, 총 28절

여기에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대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베냐민 지파의 유대인들
그리고 재림 때의 12지파 이스라엘 족속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유다(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번 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자신을 제시하신다(6). 43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구속(redemption)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연이어서 44장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음(44:1-20)

1-5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조와 복(1-5)

2절의 여수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 이것은 '곧바르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구약 시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보지 않는 분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 준다(신32:15; 33:5, 26; 사44:2).

5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칭송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

1.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겠고, 3번과 평행
2.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4번과 평행
3.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기를 주께 드리고
4.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으리라.

이것은 사실 재림의 땅에 이루어질 내용, 슄8:23

6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사41:21), 그의 구속자(43:1), 군대들의 주(사1:9),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다(계1:8).

7절: 오래된 백성, 오래 전에 자신의 것으로 삼은 백성 이스라엘

그것: 앞으로 일어날 일, 8절의 그것도 마찬가지, 미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누가 밝히
보일 수 있느냐?

9-20절: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조(1-8)와 이교도들의 우상 창조 비교

“내가 너를 지었다 혹은 창조했다”(43:1, 7, 21; 44:2, 24)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짓고, 택하고, 구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마른 광야에 물을 주고 백성에게 영을 주신다(59:21; 율2:28-29).

이런 구절들은 최종적으로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스12:10).

주의 영광을 위하여

19-20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특징

9-20은 우상의 어리석음은 시115에도 동일하게 나옴(총 18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21-23).

21절: 너는 내 종이다.

22절: 내가 네 죄들을 지웠다. 구속하였다.

23절: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더하셨다.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24-28), 어떤 하나님인가?

24절: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존재다.

26절: 자기가 보내는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는 자이다. 유다의 도시들을 세우는 자이다.

27절: 바빌론 포로들이 돌아가도록 간을 마르게 하는 자이다.

28절: 고레스를 세워 자신의 뜻을 이행하는 자, 성전 기초를 놓는 자

드디어 고레스의 등장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사야서 주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다. 계획에 해당하는 영어 counsel, 이사야서에만 18번, 욥기 9번, 예레미야 11회, 대상 대하 12번

이 계획을 설명하는 히브리 단어는 'etsah 인데 '조언'과 '계획' 이라는 두 가지 뜻을 모두 담고 있다. 이 단어는 욥기 38장 2절, 42장 3절, 시편 33편 11절, 73편 24절, 106편 13,43절, 107편 11절, 잠언 19장 21절, 이사야서 5장19절, 7장 5-7절, 14장 26절, 25장 1절, 28장 29절, 44장 26절, 46장 11절, 예레미야서 32장 19절, 49장 20절, 50장 45절, 미가서 4장 12절 등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ya'ats는 하나님께서 조언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역대하 25장 16절, 시 16편 7절, 32편 8절, 이사야서 14장 24절, 19장 12, 17절, 23장 8-9절, 예레미야 49장 20절, 50장 45절 등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다른 어느 성경 기자들보다 이사야에게 중요한 주제였다. 인간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한다(29:15).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취한다(30:1). 인간적 측면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략을 제공한다(19: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다(사 7:5-9). 그러므로 인간 지도자들은 계획과 전략을 세우겠지만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8:10).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놀랍고 일을 행하시는 것은 뛰어나다.” (28:29).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인간이 그 계획을 드러내거나 그 계획을 속히 실행하도록 하나님을 재촉할 수는 없다(5:19). 하나님의 계획이 두로(23:7-9)와 이집트(19:1417)와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향해 작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14:26).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서리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14:24).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14:27).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니이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25: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삼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들을 대언자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수행하신다(44:26).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부터 굽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46:10-11).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 (11:2)을 가진 '놀라우신 분'(9:6)이 될 메시아를 보내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결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 있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사야서 45장: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선포: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사45:1-25

지난 30년 동안 성경 번역, 그 이후에도 자주 읽는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너무 어려운 데가 많다. 성경 번역자도 이해가 어려운데 대다수 독자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서 66장을 한 장씩 강해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44장까지 했다. 더운 여름에 강해를 준비하면서 고생도 했지만 나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이 책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교회를 찾으려면 안 된다. 2차, 3차 적용에만 해당된다.

앞부분 1-39장은 아시리아와의 관계, 뒷부분 40-66장은 바빌론과의 관계

이러면서 중간 중간에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

41-44장,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도구가 있다: 고레스(41:1-7), 메시아(42), 이스라엘 백성(43-44)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도 종, 이스라엘도 종, 잘 구분해야 한다.

지난 2시간, 43, 44장, 43장에서는 구속이라는 말, 구속자라는 말, 이사야서는 구속에 대한 책 4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성취하시는 분 이런 면에서 다른 신은 없다.

45-47장은 바빌론의 멸망, 이를 위한 도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주요 주제: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45:5-6; 14, 18, 21-22; 46:9).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참 하나님이다(46장).

오늘 < >, 45장 강해, 총 25절, 고레스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고레스 이야기

하나님은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 BC 700년경에 이사야 대언자, BC 536년에 고레스가 유다 귀환 칙령 발표, 그의 출현이 있기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밝히 보이며 그가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을 예언하심(사44:28)

1-4절: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그는 목자(44:28), 기름 부음 받은 자(45:1),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육식성 굶주린 새(46:11),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41:25).

기름 부음 받은 자(45:1), 메시아.

하나님은 대언자, 왕,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도(이방인도) 임명하신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단4:34-35).

고레스에 대해서는 단8:3-4, 20

2절: 하나님이 고레스를 위해 직접 일하심

3절: 이방 민족들로부터 각종 보화를 받게 하심. 이로써 고렛의 출현 150년 전에 고레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심. 즉 고레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4절: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도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 역사 경영에 대한 것이다. 에라스무스 같은 천주교 사제를 사용해서 공인 본문 그에게 이름을 주심(별명을 붙인다): 그는 나의 목자,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5절: 나는 주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출3:14)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출20:1-6).

그는 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임무를 준다.

띠를 띠어 준다: 힘을 준다. 강하게 한다.

6절: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나는 주니라. 성경에 총 164번(창15:7, 말3:6), 에스겔서 68회, 이사야서 12회

7절 설명: 해악, 자연 재해(기근, 해일, 역병, 악한 짐승), 죄가 아니다.

앞뒤 문맥상 바빌론 포로 생활, 유다로 귀환하는 것도 내가 한다.

8절: 하나님이 의와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과 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옳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또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 엘로힘은 창조자

여기의 그들은 '하늘들과 땅', 의인화

그 일은 의와 구원

9-10절: 9절의 의미: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창조물

원래 의미 고레스와 다투는 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다. 롬9:20-21

11-1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분, 그분의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아들들(많은 아들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신약의 양자들)

우주 공간을 지은 목적, 하늘들의 모든 군대(창2:1)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렘31:35-37; 33:25-26)

나 홀로 대답할 수 있다.

여기의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13절: 고레스를 세운 구체적인 목적

14절: 여기의 '너'는 예루살렘(13절의 나의 도시), 이방 민족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섬김, 칭송함,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슥8:22-23).

15-17절: 하나님과 우상들 비교

15절: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신다(롬11:33).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또는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다. 심지어 고레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16절: 이교도들, 그들의 우상 제조자들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분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한다(17). 창15:5, 17:6-8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18절: 땅을 창조한 목적, 재창조 구절이 아니다. 땅은 영원히 사람의 거주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닌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9절: 모든 것을 기록을 통해 알리신다. 계시. 영감, 보존, 번역

주를 헛되이 찾지 말라. 우상들을 찾는 자들은 아무 보상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헛되이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의 하나님, 우상들과 달리 그분은 옳은 것들을 알리신다.

20절: 여기의 도피한 자들은 1. 이스라엘, 2. 고레스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상들을 부인한다.

21절: 41:1과 비교하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식이 없다.

누가 이런 것을 예언하느냐? 나 외에는 없다.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 이스라엘을 보라.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우상

22절: 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스펠전(1834-1892)의 회심 구절, 온 세상을 향한 말씀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눈이 엄청 많이 내렸다. 15세 소년 스펠전은 폭설로 길이

막혀 늘 다니던 교회로 갈 수가 없었다. 가는 길목에 아주 작은 교회가 보였다. 열 명 남짓 시골

농부들이 모여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소년 스펠전은 목회자 가정에서 출생하여 늘 경건한 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남보다 빨리 찾아온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뛰어난 그는 '천로역정'은 여러 번,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었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어두운 방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그날 목사님은 눈길에 막혀 오지를 못했다. 구두 수선공 같아 보이는 집사님 한분이 목사님을 대신하여 설교를 시작했다. 그날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그 집사님은 어리숙해 보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다.

"땅의 모든 끝의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설교자는 마침내 따로 떨어져 앉아 있는 스펠전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 소년은 외롭고 불안해 보였다. 설교자가 외쳤다. "가엾은 소년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순간 그 메시지는 뜨거운 불이되어 소년의 마음속 깊은 어두움을 불살라버렸다. 암흑 속에 한줄기 구원의 빛이 되었다. 짧은 설교였다. 그분에게는 사실 그 이상 더 얘기할 능력이 없었다.

소년은 비로소 죄에서 탈출하여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환희의 순간이었다.

스펠전의 회심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히12:1-2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

1. 단순하다(19절과 다르다, 헛되지 않다. 고후11:3-4). 2. 거저 받는다(롬5:15-17). 3. 확실하다(23, 말씀으로 기록됨). 4. 유일하다(24, 오직 주님 안에서만), 5. 영원하다(17)

23절: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사55:10-11). 롬14:11

24절: 구원받은 자의 고백. 그분을 대적하며 분노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25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구출을 받는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물론 천년왕국에서의 일

에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결론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는 주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여기는 고레스, 유다의 귀환
그분은 계획을 예언하시고 제때에 성취하신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다.

45:21, 다른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사야서 46장: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사46:1-13

앞부분 1-39장은 아시리아와의 관계, 뒷부분 40-66장은 바빌론과의 관계

이러면서 중간 중간에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

41-44장,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두려워하지 말라

45-47장은 바빌론의 멸망, 이를 위한 도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지난 주, 45장, 하나님의 종 고레스(45:1), 나는 창조자다(12). 나는 예언의 하나님이다(21).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45:5-6; 14, 18, 21-22;

46:9). 내가 너희를 바빌론에서 다시 데려온다. 22절 구원 초청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 >, 46장 강해, 총 13절,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참 하나님이다.

46장의 우상 숭배

1절: 벨과 느보: 바빌론의 대표적 우상, 벨은 아마도 바알, 느보는 그의 아들

원래 바빌론 사람들이 그것들 앞에 엎드려 경배함, 이제 이것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절함

우상들이 짐승에게 실려 다니며 짐승의 짐이 되고 만다. 나뭇조각 들덩어리

롬1:22-23, 하나님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우상

2절: 여기의 그들은 아마도 바빌론 사람들, 풀로로 잡혀감

3-4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참으로 귀중한 말씀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신다(시139:13-16).

5절: 하나님의 도전

6절: 우상 제조, 인간들의 어리석음

7절: 우상의 특징, 말을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8절: 그런 것을 만드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정신을 차리라.

너희가 남자임을 보이라:

1.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바르게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2.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임을 잊지 말라.

9절: 옛적의 이전 일들: 창조, 홍수, 바벨 탑, 아브라함, 모세,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등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

10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인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심.

창3:15 메시아, 창15장 이스라엘, 결국 이루신다.

11절: 이사야를 통해 150년 전에 고레스를 부르심. 그것을 성취하심

개역처럼 동방의 독수리가 아니다.

12절: 구원 초청, 회개 촉구, 의에서 떠난 자들

13절: 의를 가져오심,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

가까운 미래: 바빌론 포로 귀환

먼 미래: 재림의 때에 아마겟돈 전쟁 등에서 구원하시는 것

결론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메인 아이디어 주석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약속한 일을 행하는 분이시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약속들을 성취해나가는

하나님의 길을 제한하려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면 무언가 잘못되었

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선하며

의로운 것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옳고 선하며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우리가 우리 방식을 고집하는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면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다.

▣ 진리 알기

-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은 그 어떤 일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의와 구원의 새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분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행하실 것이다.

인류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자.

바빌론에서 유다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사26:3

이사야서 47장: 바빌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말씀

사47:1-15

앞부분 1-39장은 아시리아와의 관계, 뒷부분 40-66장은 바빌론과의 관계

이러면서 중간 중간에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

41-44장,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두려워하지 말라

45-47장은 바빌론의 멸망, 이를 위한 도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지난 시간 46장, 바빌론의 우상들이 바빌론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아신다.

그들에게 의와 구원을 주신다. 이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알리고 성취하신다.

오늘 < >, 47장 강해, 총 15절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바빌론은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아무 소망 없이 지냈다.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써서 바빌론은 멸절시키고 유다의 귀환을 선포하게 하심

그 계획으로 인해 바빌론은 멸망하게 됨

바빌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1-3절: 여자가 넓적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벌거벗는 것과 같다.

바빌론 사람들이 강 건너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 묘사함

4절: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5절: 바빌론의 수치, 더 이상 영예와 존귀를 얻지 못한다.

6절: 바빌론이 유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음

7절: 바빌론의 교만, 유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 것

여기의 그것, 교만, 교만의 끝은 패망이다.

8절: 바빌론의 영화가 다 끝나고 만다. 궁극적으로 계17-18

9절: 하루에 망한다(렘50-51, 총 110절). 계17-19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빌론, 정치적, 종교적, 사회 문화적 바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

10절: 이유: 자기의 사악함을 신뢰함,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11절: 해약, 악한 일, 황폐함이 닥친다.

12-13절: 이방 종교의 특징, 마술, 마법, 별을 살피고 예언하는 자들

14-15절: 그들은 다 망한다. 아무도 바빌론을 구출하지 못한다.

적용

영킨 실 풀기: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 메인 아이디어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아이들을 위해 막대기 끝에 달린 작은 인형을 선물로 가져왔다. 아이들은 그 인형을 갖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발로 차고 던지며 마치 공처럼 가지고 놀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형의 실이 꼬이고 매듭이 생기면서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벽난로 장식 선반에 달려 있는 고리에 그 인형을 매달아놓았다. 그리고 찬찬히 정성 들여 인형의 영킨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드디어 실이 다 정리되었고, 인형은 다시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인형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포로 생활의 삶이 그들을 강타해 멍들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안전하게 지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버려진 삶을 살며, 마치 영겨진 실타래처럼 된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쓸모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다. 이스라엘

은 "아, 안 돼요!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미 우리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놓으셨잖아요. 다시 돌아와 떠맡으려 하지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나만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너희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구원할 계획이 있다."

적용: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버림받고 잊힌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는가? 세상에서 학대받고 잘못 남용된 인형처럼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영킨 실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의심을 버리며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대하신다.

바빌론에서 유다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사26:3

이사야서 48장: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사48:1-22

앞부분 1-39장은 아시리아와의 관계, 뒷부분 40-66장은 바빌론과의 관계

41-44장,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두려워하지 말라(43:1-3)

45-47장은 바빌론의 멸망, 이를 위한 도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45:1-4)

지난 시간 47장,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

오늘 < >, 48장 강해, 총 22절, 신실함이 없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단련하기 위해 새 일을 하신다. 그리고 고레스를 데려다가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빌론에서 돌아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48장: 이스라엘이 단련됨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유: 우상 숭배, 정의 구현 실패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대로 안주함, 예레미야의 말(렘29:4-7)

그럼에도 그곳은 그들의 땅이 아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1-2절: 이들의 위선, 선민의식, 그러나 선민 행세는 곤란함(사1:10-15; 롬10:1-3)

종교적인 상투어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이 한다.

신약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

딤후3:5,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구원받은 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신비가 사라진다.

일에 치여 산다.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일을 한다.

계2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2:5).

3절: 하나님은 이전의 일들을 미리 알리고 그대로 이루셨다(창15를 보라).

4절: 그런데 그들은 고집이 세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5절: 그것들을 미리 알려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을 통해
우상에게 공로를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6절: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것,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

7절: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다. 이제 밝히 드러났다. 너희가 처음 알게 되었다.

8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태에서부터 범법자, 들으려 하지 않는다(사6:9-10).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 내 이름과 내 찬양을 위해서

10절: 이스라엘의 단련, 과거 이집트 생활도 용광로, 지금도 용광로

사실 맨 마지막 때 3년 반의 대환난도 용광로(슌13:9)

11절: 바빌론 포로 귀환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주님은 영광을 홀로 받으신다.

12-13절: 나는 창조자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귀환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 주는 일: 천지 창조, 하늘들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다. 혹은 명령대로 따르다는 말

14절: 바빌론은 멸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의 팔(arm) 무기

15절: 고레스, 45:1-4: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그는 목자(44:28), 기름 부음 받은 자(45:1),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육식성 굶주린 새(46:11),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41:25).

16절: 이 일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일이다.

16절의 후반부에서는 화자가 바뀐다. '나를 보내셨다' 1. 나는 이사야 대언자, 2. 메시아 그리스도 후자의 경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그분의 영 그리고 나, There am I.

보내신 목적: 복음 선포, 율법 성취, 하나님의 백성 구속

49-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 여기에 대한 도입

17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체를 밝힘

18-19절: 처음부터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너무 늦었다. 그들은 이미 용광로에 있다(10).

20절: 너희 이스라엘아, 주님이 너희를 구속하셨다고 민족들에게 알려라.

21절: 이집트 탈출과 같이 바빌론 탈출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음을 알려라.

22절: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18과 비교

범법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 peace: 평안, 평강, 화평, 평화, 기쁨, 형통
같은 구절(사57:21). 20절을 보라. 아마도 바빌론이 좋다고 여기며 남으려는 자들
특히 죄를 지으면 양심에 평안이 없다.

화평, 평화, 평안에 대하여

peace: 429번,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

화평, 평화의 의미: 영어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내란이나 적대 행위가 없는 상태, 또는 내외부의 분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소극적인 그림을 연상시킨다. 중동 평화 협정 등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그보다 더 큰 의미이며 '완전하다' 또는 '건전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네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1. 생명 또는 신체의 온전함(즉, 건강)
2. 두 당사자 또는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 또는 조화, 종종 언약에 의해 성립된다(민25:12-13,
사54:10, 겔34:25-26 등 참조). 하나님과 죄인의 경우 화평이 깨지면 "화평 헌물"로 갱신되거나
유지되었다.
3. 번영, 성공 또는 성취(레26:3-9 참조)
4. 적에 대한 승리 또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 샬롬, "당신의 삶이 건강, 번영, 승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상대방에
게 축복을 전하기 위한 말이다.

화평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여호와 샬롬"(삿6:22-24 참조)이시므로 평화의 원천이시다.
주님은 죄 많은 인류에게 역사적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오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은 그분의 임재로 봉인되었다(민
6:24-26).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완전한 화평이 주어진다(사26:3, 살후 3:16 참조).

의와 평화의 관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 결과 그들은 그분이 주신 샬롬을 '강물처럼' 풍성하게
받게 되었다(사48:18 참조). 그러나 주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으면 평화가 깨질
수 있으며, 사실 평화는 의의 열매 중 하나이다. 사32:17-18은 천년왕국의 평화
의의 일은 화평이 되겠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과 확신이 되리라. 내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와
안전한 처소와 조용히 안식하는 곳에 거하겠고.

시편 기자는 이 둘의 관계를 의와 평화가 서로 입 맞추는 것으로 시적으로 묘사한다(시85:10).

시85:8-12 전체 문맥에서 보라.

반면에 성경은 사악한 자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사 48:22, 57:21).
사악한 자들: 이사야서의 경우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로 귀환하는
것을 선포하시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57:15-21 설명

특히 구약의 대언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평화"(평안)라는 교리였다. 거짓 대언자들은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를 선포하였고 백성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진정한 대언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얻는 평온함을 뜻하며 메시아 예언과도 관련이 있다(사9:6-7). 그리스도의 출생 때에 천사들은 이런 화평을 선포하였고(눅2:14) 예수님도 산상설교와(마5:9) 주의 만찬에서 이런 화평에 대해 말씀하셨다(요14:27). 사도 바울은 이런 화평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한다(롬5:1).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상황에 맞추어 화평, 평화, 평안 등으로 번역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롬5:1, 엡 2:14-17, 골 1:19-20, 히 13:20 참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선언했다(행10:36).

결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평화에 참여할 몫이 없고, 참되고 견고하며 내적인 양심의 평화도 없으며, 말세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과 번영에도 아무런 몫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가?

빌4:6-7

샬롬

이사야서 49장: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방인들의 빛

사49:1-26

41-44장,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들, 두려워하지 말라(43:1-3)

45-47장은 바빌론의 멸망, 이를 위한 도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45:1-4)

지난 시간 48장 강해, 신실함이 없는 유대인들(겔으로만 하나님을 섬김, 48:1),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단련하기 위해 새 일을 하신다. 그리고 고레스를 데려다가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빌론에서 돌아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49-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

49장은 메시아와 이방인들의 관계, 50장은 메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51-52장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오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는 이방인들의 빛> 49장 강해 총 26절

1절: 메시아가 이방인들(섬들)을 부름, 메시아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정됨, 이미 이름이 주어짐. 예수, 임마누엘(마1:21; 23).

2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심(2), 예리한 입, 보호(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심), 주의 종들은 예리한 입의 무기, 화살을 가져야 한다.

3절: 너는 나의 종이다(3), '오 이스라엘아', 여기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할까? 어려운 구절이다.

진짜 이스라엘 혹은 메시아, 그러나 4-6절은 후자 지지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통치자(창32:28)

사실 유대인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메시아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혹은 새로운 이스라엘

실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종 메시아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요13:31)

4절: 메시아의 고백, 헛되이 수고하였다. 따르는 자가 별로 없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

5절: 메시아의 초림 사역, 유대인들의 반발, 그들이 흩어짐(마23:37). 그럼에도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6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6), 재림의 때에

메시아는 또한 이방인들의 빛, 그들의 구원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과 먼저 관계를 맺고 후에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눅1:31, 33, 68; 2:30-32; 롬15:8-9; 갈4:4-5).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

7절: 메시아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자, 이사야서 53장

그러나 결국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분께 경배한다(빌2:5-11).

8-13절: 메시아는 자유를 가져다준다. '새로운 모세'와 같은 존재, 바빌론 포로 생활 탈출

아버지의 약속(8): 여기의 너는 1차적으로 메시아, 너의 기도를 들었다(히5:7). 고후6:2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9-10), 사61:1-2

특별히 재림 시 이스라엘의 귀환(11-13)

시님 땅은 중국을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많은 유대인들 상하이 거주

14절: 이스라엘의 한탄

14-50:3까지는 낙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소망의 말씀

14-23: 동정심 많은 어머니, 24-26 용맹한 용사, 50:1-3, 꾸준히 사랑하는 연인

15-17절: 아버지의 대답, 참으로 귀중한 대답

18절: 이스라엘의 모임, 이들이 모인다. 사66:19-20

19절: 땅이 비좁다.

20-21절: 많은 자녀들이 생긴다, 겔36:24-28

22-23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평화의 천년 왕국
용맹한 용사 하나님

24절: 어떻게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받는 일이 가능하나?

25-26절: 내가 한다. 나는 야곱의 강력한 자(mighty one)이다.

결론

49:24,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과연 우리가 구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이 역시 구출해 주신다.

이사야서 50장: 주의 종 메시아와 아버지와의 관계

사50:1-11

49-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

49장은 메시아와 이방인의 관계, 50장은 메시아와 아버지의 관계, 51-52장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지난 시간 49장: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방인들의 빛이다. 1절: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부르심
오늘 < > 50장 총 11절, 특별히 종 메시아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49장 14-50:3,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4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꾸준히 사랑하는 연인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1-3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54:4-5; 렘2:1-3; 3:1-11; 호2:1 등)

언제 결혼했는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출19-20), 19:5-6

그런데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이혼 규정(신24:1-4; 마19:1-12), 이혼 증서의 의미: 결혼 파기, 다른 사람과 결혼 가능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본래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신24:4)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혼함(렘3:8), 아시리아와 결혼하고 간음함, 돌아오지 못함

남 왕국 유다: 창녀 짓을 했으나 이혼은 아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감

자녀들을 파는 일: 가나한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팔(왕하4:1-7; 느5:1-5).

그러나 유다의 경우 스스로를 팔. 주님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2-3절: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듣지 않음

2절: 내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이다. 나는 너희를 구출할 수 있다.

3절: 나는 이집트에 어둠의 심판을 가져왔다.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49장 14-50:3까지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나는 아이들의 다정한 어머니이다. 나는 용맹한 용사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연인이다.

4-11절은 주의 종 메시아와 아버지와의 관계

여기의 종은 메시아를 나타낸다.

이사야서 종의 노래 4개

1. 사42:1-7, 2. 49:1-6, 3. 50:4-11, 4. 52:13-53:12

1, 2번에서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

오늘 3번에서는 메시아의 고난, 4번: 더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50:4, 5, 7, 9, 총 4차례 주 하나님(Lord GOD, 아도나이 여호와), 다른 노래에는 안 나오음,
주(아도나이)는 주인

그러므로 종은 아버지를 자기의 주인으로 부름, 완전히 복종함

지금 우리가 '주여' 하며 기도할 때 아도나이로 부르는 것이다.

1. 그의 마음(4)이 그분께 복종함

메시아는 아버지에게서 배움(4). 메시아의 가르침은 모두 아버지에게서(요5:19, 30; 6:38; 8:28),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게 기도하여 인도를 받음

학식 있는 자의 혀와 귀

2. 그의 의지(5)가 그분께 복종함

귀를 연다는 표현, 듣고 따르겠다. 그 결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함(5-6)

3. 그의 믿음(7-11): 모든 일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겠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확고히 세움(눅9:51; 요18:1-11).

나와 다름 자가 없다(8)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9)

4. 권면(10), 특별히 유대인 포로들을 향한 권면,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길 말씀,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어둠 속에서 걸으면서 아무 빛도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밝은 빛으로 말씀하셨으니 어두운 시간에 의심하지 말라.

마르틴 루터 등 개혁자들, 성경 신자들

5. 반대하는 자들의 운명(11)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한다. 고통 속에 눕는다.

결론

나는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속하는 사람인가, 11절에 속하는 사람인가?

이사야서 51장: 무감각에서 깨어나라는 주님의 권고

사51:1-23

49-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

49장은 메시아와 이방인의 관계, 50장은 메시아와 아버지의 관계, 51-52장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53장은 메시아의 일대기, 고난 죽음 매장 부활 등

지난 시간 50장: 하나님의 종 메시아와 아버지의 관계, 메시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
뒷부분 위로의 말씀

오늘 < > 51장 총 23절

51장: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고

51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됨

1. 1-8절: 포로들을 향한 주님의 권고
2. 9-16절: 주님께서 일어나 일하심
3. 17-23절: 다시 한번 주님이 깨라고 권고하심

1. 1-8절은 주님의 권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너희의 내부를 보라.

권고의 대상: 사50:10절 사람들

1-3절: 과거를 돌아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1).

1절, 반석과 구멍,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만들 때 그의 상태가 오래된 바위처럼 무언가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 구멍이는 그 바위를 캐낸 자리.

그런데 창12-25, 이 두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히11:8-12),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나를 믿으라.

3절: 소수의 바빌론 포로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4-6절: 앞을 보라. 판단의 공의(4), 의와 구원(5), 특히 영원한 구원(6)

4-5절의 내, my, my, my, 내 판단의 공의, 내 의, 내 구원, 내 팔들 등

4-5절: 사2:2-4, 바빌론 포로 해방, 천년왕국

주의 팔(5절, 30:30; 40:10 등 이사야서에서 여러 곳), 하나님의 강력하심

6절: 의와 구원은 영원하다. 또 말씀도 영원하다(마24:35).

하나님의 의인들도 영원하다(단12:2-3). 특히 3절

7-8절: 내부를 보라.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7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8절: 또 다시 강조함, 내 구원, 내 의는 영원하다(8).

2. 9-16은 주님이 일어나 일하심을 보여 준다.

9-11절: 이스라엘의 기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은 주무신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신다.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 때처럼 자기들을 팔로 안아 주시기를 고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바빌론 해방은 또 하나의 exodus, 항상 이집트 탈출과 비교됨(사43장과 49장 참조)

9-10절은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하신 일, 11절은 그 결과

9절의 라합: 이집트 혹은 파라오 상징(시87:4; 사30:7; 51:9)

그 용(사27:1, 계12:9)

12-16절: 하나님의 대답

- 12절: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13절: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압제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너희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
 15절: 나는 홍해를 가른 자다. 군대들의 주다.
 16절: 하나님의 위로

3. 17-23절은 다시 한 번 무감각에서 깨라는 경고

- 17절: 예루살렘아, 깨라, 분노의 잔을 마셔서 거의 감각이 없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17), 분노의 잔, 바빌론의 침략
 18절: 예루살렘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19절: 두 종류의 재앙, 황폐함과 파멸은 땅에, 기근과 칼은 백성에게, 혹은 기근과 칼이 황폐함과 파멸을 가져옴
 20절: 그 결과
 21절: 이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취함
 22-23절: 하나님의 약속, 바빌론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있다.
 비참한 상태의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결론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불안하다.
 심각한 좌경화, 옳고 그른 것을 모른다.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문재인 시대: 사회주의, 경제 폭망(탈원전, 태양광 등), 대기압 규제 공유화, 국경 개방, 군대의 기강이 무너진다. 교육이 망가진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러나 51장 12-13절 말씀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나마 자유에 대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갖게 된 것 감사하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사야서 52장: 바빌론을 떠나라는 주님의 권고

사52:1-15

49-53장까지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

49장은 메시아와 이방인의 관계, 50장은 메시아와 아버지의 관계, 51-52장은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지난 시간 51장: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잠에서, 무감각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권고
오늘 < > 52장 총 15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옷을 입고 떠나라는 주님의 권고

깨서 옷을 입으라는 주님의 권고(1-6절)

1-2절: 시온은 잠에서 무감각에서 깰 뿐만 아니라 옷도 입어야 한다(1).

무감각(51:17-23)에서 깨어나서 영광의 옷을 입으라. 목의 띠를 풀어라.

유다를 괴롭히던 바빌론(왕비)은 끝이 났다(47:1, 9). 이제 예루살렘이 왕비처럼 일어난다.

1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8회(느11:1,18; 사48:2; 52:1; 단9:24; 마4:5; 27:53; 계11:2)

왜 거룩한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됨. 부정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자 바빌론과 로마가 예루살렘을 훼파함

3절: 그들의 구속은 거저 이루어진다(3).

4-5절: 이집트의 속박, 아시리아의 압제(이사야 당시 유다 압제), 바빌론의 포로 생활과 학대는 모두 끝났다.

물론 이 말씀의 최종 성취는 메시아의 재림에 의해 이루어짐(사61:4-11).

5절: 바빌론 포로 생활 당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음(시115). 115:2

사도 바울의 로마서 2:24는 사52:5 인용

6절: 그런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주님의 이름을 알 것이다(52:6).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안다는 것이다.

이름은 곧 그 인격체를 말한다.

떠나라는 주님의 권고(7-12절)

7-8절: 드디어 해방의 기쁜 소식, 1차적인 의미 바빌론 포로 생활을 벗어난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빌론 정복, 드디어 유다가 다시 돌아가게 됨(역대기하36:22-23, 스1:1-3)

지금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죄,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함(롬10:14-17)

롬10:14-17은 원래 바울이 불신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

특히 15절, 많은 이교도 민족들이 복음을 수용하여 복을 받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 공유해야 한다(7-8; 나1:15).

9절: 예루살렘의 구속과 기쁨

10절: 민족들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의 팔

사45:22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11-12절: 바빌론에서의 귀환, 여기의 그녀는 바빌론, 주의 집의 기구들(12), 에스라 1-2장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11). 바빌론의 것들, 고후6:14-7:1

하나님께서서는 성전의 기구들을 나르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그녀[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몸을 정결하게 하라”(사52:11).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순종해야 할 좋은 명령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주님의 사역도 더럽힐 것이다.

거룩한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는 원인이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주님이 직접 앞뒤에서 인도하신다(12). 이집트 탈출과 마찬가지로

대언자는 12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결론

다음 주제: 누가 이 일을 이루는가? 메시아가 이룬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이스라엘 귀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심

메시아 사역의 메시지가 마지막 종의 노래인 사52:13-53:12까지 총 15구절에 들어 있다.

52:13-15절은 이사야서 53장과 함께 강해해야 할 말씀이다.

2부 40-66장, 숨 가쁘게 40-52장까지 왔다.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 및 귀환 150년 전에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

결국 메시아가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준다.

갈4:4-5의 성취

롬15:8-9, 항상 유대인 먼저 그 뒤 이방인

이사야는 네 번째 종의 노래인 사53장을 위한 길을 준비했다(52:13-53:12).

우리 역시 거룩한 땅을 걷고 있으므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의 에베레스트: 이사야서 53장

사52:13-53:12

올해 들어 이사야서 강해의 필요성을 느낌.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해 없이 읽으면 안 되므로 목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의무

이사야서 66장, 지금까지 52장을 강해함. 나의 많은 무지 발견, 동시에 하나님의 큰 위로 발견 가능하면 에스겔서, 호세야...등 잘 다루지 않는 성경들 장별로 강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서는 1부(1-39장)와 2부(40-66장)로 구성됨. 1부는 주로 이사야 당시의 아시리아 대상 2부는 150년 뒤의 바빌론 대상, 그러면서 메시아, 재림 등이 중첩되어 나온다.

이사야서 2부에는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서 주의 종 메시아의 노래가 네 번 나온다(42:1-7; 49:1-6; 50장, 53장)

오늘 < > 메시아의 네 번째 노래,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 구약 성경의 최고봉

52장 13절-53장 12절: 이사야서의 최고봉

40장 이후, 51-52장 계속해서 메시아 사역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바빌론 해방, 재림 시 이스라엘 구원

오늘은 53장을 통해 이 일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모든 것을 강해하려 한다.

메시아 노래는 53장만이 아니라 52장 13-15와 53:10-12절 총 15절, 5소절(3절씩)

사53장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약 40회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구약 성경 학자 카일 예이츠: 주의 종 메시아의 네 번째 노래는 5소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세계 최고봉(8848미터)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 등산가 에드먼드 힐러리, 에베레스트 정복

그런데 구약성경의 에베레스트인 사53장은 정복이 불가능하다. 봉우리가 계속 나온다.

요약: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성경의 복음서, 구약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처럼 아름답고 웅장하다.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서 구약 성경의 일부를 읽는다. 52주 동안 읽어야 하는 성경 구절 리스트가 있고 원래 이사야서 53장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이 부분을 읽었다.

랍비들도 12세기까지는 이 부분을 주의 종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함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므로 그 이후부터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이스라엘로 해석함 문제 8절, 그대로 읽으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니까.

그 이후로 의도적으로 성경 읽기 일과에서 이사야서 53장 제거

그러나 52:13절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마8:17; 막15:28; 눅22:37; 요 12:38; 행8:27-40; 뵤전2:21-24 등).

다시 강조하지만 메시아의 네 번째 노래는 53장만이 아니라 52장 13-15와 53:10-12절 총 15절, 5소절(3절씩)

첫째 소절: 메시아 찬양과 이유(52:13-15)

메시아 찬양,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종(52:13-15), 순서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다.

13절: 종에 대한 찬양

14절: 메시아 사역의 결과, 종이 능욕을 당한다.

15절: 메시아의 사역 결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복음 선포, 영광이 다 들어 있음

고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직무 수행자에게 손바닥으로 매를 맞음(요18:22)

가야바 앞에서 그들이 그분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머리를 침(마26:67; 막14:65; 눅22:63)

빌라도가 채찍으로 그분을 때리게 함(요19:1; 마27:26; 막15:15). 그의 군사들이 때림(요19:3).

당시 채찍질은 무서운 형벌, 많은 경우 채찍질로 죽은 사람도 있다.

가시로 만든 관의 독(14)

14절은 시22편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함

그런데 고통과 고난의 결과 1. 종이 격찬을 받음(13), 빌2:5-11, 골2:13-15, 52:15

요17:1, 4

2. 메시아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달됨(15)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자 모두 유죄로 인해 입을 다문다.

복음의 핵심 중 하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다”(고전15:1-4).

그래서 모두 입을 다물게 된다.

복음의 메시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정죄를 받는다.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은 메시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려면 우리가 정죄받을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단9:26). 육십이 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15절의 뿌린다, 피를 뿌린다. 혹은 나병에서 벗어난 사람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다(레14:1-7, 16; 16:141-15).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구속이 거저 주어짐을 선포할 수 있다(벧전1:1-2).

53장: 메시아의 일생과 업적(53:1-12)

53장은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1-4), 죽음(5-8), 매장(9), 부활과 칭송 받음(10-12).

주제: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 대신 속죄(Vicarious atonement)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십자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확실함

둘째 소절: 메시아가 수치를 당함(53:1-3)

1절: 주님의 팔, ARM, 강한 것 표시, 2절의 연한 초목과 대조

그리스도께서는 강력하시지만 수치, 연약함을 몸소 당함

창조 및 이집트 탈출: 강한 손, 손가락, 그러나 죄인들 구속: 가장 연약한 모습

그리스도의 연약한 모습: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 여관의 마구간, 목수, 가난한 삶, 여우도 굴, 새도 보금자리, 머리 들 곳이 없다(마8:20).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음(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

대언자의 증언(사53:1), 요12:37-38, 롬10:16

셋째 소절: 메시아가 매를 맞아 속죄함(4-6)

4절: 죄 없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로 대신 죽음

레위기 16장 속죄일(7월 10일)의 메시지(히9:7), 유대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마8:14-17에 이 부분이 인용됨

우리의 고통, 병의 원인: 아담의 타락

우리(our)가 많이 나옴, 고통, 슬픔, 범법들, 우리, 우리, 우리

5절: 부상을 당함: 십자가에서 못 박힘(시22:16; 눅24:39-40), 창에 찔림(요19:31-37; 슥12:10;

계1:7),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니다. 원래는 돌로 쳐서 죽임

공의의 율법은 죄 지은 자의 형벌을 원한다. 우리가 몸소 당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당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롬5:1; 8:1).

5절의 고침을 받은 것은 1차적으로 영적인 치유(벧전2:24)

6절: 결국 우리의 죄들로 인해 메시아가 죽음, 죄=범법, 불법(6)

넷째 소절: 메시아가 모든 것을 감수함(7-9)

7절: 좋은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소하는 자들과 고통을 주는 자들 앞에서도 말을 안 함

가야바, 수제사장들과 장로를, 빌라도, 헤롯 안디바, 군인들

그 결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놀람(행8:26-40).

메시아는 어린양(7), 출12:1-13, 요1:29

8절: 메시아가 죽음

9절: 원래는 몸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야 함, 하나님의 다른 계획, 아리마대 요셉(요19:38-42)

부자가 처형당하는 장소에 들무덤을 팔 이유가 없음,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뿔(북서쪽 38km)

다섯째 소절: 만족해하는 메시아(10-12)

10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 사역, 1. 아버지를 기쁘게 함(요8:29), 아들의 순종으로 속죄 사역 마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전에 이를 계획함(행2:22-23). 섭리 그분은 순교자가 아니라 세상의 죄들로 인한 대신 속죄 희생물

부활을 통해 모든 원수를 짓밟음(엡1:19-230; 4:8)

2. 하나님의 율법 만족, 화해 헌물(요일2:2), 죄는 그분의 거룩함에 피해를 준다. 그분의 법을 침해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시라 용서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용서는 안 됨(공의 파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 공의 만족, 사랑 성취, 그 결과 율법 만족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한 값을 치른 것이다.

사탄의 계약(마4:8-10), 십자가를 패스해라.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빌2:8-10)

그 결과 그는 자기 씨를 본다. 그의 세대(8), 그분의 자식들(마1:1; 시22:30)

11절: 메시아의 만족

11절의 중요성,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분의 지식으로(자기에 대한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 of는 목적격

요17:3 영생은 우리가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12절: 그는 죽기까지 하면서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쌤 스티븐 이야기(유대인 랍비)

2차세계대전, 폴란드 거주, 나치의 학대

전쟁 이후에 유대교 선교를 위해 미국 이주, 로드아일랜드

산책하는데 청년들이 작은 인쇄물을 나누어 줌. 인쇄물을 받고 가게로 들어갔는데 상품은 없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함. 영어를 모름, 이디쉬말, 독일 말하는 신사의 설명

다음 주 수요일, 독일 신사는 이곳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데라고 말함.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함

독일 신사가 뉴욕에 사는 유대인 소개(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됨), 그의 집에 감

그 유대인은 잠시 후 '고난당하는 자'(The Sufferer)라는 제목의 시를 자신이 썼다고 하면서 읽어 주기 시작함. 그러나 그건 구실이었고 실제로 그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이었다.

다 읽은 뒤 그 유대인이 물었다. "이 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죄들 때문에 누가 고통당하셨나요? 누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나요?"

그의 대답: "그 시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것일 테지요."

그러자 그 유대인의 대답 "나는 단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손으로 적어 당신에게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기 700년 전에 그분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쌤 스티븐의 말: 나는 유대인 랍비였지만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니까 빛의 승리 책(Victory of Light) (*)

현재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함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도 모름.

마1:1절, 신약 성경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도 알지 못함

사복음서 내용의 대다수가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함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구원을 받고 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온전히 들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사역이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아는가?

요17:3

이사야서 54장: 메시아 사역과 이스라엘의 회복

사54:1-17

이사야서 주의 종의 노래 네 번(42:1-7; 49:1-6; 50장, 53장), 지난 시간 네 번째 것, 53장
메시아 노래는 53장만이 아니라 52장 13-15절과 53:10-12절 총 15절, 5소절(3절씩)

53장은 이사야서의 핵심, 대신 속죄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해 생긴 세대가 생긴다.
메시아는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고 지금은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히7:25; 롬8:34).

그러면 그분께서 고통당하시며 희생하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54-59장 문맥의 이해가 중요하다.

1. 이스라엘에게는 회복(54장), 2. 이방인에게는 구원 초청(55:1-56:8), 3.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근거(56:9-59:21)

오늘 < >, 메시아 희생의 결과 중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

1. 바빌론 해방, 2. 재림 시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의 회복(54)

이사야서 등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간음한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남편(1-3),
에스겔 16, 23장, 호세아 2장

언제 결혼: 사내 산에서(출19장)

그러나 그 뒤 계속해서 영적 간음을 벌이며 다른 신들 추구, 주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림

그러나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한 것이 아니다.

결국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회복한다.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재림)를 생각하며 읽기를 바란다.

1. 기쁨의 회복(1), 그들은 노래한다. 잠시 동안의 바빌론 포로 생활

재림의 때로 볼 수도 있다. 2-3천년 이후,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2-3일

2. 사람이 충만히 늘어난다(2-3). 바빌론 포로 생활로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이제 늘어난다.

사도 바울은 54:1을 갈4:27에서 인용하면서 교회의 흥왕에 대해 말할

교회가 세상에서 소수지만 불어날 것임을 말함

그리고 역사를 통해 실제로 그렇게 됨

3. 확신이 넘치게 된다(4-10). 그 결과 두려워하지 않는다(4).

a. 죄들의 용서: 가나안 정복 이후 700여 년 동안 죄를 지음(4), 이때가 젊은 시절

과부 때는 포로 생활,

b. 좋은 남편이신 하나님(5-6), 또한 구속자, 만드신 분, 그분이 자기 아내를 찾으며 부르신다.

c. 하나님의 약속(7-10)

7절: 다시 그들을 모은다. 8절: 긍휼을 베푼다.

9절: 여기의 이것은 다양한 해석 가능, 풀핏 주석은 이것을 바빌론 포로 생활의 재앙으로 봄
다른 주석들은 8절의 약속이 노아 시대 홍수 후에 주어진 언약과 같다고 봄.

바빌론 포로 생활은 노아의 홍수와 같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다시는 안 일으킨다(9, 창8:21)

10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10). 여기는 문맥상 천년왕국

d. 아버지과 자식 관계, 자식이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징계(히12:1-11)

징계의 목적은 회개, 그 결과 화평이 유지된다.

4. 예루살렘이 재건된다(11-17). 포로 생활 이후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참조

그리고 최후에 주님의 재림 때 에스겔 40-48장의 천년왕국 성전

16절은 17절에 나오는 무기를 만드는 자들 이야기

너를 대적하는 무기를 만드는 자들은 다 내 손안에 있다.

5. 놀라운 보호의 약속(17), 주에게 속한 의로운 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특히 말세에 이스라엘 부활, 성전을 짓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결론

1차적으로 여기의 해방과 구원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바빌론 포로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
이것은 21세기 재림의 때에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주님을 바라보고 곳곳이 믿음 생활하자.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55장: 메시아 사역과 이방인 초청

사55:1-13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죽음, 매장, 부활

메시아가 고통당하며 희생하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이스라엘에게는 회복(54장), 2. 이방인에게는 구원 초청(55:1-56:8), 3.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근거(56:9-59:21)

지난 시간 54장,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줌

오늘 < > 55장,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초청함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요1:29; 3:16; 요일2:2; 4:14)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이다.

심지어 대언자 이사야는 줄곧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사야 포함 구약의 대언자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즉 믿는 이방인 + 믿는 유대인(엡2:11-13, 19; 3:5-6)

그 결과 고전10:31-33

1. 오라(1-5)

누구든지 목마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요4:10-14, 계22:17).

동방에서는 물이 귀하다. 풍성한 물, 대단히 중요하다(수가 성 여인).

이스라엘의 주식: 빵, 포도즙, 우유, 하나 더 올리브기름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빵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요6:27; 마4:4)

우리는 빵과 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거저 주시겠다고 한다.

마6:31-33

거저 받으려면 잘 들어야 한다(2-3).

그러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공물을 주신다(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11:15, 13:9, 13:43, 막4:9, 눅8:8, 눅14:35).

4절: 여기의 그는 1차적으로 다윗, 그러나 문맥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겔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겔34:24)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겔37:24)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규범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5절: 여기의 너는 메시아 혹은 이스라엘,

내용: 하나님께서 메시아 혹은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민족들을 구원하신다.

메시아든 이스라엘이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롬11).

2. 그분을 찾고 구하라(6-13).

6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라. 고후6:1-2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 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7절: 사악한 자는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7).

바울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행20:21)

언제 찾아야 하는가? 만날 만한 때에(6), 지금이 그분을 만날 때이다(고후6:2).

특히 언제가 좋은가?

어릴 때, 젊을 때, 때가 덜 묻었을 때, 마음이 아직 더 연할 때, 반역하는 마음이 덜 할 때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전11:9, 12:13-14).

8-9절: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 생각과 길이 아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

그분을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열심히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롬4:18).

사람은 진화론, 하나님은 창조

사람은 말씀 보존 의심, 하나님은 지키신다.

사람은 겉모습, 하나님은 속중심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하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10-11절: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주어진 목적을 반드시 성취한다.

12-13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13절의 그것, 55장에서 거론된 모든 것

그것들이 주를 위해 이름이 된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간다. 주님의 명성이 올라간다.

모든 사람이 기념하는 권능의 표적이 된다.

결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가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들을 보존하신다.

시12:6-7,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딤후3:16-17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다 들어 있다. '없음'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사야서 56장: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사56:1-12

메시아께서 고통당하시며 희생하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이스라엘에게는 회복(54장), 2. 이방인에게는 구원 초청(55:1-56:8), 3.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근거(56:9-59:21), 지난 시간 55:1-13

오늘 < >, 56장 12절, 앞부분 이방인 초청(특별히 3-8), 뒷부분,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 심판
56장 1-8절은 유대인들(앞부분)과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

1절: 주님은 판단의 공의와 정의의 요구, 왜? 하나님의 구원과 의가 가까이 왔으므로

2절: 유대인들에게는 판단의 공의와 정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 잘못된 경배,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적(출20:8; 31:12-18; 느9:13-14)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다.

안식일 예배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보여 주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규례가 아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첫 날이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3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구약 시대 이방인들,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문제없다.'

고자(eunuch)도 문제없다.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고자 혹은 내시, 결혼하지 않은 사람(마19:12)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고자는 원래 이스라엘 회중의 집회에 들어 올 수 없었다(신23:1-8).

이방인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타국인과 고자가 은혜를 입는 때가 온다(3-4).

그런데 이들은 심지어 안식일을 지킨다(6).

왜 이 말씀들이 나오는가?

유대인들의 편견, 히스기야의 명멸, 유대인 개종 가능, 시편 87편은 개종자들에 대한 말씀, 그러나

그의 아들 후대 므낫세 시대에 이들은 따돌림을 당함

고자는 원래 집회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들도 하나님만 섬기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일은 천년왕국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구약의 희생제도가 그때에 복원된다(성전, 제사장, 레위 사람, 희생제도, 겔40-48장)

이것은 기념을 위한 것이지 죄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때에는 이방인들도 장막절을 지켜야 함(슌14:16, 19)

다시 안식일 규정, 이방인들도 지킨다.

7절: 문백상 천년왕국의 성전, 내 집은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마21:13)

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다른 자들도 모르신다(요10:15-16).

앞뒤 문백상 이방인들, 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

여기의 그는 이스라엘 혹은 메시아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56:9-12)

국가와 종교의 지도자들(56:9-57:2)

우상 숭배자들(57:3-13)

교만한 자들(57:14-21)

위선자들(58)

불의를 행하는 자들(59) 등, 이들은 심지어 짐승들의 밥이 된다(56:9).

1. 지도자들(56:9-12)

유다 패망의 원인: 지도자들(렘5:30-31; 애4:13-14)

백성은 지도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지도자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파수꾼(10):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치리자

그런데 눈이 멀(10), 무지함, 말 못하는 개, 잠자고 눕기를 좋아한다(10).

지도자들은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겔3:17-21; 33:1-11). 깨어 있다가 경고하는 것
양들을 지키는 목자(56:11), 그런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표현(행20:18-38)

결론

메시아는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도 초청한다.

9절: 반즈 주석, 온 세계는 그 기원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평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셨기' (행 18:26)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은 도덕적 성품에 관하여 평등합니다 -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속에 관해서는 모든 민족이 동일한 구세주가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동일한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며, 영원하고 가장 복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복에 대해 은혜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하며, 구원의 제안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얼마나 염려해야 하는가! 넓은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류 가운데 지위가 너무 낮거나 무지가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이나 대언자들과 더불어 동일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쓴 가장 장엄한 군주의 기도와 찬양만 받으시지 않는다.

요3:16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사야 당시, 포로 생활 이후: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예수님 당시 가장 크게 책망을 받음: 독사의 자식들이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면 사람의 말과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한다.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막7:13),

종교인들은 대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종교 생활과 행위를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자.

딤후2:22-23

이사야서 57장: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사57:1-21

메시아가 고통당하며 희생하여 이루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이스라엘에게는 회복(54장), 2. 이방인에게는 구원 초청(55:1-56:8), 3.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근거(56:9-59:21), 지난 시간 56:1-12: 지도자들의 부패

오늘 < > 57장, 21절,

이번 장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 준다.

57장 1-2절은 56장 9절 이후에 나오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다.

3-13절은 우상숭배자들

14-21절은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 대한 심판

58장도 동일한 심판이 위선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떨어진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다.

1. 악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1-2)

사57:1,2절의 의미: 어떤 때는 강력한 심판을 몸으로 겪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어떤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이 심판이 닥치기 전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대하34:24-28, 대하35장 20-27, 바빌론 침략 이전에 숨을 거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복이요, 안식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다(사55:8-9)

2. 우상 숭배자들(57:3-13)

유다와 이스라엘 패망의 근본 원인: 우상 숭배, 전국에 우상

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 우상 파괴 노력, 큰 효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3절: 우상숭배는 간음이다.

4절: 그들은 범법의 자식들, 거짓의 씨

5절: 극심한 우상숭배

6절: 돌을 숭배함

7절: 산 위에서 우상숭배

8절: 집에서 우상숭배

9절: 이러면서 또한 이방인들의 왕을 신뢰함(9). 이것 역시 간음, 하나님 대신 다른 신 혹은 왕 하나님 이외의 우리의 경배 대상은 곧 우상이다. 탐욕은 우상숭배(골3:5)

점점 사항: 우리는 어디에 시간과 돈과 생각을 가장 많이 쓰는가?

10절: 외세에 의존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님. 그리고 그 결과를 기뻐함

11절: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외세에 의존하려 하느냐? 그리고 내게 거짓말을 하느냐?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이 일들을 참으니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12절: 네 의와 네 행위는 더러운 길레 누더기(사64:6)

13절: 전반부: 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들은 다 날라 간다.

3.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들(57:14-21)

13절: 후반부: 그러나 이 외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할 것이다(13절 후반부).

14절: 또 그들은 대로를 예비하여 바빌론 포로 생활의 방해물을 제거한다(14).

이사야서의 주제 중 하나: 대로

15절: 하나님의 성품(15), 사66:2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주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하늘 맞는다.

그것의 이름은 영원이다. 영원은 시간과 공간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 거룩하다(시29:1-2).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16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악한 자들을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16). 창6:3

17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교만(15), 탐욕(17), 탐욕에 빠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17)

18절: 그러나 1차 바빌론 포로 생활 해방과 위로,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신다(18-19).

19절은 천년왕국 문맥

20-21절: 그러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20-21).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15-16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21절,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벧전5:5-6)

이사야서 58장: 하나님은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

사58:1-14

이사야서 53장, 메시아가 고통당하며 희생하여 이루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이스라엘에게는 회복(54장), 2. 이방인에게는 구원 초청(55:1-56:8), 3.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근거(56:9-59:21)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국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중 눈먼 자들(56:10-12)

지난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난 주 57:15-16,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고 심판하신다.

이번 시간 < > 58장 총 14절, 위선자들에 대한 심판

위선(명사 6회 사32:6, 신약 5회)

위선자: 단수 10회, 복수 20, 총 30회, 주로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
마6:2-3, 주로 종교적 위선을 떠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또 다른 대상은 위선자들(58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법을 보여 주라. 그것은 극도의 위선이다.

외적으로는 주님께 오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다.

3-12절: 위선의 예, 금식

신약시대에도 영터리 위선 금식(마6:16-18)

금식: 원래 이스라엘 전 민족이 1년에 1차례 속죄일에, 7월 10일(레16:29-31).

개인 금식은 원하는 때에

지금도 금식 필요,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

다만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하지 말라. 구약 시대 및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특성

3절: 이들의 위선, 왜 주께서 우리의 금식을 안 보시느냐?

그런데 이들은 금식하면서도 몰래 쾌락 추구

스가라서에도 동일한 말씀(슥7:5-6)

4절: 나 금식한다. 너는 왜 안하냐?

5절: 주님의 대답, 그런 금식을 내가 받겠느냐?

6-7절: 진짜 금식은 마음이 올바른 것

여기서는 영적인 금식을 말함.

진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8-11절: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님의 복이 임한다.

12절: 그 결과 이들은 귀한 백성이 된다.

13-14절: 진정한 유대인은 안식일도 바르게 지킨다.

여기를 읽고 안식일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13-14).

안식일은 신정 정치하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 56장에서 설명함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적(출20:8; 31:12-18; 느9:13-14)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다.

안식일 예배를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보여 주라.

결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어졌다.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

필요하면 기도, 금식, 구제, 헌금 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용하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처럼 파멸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종교인들을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하신다.

요4:19-24,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것은 위선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는가?

이사야서 59장: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사59:1-21

메시아가 고통당하며 희생하여 이루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인가?

1. 이스라엘에게는 회복(54장), 2. 이방인에게는 구원 초청(55:1-56:8), 3. 불신자에게는 정죄의 근거(56:9-59:21)

지난 몇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국가의 정치 종교 눈먼 지도자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교만한 자들),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번 시간 < > 59장 총 21절,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또 다른 대상은 불의한 자들(59장)

유대 패망의 원인 중 하나: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리자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함
사1:17-23; 3:13-15; 5:8-30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59:3; 1:15, 21).

하나님의 큰 관심: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렇다고 빼앗아서 주려고 하면 안 된다.

1-2절: 그들의 불법들로 인해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

3절: 이 당시 사회: 거짓이 팽배함, 진리와 거짓의 갈등

4-5절: 악한 자들의 특징(59:4-5), 뱀의 자식들, 독사의 세대들

6-8절: 그 결과 롬3:9-18, 사람의 상태(원래 이스라엘의 상태)

9-11절: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살 때에는 빛이 없다. 구원이 없다.

12절: 대언자 이사야가 민족을 대신하여 고백함.

13-15절: 진리와 신뢰가 없어질 때 사회는 악하게 변한다.

14절: 진리가 길에서 쓰러짐.

유대 패망의 원인(렘5:1-3)

15절: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16절: 이러한 때에는 백성 가운데 증보자가 없다(16; 잠24:11-12).

16-19절: 그래서 결국 주님이 직접 나서신다. 그래서 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남
그분의 팔(arm)

18절: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19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함. 원수가 달려옴.

여기의 원수는 사탄 마귀(7년 환난기를 생각하라)

20-21절: 궁극적으로 재림의 문맥. 천년왕국의 약속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문을 생각해 보자(마6:9-13),

하나님이 원하는 일: 이때가 올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마5:13-16)

21절: 말씀 보존(마24:35)

이스라엘 보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결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진리를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세력에게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 판단의 공의(judgment), 정의(justice)를 선포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사회 정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마6:33)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사야서 60장: 하나님의 영광의 새 시대가 온다

사60:1-22

이사야서 강해 마지막 부분에 왔다. 60-66장 일곱 장 강해를 들으신 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특히 이사야 대언서 당시, 바빌론 포로 생활, 재림 1차적인 의미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나 2차적으로 우리 역시 교훈을 받는다. 특별히 53장 같은 경우는 구약성경의 복음서 이런 것들의 이해가 있어야 신약을 바르게 알 수 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7장: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영광이다(벧전5:10-11).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 끝에는 이것을 통해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후반부 40-66장, 시작, 위로하라(40:1), 이스라엘의 용서(2),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5) 영광(glory, 총 402회, 이사야서에만 50회),

59-66장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15회 이상 사용된다.

구약에서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다. 부, 권능, 위치 등이 많거나 커서 무겁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

오늘 < > 총 22절

새로운 시대의 개막(60장)

1-2절: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 너는 이스라엘

2절: 7년 환난기, 온 세상의 어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도래한다.

3절: 그 결과 이방인들의 구원, 사2:1-2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세카이나 글로리(출40:34-38), 40년 광야 생활

죄로 인해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블레셋과의 전쟁, 궤를 빼앗김 삼상4:21)

성전으로 돌아옴(왕상8:11),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뒤 바빌론 포로 생활 가면서 다시 영광이 떠남(겔9:3; 10:4, 18; 11:22-23)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옴(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수님 거부

지금 그 영광이 영적으로 교회 안에 거함(엡2:20-22), 성도 개개인 안에(고전6:19-20), 성령 하나님이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사40:3-5).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는 그들에게 엄청난 어둠의 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는 주의 심판의 날, 대환난기(암5:18)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신 민족들과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

주의 날: 곡과 마곡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 빛을 가지고

이때 세상은 주님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사11:9; 합2:14).

4-18절: 야곱의 후손들이 돌아온다(사60:4, 8-9)

4절: 유대인들이 사망에서 돌아온다.

5-7절: 수많은 재물이 흘러들어온다.

8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9절: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된다.

10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11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온다.

12절: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자들은 피폐하게 된다. 슄14장

13절: 레바논 산의 목재들로 이스라엘 전체가 영화롭게 된다.

14-15절: 전세 역전

이스라엘의 영광(12, 14), 천년왕국에서 으뜸가는 민족, 국가

천년왕국의 특징(17-19절)

물론 천년왕국은 지금의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와 달이 있다(19절).

여기서는 천년왕국 이후의 영원한 세상을 말함.

이사야 대언자에게는 계시가 천년왕국까지만 주어짐

바로 이때 즉 천년왕국의 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갖는 때

바로 이때에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복을 누림(3; 11:9)

이런 말씀을 읽고 영해하면 안 된다.

여기의 모든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이 교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천주교/개신교의 대체 신학.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롬9-11장을 보라). 이스라엘의 새 날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19-22)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음, 주님의 영광의 빛

새 예루살렘과 비슷함(계21:22-26)

그러나 19-20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 해당된다.

21절: 믿음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되고 땅을 상속받는다.

22절: 엄청난 부흥이 이스라엘에 일어난다.

결론

이사야 대언자는 히스기야 당시 아시리아의 침략, 그 뒤 150년쯤 지나서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위로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53장), 그리고 여러 곳에서 재림 등에 대해 대언함

BC 2000년경의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을 기록함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없다.

그래서 대언서 중의 대언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책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원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40:1), 이스라엘은 용서되었다(2),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5). 모든 육체가 볼 것이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 그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사야서 61장: 메시아가 주시는 새로운 삶: 구원의 기쁜 소식

사61:1-11

마지막 7장: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 끝에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 60:1-4, 영광의 시대의 개막

오늘 < > 총 11절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등 구약의 대언서, 너, 너희, 그들 거의 100% 유대인들(대언자 당시, 바빌론 포로생활
이전과 이후, 초림과 재림 때의 유대인들)

무조건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으 왜곡된다.

오늘 61장도 위대한 장이다.

특히 1-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

메시아 사역의 목표

물론 이 말씀들은 전 인류에게 적용되지만 문맥적으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된다.

3절의 시온, 그들 모두 유대인들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1-9절은 주님의 말씀, 10-11절은 이사야의 말

메시아 사역의 목표(1-3)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고 이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눅4:16-21).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언급되고 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주 하나님, 영, 나(메시아)

예수님의 누가복음 4:18-19을 보라.

예수님은 2절 후반부 즉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인용하시지 않음

그 이유: 그것은 재림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초림과 재림, 대단히 묘하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은 재림의 때에 온다(34:8, 35:4, 63:4).

1-3절의 배경은 레25:8-17에 묘사된 “희년”이다.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땅을 쉬게
해야 했다. 일곱 번의 안식년, 즉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기념해야 했다.

희년: 기쁨의 해

속죄일에 희락의 나팔소리(25:9), 자유 선포(10), 자기 소유로 돌아간다(13). 빛 탕감

그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노예를 해방하고 모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경제의 균형을 맞추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님의 방법이였다.

반역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잎사귀가 시드는 상수리나무와 물 없는 동산 같았지만(1:30), 하나님 나라에
서는 물 댄 동산(58:11)과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61:3).

'희년의 해'에 유대 민족은 그들의 땅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회복할 것이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양떼와 소떼를 치고 농작물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아들로 인정하시고(출4:22) 복을
두 배로 주실 것이다(사61:7, 신21:17).

1-3절: 이스라엘의 회복 및 부흥을 확인해야 한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 팔레스타인 사태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이스라엘이다.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3).

누가복음 4장과 함께 문맥을 고려해서 읽으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것

유대인들의 회복(4-7)

4절: 폐허의 회복

5절: 이방인들이 그들을 섬긴다.

6절: 그들은 주의 제사장(6), 하나님과 사람들(이방인들)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맡은 자들, 이방인들의 빛

7절: 그들이 드디어 두 배의 보상을 받는다(7). 사40:1-2

8절: 그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영존하는 언약(8)을 맺는다. 사61:8의 “영존하는 언약”은 렘31:31-37에 묘사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제정하신 새 언약의 축복을 포함한다 (히10:1-18, 마 26:28).

9절: 그들의 후손들, 이방인들 가운데 으뜸이 됨(9)

천년왕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간다(65:20). 천년 동안(계20:1-5), 6회(2-7)

10-11절은 대언자의 말

10절: 이사야 대언자의 기쁨,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누리는 기쁨

11절: 이스라엘로 인해 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양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에덴동산의 회복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최종 결과

결론

1-3절 예수님의 사역, 사람을 살리는 일, 그 결과 기쁨이 넘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우리 역시 오늘날 영적인 “희년의 해”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진 영적 빛을 값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해”에 살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슬픔의 재 대신에 왕관을 머리에 썼다(계1:6).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의의 옷을 입었다(사61:3, 10).

엡1:3-6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자.

이사야서 6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심

사62:1-12

마지막 7장: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 천년왕국, 이사야에게는 여기까지만

물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 끝에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두 장, 현재의 땅에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
영광의 시대의 개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된다.

오늘 < > 총 1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심(1-3)

1절: 내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사9:7,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사37:32에도 동일한 열심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나갈 때까지
즉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2절: 천년왕국의 때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의와 영광을 본다.

내가 네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3절: 영광의 왕관, 고귀한 왕관이 될 것이다.

4절: 이름이 바뀐다. 너를 헵시바, 네 땅을 불라로

버림받은 자(사50:1-3), 황폐한 자(54:1),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러나 이제는 결혼한다. 그 결과 많은 자녀들을 낳는다. 부흥한다.

5절: 구체적인 결혼, 청년과 처녀, 결혼하기에 합당한자들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한다: 그 땅의 백성이 집단적으로 번성함을 나타냄, 아들들은 신랑, 땅은 신부
또한 영적으로는 그들의 남편인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기뻐한다.

6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함(6), 이전에는 이들이 문제였다(56:10)

7절: 이들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7). 흥미 있는 구절

그래서 간구해야 한다(시122:6). 겔36:35-38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이때에 이들은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께 예배드린다(겔40-48장).

8-9절: 하나님의 이스라엘 보호 약속

10절: 이스라엘이 제 땅으로 돌아간다.

또 한 번 이사야의 큰 길(highway)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12), 사35:8, 또 거기에 큰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함의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
있으리니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11절: 환난기 끝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다.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

계22:12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12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선택된, 구별된 백성

이들은 주께서 구속한 자들이다.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고 있는 베일이 벗겨진다(고후3:14-18).

결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된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1절, 25-29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은혜, 크리스천이라는 새 이름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사야서 63장: 재림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선포

사63:1-19

이사야서 후반부 40-66장, 시작, 위로하라(40:1), 이스라엘의 용서(2),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5)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총 주제이다. (성경 전체 단수 총 402회, 이사야서에만 50회) 59-66장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15회 이상 사용된다. 오늘 < > 총 19절, 하나님께서 새롭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아말렉돈 전쟁에서 구출하시면서 영광을 얻으신다.

새로운 승리의 선포(63장)

1-6절 아말렉돈 전쟁의 주님(계19:11-21)

여기서 에돔은 이방인들의 대표로 언급됨.

에돔(에서)은 특히 야곱(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로 바빌론 침공 당시 이스라엘의 불행 관망 및 조롱(오바다)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이미 사34장에서 자세히 언급됨(이두매아)

보스라는 에돔의 주요 도시, '포도를 수확함', 그래서 여기에 포도즙 틀이 나옴(2-3절)

4절: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심, 내가 이스라엘을 구속한다.

5-6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홀로 원수를 갚는다.

왜 홍해(Red sea)일까?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바다는 현재 빨간색 바다가 아니다.

그런데 왜 빨간색 바다라고 불릴까?

실제로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붉다'이다(창25:30). 붉은 죽 고대의 포도즙 틀은 땅에 만들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음(*).

그러면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붉게 됨.

아말렉돈 전쟁이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계14:19-20, 피가 나와 말의 목까지 차올라오며 300km(1600스타디온)를 흘러감.

엄청난 수의 사람들 죽임 당함, 눅17:35-37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함(계19:15)

예수님의 올리브 산 강림(슌14:2-4), 올리브 산이 반으로 갈라짐

아말렉돈에 모인 군대들, 예루살렘 진격

도시 밖의 큰 포도즙 틀에서 엄청난 규모의 큰 살육(사34:1-8)

대량의 피가 흐른 다. 적어도 300킬로미터

골짜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나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간다.

그래서 포도즙 틀 심판 골짜기의 피가 보스라를 거쳐 홍해로 내려감

바다가 붉게 됨, 약 300킬로미터

그래서 홍해(Red sea)라는 말이 그때에 진짜로 적용할 것이다.

이사야서 61:2,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주의 받아주시는 해(사61:2), 진노의 날(61:2; 63:4)

여기서는 주님의 원수 갚으시는 진노의 날을 묘사한다.

주님이 과거에 하신 일(7-14)

7절의 나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대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말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7-10)

7절: 이스라엘의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8-9절: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심

10절: 때로는 그들을 대적하심, 40년 광야 생화르 첫째 세대는 다 죽음

11-13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집트 탈출 회고

광야에서의 모든 은혜, 내가 베풀어주었다.

14절: 대언자의 요약 정리, 여기의 그는 이스라엘

15-19절: 아마겟돈 전쟁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

16절: 아버지 인정

17절: 우리를 불상히 여기소서

18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자들, 특별 소유 백성(출19)

19절: 우리는 주의 것이지만 우리 대적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결론

아마겟돈 전쟁,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

마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 스가랴서 12,13,14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만다.

스가랴서 14장, 그 하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는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